주체91(2002)년

6.15주간

6.15Weekly

제36호 (2월 22일~2월28일)

일본≪아사히신붕≫편집국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담(발췌)



들끓는 민심,
반미온도 100 °C

새해맞이 민족공동모임 결국 무산

미국이여, 낙점하소서?

부시는 결국 평양 간다

6.15주간 편집부

6.15주간

6.15WEEKLY

제35호 (2.22~2.28)

특집 - 들끓는 민심, 반미온도 100 ℃





일본≪아사히신붕≫편집국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발췌)

주체81(1992)년 3월 31일



- 조선반도에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최근에 전진이 보이는데 이 문제에 대한 공화국정부의 립장은 무엇입니까?

조선반도에서의 핵문제는 원래 미국이 남조선에 핵무기를 끌어 들임으로써 발생한 문제입니다. 우리 공화국은 비핵국가로서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데 대하여 일관하게 주장하여 왔으며 이에 대해서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핵사찰문제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남아 있을뿐입니다. 며칠후에 열리게 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따르는 담보협정을 심의하고 비준하면 이 문제는 제정된 절차에 따라 원만히 해결되게 될것입니다.

핵사찰문제와 관련한 우리의 립장은 명백하며 이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요란스럽게 떠들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 공화국의 영상을 흐리게 하려고 하는것은 딴 목적을 추구하는것이라고밖에 달리는 해석할수 없습니다. 인류의 생존에 실제적인 위협으로 되고 있는 핵대국이 앞장에 서서 비핵국가인 우리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는것은 국제관계에서 정의와 평등의 원칙을 무시하고 자기의 일방적의사를 강요하는데 습관된 사람들의 오만성의 표현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 미국과의 고위급회담이 진행되였는데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려 하십니까?

우리는 미국이 조선문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나라이고 조선의 통일문제가 미국의 대조선정책과 관련되여 있으므로 조미관계를 개선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그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랭전이 종식된 오늘 조미관계를 개선하는데서도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는 미국이 종래의 그릇된 대조선정책을 계속 고집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근거도 없어 졌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얼마전에 조미 두 나라사이의 고위급회담이 진행되였습니다. 이것은 조미관계를 개선하는데서 일정한 의의를 가지지만 아직은 첫 출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조미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할것입니다. 문제는 미국이 대조선정책을 어떻게 개변하고 조미관계를 개선하는데서 얼마나 적극성을 발휘하는가 하는데 달려 있습니다. 미국이 변화된 정세와 력사발전의 흐름을 옳게 평가하고 미국인민의 리익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지향에 맞게 대조선정책을 대담하게 개변해 나간다면 조미 두 나라사이의 관계는 개선되게 될것입니다.

- 북남합의서가 채택발효된 조건에서 조선의 통일을 실현하자면 어떤 문제들이 반드시 해결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여 발효된것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민족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귀중한 성과입니다. 이제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북과 남이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북남합의서를 성실히 리행하는것이며 그것이 조국통일에로 이어 지도록 공동으로 적극 노력하는것입니다.

북남합의서를 리행하는것은 온 겨레가 갈망하는 조국통일의 문을 열어 나가기 위한 매우 중요하고 책임적인 사업입니다.

북남합의서를 리행하는데서 북과 남의 당국자들의 임무가 중요합니다. 민족앞에 중대한 책임을 지니고 있는 당국자들은 민족자주의 립장에 튼튼히 서서 민족의 지향과 념원에 맞게 북남합의서를 성실히 리행해 나가야 합니다. 당국자들은 조국통일의 길을 열어 나가기로 민족앞에 서약한것만큼 외세의존과 대결의 낡은 관념을 버리고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진정으로 화해하고 협력하며 나라의 통일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북과 남사이의 최고위급회담도 실현될수 있을것이며 련방제방식으로 조국통일을 이룩할수 있는 밝은 전망이 열려 지게 될것입니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이 주체가 되여 이룩하여야 할 전민족적 위업입니다. 통일도상에 가로 놓인 온갖 장애를 극복하고 조국통일의 문을 열어 나가기 위한 근본담보는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것입니다.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이 민족공동의 리익을 앞세우고 여기에 모든것을 복종시켜 나가는 원칙에서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 투쟁할 때 외세의 간섭과 반민족적인 온갖 장애를 제거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겨 나갈수 있을것입니다.

혁명전우 장울화(2)

≪세기와 더불어≫ 제4권 제12장 광복의 새봄을 앞당겨



…

산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서도 우정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은 조선의 혁명가들이 창조한 전무후무한 인간관계의 역사, 동지애의 역사가 잘 말해 주고 있다. 내 개인의 역사로 볼 때에는 장울화의 우정을 상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나와 장울화 사이의 우정이 장울화의 죽음으로 끝났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확한 판단이라고 할 수 없다. 한 인간의 죽음이 우정을 마감짓는 종막으로 된다면 그런 우정을 어떻게 진실한 우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잊지 않고 있을 때 그 우정은 그것만으로도 살아 있는 우정, 생명을 가진 우정으로 되는 것이다.

나와 장울화의 우정은 장울화가 서거한 다음에도 계속되였다. 장울화는 세상을 하직하였지만 나는 한시도 그를 잊은 적이 없었다. 장울화가 남기고 간 그 인간적 향기는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나의 폐부에 더 깊숙이 젖어들었다. 항일전쟁이 조중공산주의자들의 승리로 끝났을 때 나의 추억 속에 제일 선참으로 떠오른 수많은 중국의 동지들과 은인들 가운데서도 장울화는 단연 첫번째 자리를 차지하였다. 해방된 조국 땅에서 나와 나의 일가를 도와주고 조선혁명을 성심성의로 후원해 준 수많은 중국의 은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회고해 볼 때의 심정이란 실로 감개무량한 것이였다. 좋은 세월이 오고보니 은인들에 대한 그리움도 더 간절해졌다.

나는 장울화를 회상할 때마다 그가 남기고 간 부모처자들을 생각하였다. 내가 그의 일가에 대한 생각을 제일 많이 한 것은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한 뒤 동북지방에서 토지혁명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주의적 개혁이 실시되고 장개석의 국민당 군대와 중국인민해방군 사이에 진행된 내전의 불길이 만주 전역을 휩쓸던 시기였다. 도처에서 악질지주들과 매판자본가들을 청산하고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을 타도하는 때인데 장씨 가문 사람들도 혹시 독재대상으로 판정되어 부당한 제재를 받지나 않겠는가하는 우려가 생겼다. 이웃나라에서 동란이 일어나고 그 무엇인가를 타파하는 사회적 운동이 벌어질 때마다 나는 장울화네 유가족들의 운명을 걱정하였다.

장울화가 공로를 많이 세운 혁명열사인 것만은 사실이나 이면에서 지하공작을 많이 한 사람인 것만큼 대중이 큰 부잣집 자식인 그를 반동파나 역적으로 보지 않고 공산주의자로 인정하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나는 그들과 만나게 될 날을 일구월심으로 기다렸다. 그러나 새 나라 건설과 반미대전, 사회주의 기초건설의 복잡한 과정들은 나로 하여금 많은 것을 뒤로 미루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찾고 싶은 사람도 많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많았지만 나는 국사를 위해서 그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고 일에만 전심하였다.

내가 장울화네 일가의 소식을 처음으로 입수한 것은 1959년경이었다. 그해에 우리 나라에서는 항일무장투쟁 전적지 답사단이 조직되어 만주행을 하였다.

나는 답사단을 만난 자리에서 박영순 단장에게 이런 부탁을 하였다.

≪박 포리 동무, 마안산밀영에서 아이들이 병마와 추위에 떨고 있을 때 우리에게 천도 보내 주고 돈도 보내 주던 ≪형제사진관≫ 주인 장울화가 생각나오? 그가 세상을 떠난 지도 스무 해가 넘는데 난 아직 그의 부모처자들에게 문안인사조차 변변히 하지 못했소. 무송에 가거들랑 동무가 나 대신 고인의 유가족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나의 안부를 전해 주시오.≫

≪부탁을 명심하겠습니다. 저도 무송에 가면 장울화네 유가족을 만나 보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신세를 얼마나 많이 졌습니까.≫

박 포리도 깊은 감회에 잠기는 듯 눈시울을 슴뻑거렸다.

≪장울화는 사실 국적은 다르지만 조선사람이나 다름없고 조선의 혁명가나 다름없소. 그가 남긴 업적은 중국의 공산주의운동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항일혁명 역사에서도 당당한 한 페이지를 차지할 수 있소. 만일 장울화의 유가족들이 무송에서 살지 않고 다른 지방으로 이주했다면 공안기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기어이 그들을 알아내야 하오.≫

≪알겠습니다. 온 중국을 다 뒤져서라도 그들을 찾아내겠습니다.≫

답사단이 중국으로 떠나간 후부터 나는 초조한 마음으로 무송소식을 기다렸다. 전쟁의 상처를 완치하고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 개조도 완성한 뒤여서 나에게는 희생된 옛 전우들에 대해서와 그들이 남기고 간 유가족들의 운명에 대해서 관심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정신적 여유가 생겼다.

조국을 떠난 지 몇 달 만에 박영순은 마침내 내가 그처럼 고대하던 무송소식을 전보로 보내 주었다. ≪오늘 무송에서 장울화의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수상님의 인사를 책임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부인은 고맙다고 하면서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부인이 답사단에 사진자료 한 장을 제공하였습니다. 수상님과 장울화의 공동투쟁을 반영한 자료들을 수집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조국에 돌아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는 훗날 박영순이 보고를 듣고 장만정이 1954년에 서거하였다는 것과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장울화의 부인이 아들 장금천과 딸 장금록을 데리고 무송의 옛집에서 검박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박영순이 나의 명의로 되는 인사를 전해 주자, 장울화의 부인은 감격하여 어쩔 바를 몰라했다.

≪하늘은 시간을 두고 변하고 사람은 일생을 두고 변한다는데 **김일성** 장군님의 우정은 어쩌면 그렇게도 변함이 없으십니까. 벌써 20년도 더 지났는데 아직도 저의 남편을 잊지 않고 계시니 무슨 말로 감사를 올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인은 답례의 표시로 수십 년 동안 간수해 오던 사진 한 장을 답사단 단장 앞에 내놓으면서 나에게 전해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장울화와 철주 동생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그 사진은 그해 가을 혁명전적지 답사단이 수집한 사적자료들과 함께 당시의 민족해방투쟁 박물관에 전시되었다. 우리 인민들에게 장울화의 얼굴이 처음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그때부터였다. 전시장을 돌아보던 나는 그 사진 앞에서 오래도록 발걸음을 뗄 수 없었다. 20여 년 전에 대영에서 헤어진 장울화가 죽지 않고 살아서 평양을 찾아온 것 같은 착각이 생길 정도로 그의 사진이 나에게 준 인상은 참으로 충격적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인민들 속에는 장울화를 아는 사람이 얼마 없었다. 선전부문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던 사대주의자들이 우리 당의 혁명역사와 혁명전통을 잘 소개하지 않던 때여서 그가 나를 어떻게 도와주었고 조선혁명을 위해 어떤 업적을 세웠는가를 아는 사람도 별반 없었다. 장울화와 나와의 연고관계를 아는 인물들이란 몇 명의 투사들뿐이었다.

나는 수원들에게 그가 얼마나 훌륭한 인간이고 얼마나 훌륭한 혁명가이며 얼마나 훌륭한 국제주의자인가를 자랑하고 싶었다. 20여 년 세월 내 마음속에 고이고 고인 연민의 샘, 추모의 샘이 마침내 분수가 되어 솟구쳐 올랐다.

≪동무들, 이 사람이 바로 무송 제1우급 소학교 시절의 나의 동창생 장울화입니다. 그는 나의 벗인 동시에 충실한 혁명전우였습니다. 그의 전우들 가운데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많았습니다. 장울화는 우리를 통하여 조선을 이해하고 우리와의 교우를 통하여 조선인민의 항일투쟁을 동정하고 지지성원한 위대한 국제주의 전사입니다. 혁명을 하지 않아도 호의호식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자발적으로 투쟁의 길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생명까지 바쳐 나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사진을 보니 장울화에 대한 생각이 더 간절해집니다. 우리는 행복하면 할수록 장울화와 같은 은인들을 잊지 말아야 하며 우리의 혁명위업을 피로써 도와준 중국의 벗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때부터 우리 나라 출판물들에는 장울화의 업적이 광범히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장울화는 라성고나 황계광과 같이 우리 인민이 다 아는 유명한 국제주의 열사로 되었다. 우리의 후대들은 김진과 마동희를 회상하듯이 무한한 애정과 존경심을 가지고 장울화를 회상하고 있다.

우리 나라 답사단이 무송에 도착한 다음날 장울화의 부인은 자식들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한다.

≪**김일성**장군님과 너의 아버지는 소학교 시절부터 친형제처럼 가깝게 지냈다. 두 분의 친교가 어찌나도 깊었던지 무송의 동창생들치고 그 우정을 부러워하지 않는 학생들이 없었다. 너의 아버지가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싸운 것도 **김일성**장군님의 영향과 지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의 할머니도 늘 너희들이 그이를 큰아버지라고 불러야 한다고 말씀했단다. 장군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언제나 네 아버지를 생각하고 계신단다. 금천아, 너는 큰아버지께 편지를 써서 감사를 드리고 문안인사를 올려야 한다.≫

어머니의 회고담을 20대의 혈기방장한 청년 장금천으로 하여금 잠을 못 이루게 하였다. 1959년의 장금천은 아버지가 사진현상약을 먹고 자결할 때보다 두 살이나 나이가 더 든 미청년이었다. 그는 가족 일동의 심정을 대변하여 나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내어왔다.

나는 그 편지를 받아보고 며칠 밤 장울화에 대한 생각으로 잠을 못 이루었다.

나와 장울화를 이어 주고 있던 우정의 피는 나의 문안인사와 장금천의 그 편지로 하여 다시금 하나의 동맥 속에서 줄달음치게 된 셈이었다.

죽은 사람에 대한 산 사람의 우정은 희생된 사람들의 자녀들에 대한 산 사람의 사랑과 배려를 통해서도 계속된다고 말할 수 있다. 장울화에 대한 나의 우정은 나와 그가 남기고 간 자식들과 빈번한 만남 속에서 새로운 양상으로 심화발전되었다.

장금천의 편지를 받은 그때로부터 나의 관심은 용모도 성미도 전혀 알지 못하는 이 미지의 청년에게로 쏠렸다. 신통히도 필체는 아버지의 것과 유사하였다. 이왕이면 모습마저 아버지를 닮았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그 모습을 사진으로가 아니라 지척에서 실물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조차 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꿈에 지나지 않았다. 그 꿈을 실현하자면 아직도 이러저러한 난관을 헤쳐 나가야 했고 내 자신이 꾸준한 열의와 인내를 발휘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나와 장울화의 유가족들 사이에는 국경이라는 냉담한 저지선이 그어져 있다. 국경은 지난날의 의리나 친분관계에 이해를 표시할 수 없는 엄격한 차단물이다.

장금천의 편지를 받은 때로부터 2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1984년 5월 나는 쏘련과 동유럽 사회주의나라들을 역방하는 기회에 기차를 타고 중국 동북지방을 통과하는 행운을 가지게 되었다. 동북의 산야는 내가 20년 이상의 세월을 보낸 곳이고 무장항일의 만고풍상을 헤쳐가던 곳이다. 나는 나의 고향이나 다름없는 그 산야에 많은 추억을 묻어두고 있었다. 생시에 못 가보는 안타까움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아 꿈에도 발목이 시도록 밟아보는 고장! 그래서 **김정일**조직비서도 노정을 도문→목단강→할빈→ 치치할→만주리→쏘련으로 잡아 주었는지 모른다.

나는 낯익은 산발들에서 오래 눈을 뗄 수 없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붉은 피를 뿌리며 이 땅에 쓰러졌던가. 수십년의 세월이 흘러간 때였지만 불무지 앞에서 쪽잠도 같이 들고 풀 죽도 같이 나누고 초연에 살도 같이 그슬리던 옛 전우들의 모습이 눈앞에 삼삼히 어려와 차창 밖에서 시선을 좀처럼 돌릴 수 없었다.

우리를 태운 특별열차가 도문을 떠나 돈화 쪽으로 한참 달리고 있을 때였다. 나는 무송에 있는 장울화의 처자들 생각이 나서 수원들을 불렀다.

≪이곳은 내가 오래 전부터 와보고 싶었던 곳이었소. 시간이 있으면 빨치산 시절의 전우들과 친지들도 만나보고 전우들의 유해가 묻혀 있는 싸움터에도 가보고 싶은데 그런 소망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오. 여기서 몇 백리밖에 안되는 무송 땅에서 장울화네 가족들이 지금도 살고 있다고 하오. 그들에게 기념으로 선물이라도 보내 주었으면 좋겠소.≫

며칠 후 나의 이름으로 된 선물을 중국의 관계부문의 일군들이 장울화의 집에 전해 주었다.

유럽방문을 마치고 조국에 돌아온 나는 장금천이가 보낸 두 번째 편지를 받고 그를 평양에 초청하였다. 그리고 호요방 총서기에게 장금천의 우리 나라 방문이 순조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1985년 4월 장금천은 마침내 동생 장금록과 맏아들 장기를 데리고 역사적인 조선방문의 길에 올랐다. 일만초목에 꽃이 피고 새싹이 움트는 만화방창한 봄날 나는 홍부대초대소에서 무송의 귀빈들을 만났다.

승용차에서 내리는 장금천과 장금록의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크나큰 격정에 잠겨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버지를 닮은 장금천과 어머니의 모습을 그대로 복사한 것 같은 장금록, 그리고 양친의 두 얼굴에서 좋은 세부들을 이것저것 따다가 모방한 것 같은 장기! 그들이 부모들의 생김새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것은 그들 자신을 위해서도 기쁜 일이겠지만 나를 위해서도 만족스러운 일이었다. 이미 고인들이 된 장울화 부부가 소생하여 내 앞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조차 들었다. 나는 그들의 일거일동에서 장울화다운 면모를 발견해 내려고 시선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묘령과 대영에서 장울화를 만났을 때처럼 장금천, 장금록, 장기를 한아름에 그러안았다.

≪너희들을 환영한다.!≫

나는 첫 인사를 중국말로 하였다. 수십 성상의 세파를 겪는 과정에 나의 중국말 밑천에도 적지 않은 공백이 생긴 때였다. 하지만 내 입에서는 ≪너희들을 환영한다.≫는 중국말이 거침없이 튀어나왔다. 국가수반이 외교석상에서 다른 나라 말로 대화를 하는 것은 관례에 어그러지는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는 그런 관례를 무시해 버렸다. 장금천 일행은 외교를 하려고 나를 찾아온 손님들이 아니었고 나도 외교를 하려고 그들을 초청한 사람이 아니었다. 전우의 자손들을 만나는데 외교는 해서 무엇하며 관계를 따라서 무엇하겠는가.

그래서 나는 그날 그들을 위해 마련한 오찬석상에서 축배사를 하지 않았다. 그것도 역시 관례에 없는 일이었다.

≪우리는 한 집안식구인데 축배사 같은 것은 할 필요가 없지. 그저 여기에 앉은 사람들의 건강과 중조친선을 위해 잔을 찧자!≫

내가 축배사 대신 이런 말을 하자 장금천도 기뻐하였다.

장금천은 아버지처럼 술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에게 술을 많이 권하지 않았다. 우리는 도수가 높지 않은 들쭉술을 석잔씩만 마셨다. 나는 미테랑이 우리 나라를 방문했을 때에도 들쭉술을 권했었다. 왜정 때에는 일본천황만 마신다고 하던 유명한 술이다. 석 잔이라는그 수량 속에는 깊은 사연이 깃들어 있었다. 1932년 6월 무송현 십자거리 북쪽의 ≪동소과≫라는 양주공장에서 나와 장울화가 작별 담화를 할 때에도 우리는 석 잔의 술을 마셨다.

무송의 귀빈들을 위한 환영연은 3시간 공안이나 진행되었다. 격식과 관례를 벗어난 이날의 오찬 분위기는 참말로 가족적인 것이었다. 우리는 정원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날의 화제 가운데서 중심을 이룬 것은 의리에 관한 문제였다. 나는 우리 일가에 대한 장만정과 장울화의 의리를 두고 무송 시절에 체험한 과거사를 술회하였고 손님들은 나의 의리를 두고 감사를 표시하였다.

≪너의 할아버지는 조선의 독립운동을 도와주고 너의 아버지를 조선공산주의운동을 도와주었다.≫

나는 한마디로 장씨 가문의 공적을 이렇게 평가하였다.

내가 그날 장만정과 장울화의 의리를 두고 특별히 많은 말을 한 것은 단순히 그들을 찬양하기 위해서만이 아니었다. 나는 그 이야기를 통하여 장금천, 장금록, 장기를 비롯한 장울화의 자손들도 대대손손 의리를 귀중히 여기는 참된 인간이 되고 절개가 강한 혁명가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았다.

인간의 도리는 봉건적인 도덕에서 말하는 군신과 부자지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벗과 동지들 사이에도 존재한다. 붕우유신이란 이런 이치를 담고 있는 성구라고 생각한

다. 그래서 옛 성현들은 덕과 의리에 기초하는 덕치주의를 선양하여 인자무적이라고 하였다. 덕이 있으면 사람이 있고 사람이 있으면 땅이 있는 것이고 땅이 있으면 재물이 생기는 것이고 재물이 있으면 씀이 있느니라고 하였다. 이 이치는 참으로 오묘하며 현대 생활에서도 참고할 가치가 크다고 본다.

우리는 삼강오륜을 덮어놓고 나쁜 것이라고 보지 않으며 그것을 공산주의이념에 인위적으로 대치시키고 그 도덕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평하는 사람들의 극단적인 견해도 용납하지 않는다. 나라를 섬기고 받드는 신하의 도리가 무엇이 나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의 효도가 어찌 법도에 어긋나는 행위로 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러한 도덕관념이 봉건적인 국가사회제도를 합리화하고 인민들을 무저항과 맹목적인 굴종에로 내모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지 인간 본연의 도덕적 기초를 강조하는 삼강오륜의 원리적 측면은 결코 부인하지 않는다.

장울화와 나와의 사이는 군신의 관계도 아니고 부자지간의 관계도 아니었다. 그가 목숨을 바쳐 나를 보호해 준 것은 삼강의 군신유의로부터 출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한갖 혁명동지에 불과한 나와 혁명 그 자체의 이익을 위하여 삼강의 요구와는 다른 최대의 공산주의적 의리를 발휘한 것이다. 장울화의 업적이 그토록 소중하고 위대한 것은 이 의리의 순결성과 숭고성에 있었다.

그때 장금천 일행은 무송사람들과 가문을 대표하여 나에게 ≪두 마리의 용이 구슬을 가지고 놀다≫라는 제명이 새겨져 있는 나무장식으로 된 시계와 한 폭의 중국화 ≪다수도≫를 선물하였다.

한 농가에서 아이가 큰 장수복숭아가 가득 담긴 바구니를 쥐고 있는 모습을 형상한 그림이었는데 장금천의 해석에 의하면 나의 건강과 장수를 축원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하였다.

나는 답례로 나의 이름이 새겨진 금시계를 장금천, 장금록, 장기의 팔목에 각각 하나씩 채워 주었다.

장금천은 그때 평양에 와서 종합검진도 받고 삭아서 못쓰게 된 어금니 대신 금 틀니도 해 넣었다.

나와 장금천 일행과의 두 번째 상봉은 국경도시 신의주 초대소에서 이루어졌다. 나는 귀국의 길에 오르는 그들을 위해 또다시 오찬을 마련하였고 3시간에 걸치는 담화를 하였다.

작별을 앞두고 내가 일행에게 각각 1대씩 사진기를 선물하였을 때 그들은 모두 감격을 금치 못하였다. 나는 천사만량의 고려 끝에 그들에게 줄 기념품으로 사진기를 선택하였다. 무송에서 ≪형제사진관≫을 운영할 때 장울화는 우리에게 사진기도 1대 보내 주었다. 내가 마련한 사진기는 장울화의 그 선물에 보답이기도 했으며 사진업으로 혁명에 투신한 그의 모범을 이어가기를 바라는 심정의 표시이기도 하였다. 그 당시 장금천도 아버지처럼 무송에서 사진업에 종사한다고 하였다.

나는 작별을 앞두고 그들에게 말했다.

≪난 내일 신의주를 떠나 평양으로 가게 된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일을 잘하고 우수한 공산당원이 되어라. 지위를 탐하지 말고 잘못을 범하지 말거라. 너희들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없이 자랐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이다.≫

장금천은 1987년에도 처 왕봉란과 둘째 아들 장요, 손녀 장맹맹을 데리고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그때 나는 그들을 일곱 차례나 만나 주었다. 이것도 역시 기성 관례나 규범을 초월하는 것이였다. 5살난 장맹맹은 나의 생일 75돌을 축하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 온 외국 손님들 중에서 제일 연소한 벗이였다. 그는 장씨 가문의 다섯 번째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하였다.

4월 13일 밤 장맹맹은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과 함께 초청에 따라 봉화예술극장에서 ≪4월의 봄 친선예술전≫에 참가한 세계 각국 예술단들의 연환공연을 관람하였다. 나는 그날 그 극장에서 장맹맹을 처음으로 만나보았다. 휴게실에서 나와 중간통로를 거쳐 객석으로 다가가던 나는 통로 옆의 맨 앞줄에 자리잡은 장금천 부부와 인사를 나누다가 그를 덥석 끌어안고 공중으로 추켜올렸다. 장맹맹은 서먹서먹해 하는 기색도 없이 내 볼에 볼을 비비면서 밝게 웃고 있었다.

그 순간 극장 안에 모인 수천 명의 관중들은 우리에게 일제히 박수갈채를 보냈다. 나와 장씨 일가의 인연을 알지 못하는 외국의 손님들도 이 장면의 목격자로 된 기쁨을 알고 오랫동안 만장이 떠나갈 듯한 축복의 박수를 보내 주었다.

그렇다. 맹맹아, 내가 너의 큰 증조할아버지이다. 이렇게 너를 안고 보니 너의 증조할아버지 생각에 목이 메이는구나! 증조할아버지는 아이들을 무척 귀여워하시는 분이었다. 지금 살아 계신다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겠느냐. 그러나 그분은 30살도 되기 전에 나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무엇으로 그 은혜를 다 갚을지 알 수 없구나. 너는 5대째로 피어나는 조중친선의 꽃이다. 너의 고조할아버지와 증조할아버지, 나와 나의 아버지는 이 친선을 위해서 한생을 바쳐왔다. 너는 그분들이 흘린 피와 노고 위에서 태어난 한떨기의 꽃이다. 조중 두 나라의 친선을 위해서 온 세상이 보란 듯 곱게 피어라.

우렁찬 박수갈채 속에 휘감긴 그 짤막한 순간 나를 사로잡은 생각은 이런 것이었다. 나는 장맹맹을 품에 꼭 그러안았다. 처녀애의 작은 심장은 내 심장 가까이에서 빠른 박동으로 고르롭게 뛰고 있었다. 그 힘차고 열정적인 박동이 내 가슴에 와 닿은 순간은 나와 장울화의 우정이 5대째로 이어진 의미심장한 시각이라고 할 수 있었다. 장만정, 장울화, 장금천, 장기, 장맹맹… 그렇다. 풍파 사나운 세월의 유수에도 불구하고 두 가문의 우의는 무수한 장강과 내를 건너 5대째로 이어진 것이었다. 두 가문의 우정인 동시에 조중 두 나라, 두 인민의 친선인 것이다. 그러기에 장금천도 훗날 이 친선을 가리켜 ≪흘러온 옛정≫이라는 말로 명명하지 않았던가.

나와 나의 품에 안겨 있는 장맹맹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그때 조중친선이 천추만대를 두고 영구불멸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이날 나는 장울화와 동생 철주가 찍은 사진에 기념으로 나의 이름을 써주었다. 금천이는 그것을 자기 집의 가보로 정히 간수하겠다고 하였다.

장금천 일행이 우리 나라에 체류하는 기간 우리는 그들에게 전용비행기와 특별열차를 내주고 많은 봉사 성원들도 붙여 주었다. 그들은 장울화의 후손들로서 국빈으로서의 응당한 대우를 받은 셈이었다.

1992년 4월 장울화의 자제들은 나의 생일 80돌을 축하하기 위하여 또다시 나를 찾아왔다. 그것은 세 번째로 되는 그들의 우리 나라 방문이었다. 장금천 부부와 장기부부, 장유, 장맹맹, 베이징에서 살고 있는 장금록과 그의 남편 악옥빈, 딸 악지운, 아들 악지상 등 12명에 달하는 일행이 평양에 모였다. 방문횟수가 잦아질수록 나의 장울화의 후손들 사이의 정은 점점 더 깊어지고 열렬해졌다.

장금천은 세 번째 방문기념으로 나에게 자기가 손수 집

필한 장편수기 『흘러온 옛정』을 선물하였다. 그것은 나의 아버지와 장만정의 교분으로부터 시작된 두 가정의 우의에 대하여 보태지도 가공하지도 않고 소박하게 서술한 책이었다. 필치는 비록 소박하였으나 글줄들에 넘치는 우애의 정, 친선의 정은 참으로 호방하고 유창한 것이었다. 그 책은 내 마음을 크게 흔들어놓았다. 내가 글을 잘 썼다고 칭찬하자 장금천은 어린애처럼 얼굴을 붉히며 큰아버님께서 자기들에게 돌려주시는 그 뜨거운 온정이 잘 그려졌는지 모르겠다고 걱정하였다.

나는 답례로 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의 중문판 1, 2권을 그들에게 선물하였다.

≪다른 나라 사람으로서 목숨으로 나를 보호하여 준 사람은 장울화와 노비첸코 두사람이다. 물론 노비첸코는 살아있지만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그런 희생성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다. 오래 생각할 새도 없이 순간에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

이것은 장금천 일행이 세 번째로 우리 나라에 왔을 때 내가 그들에게 한 말이다.

그 말을 듣고 장금천과 장금록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기 아버지의 공적보다 노비첸코의 공적이 몇 배나 더 큰 것이라고 하면서 그가 아니었더라면 어쩔 뻔했는가고 진심으로 말하였다.

≪나의 생애에는 나를 위해 준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다. 아슬아슬한 위기일발의 순간에 나를 도와 나선 잊을 수 없는 생명의 은인들이 많다. 지금 너희들과 함께 다니는 손원태 선생의 아버지 손정도 목사도 그렇고… 그래서 나는 나라를 위해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하늘이 내려다보고 언제나 귀인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것은 관념론이 아니다. 인민을 위하여 한생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은 그 어디서나 인민이 도와 나서게 되어 있다. 이것은 진리이고 변증법이다.≫

나는 그들이 아버지처럼 인민을 위해 복무하고 인민을 위하여 한생을 바치는 훌륭한 인민의 아들딸이 되어야 한다고 간곡히 말해 주었다.

장금록은 나에게 자기가 손수 뜬 자지색 모세타를 선물하였다. 내가 몸에 걸칠 수 있는 것으로 준비하였다는 것이다. 다른 것을 가져오면 국제친선전람관 같은 데 소장하고 쓰지 않을 것 같아 몸 가까이에 두고 쓸 수 있는 것으로 마련했다는 것이다. 생각이 깊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매우 고맙게 받았고 그들의 소원대로 그 자리에서 세타를 입고 기념촬영을 하였다.

장금천은 그때 나를 만난 자리에서 자기 아버지의 서거 55돌을 계기로 묘비를 새로 해 세우려고 하는데 새길 비문을 하나 써 주었으면 하는 의향을 표시하였다.

그는 나에게 그처럼 허물없는 청탁을 한 데 대하여 나는 고맙게 생각하였다. 그것은 그가 나를 큰아버지로 받드는 것이 진심이고 진정이라는 것을 말해 주는 증거였다.

≪벌써 55돌이 된단 말이지. 너의 아버지가 돌아간 것이 음력 10월이었던 것 같은데.…≫

나는 숙연한 생각에 잠겨 1937년의 그 음산한 가을 회상하였다.

≪그렇습니다. 큰아버님, 1937년 음력 10월 2일입니다. 양력으로는 올해 10월 27일입니다.≫

≪그럴 것이 없겠다. 너희들이 세우는 묘비에다 글을 써 줄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으로 된 기념비를 하나 세워 주겠다. 어떻니?≫

그 돌발적인 제의에 장금천과 장금록은 아무 대답도 못하고 서로 얼굴만 마주 쳐다보았다. 그들은 그렇게 큰 요구를 나에게 제기한 것이 아니었다. 나를 자기 집안의 가장처럼 여기고 속생각을 허물없이 비쳤던 것이었는데 예상치도 않았던 기념비 문제를 화제에 올리는 바람에 당황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모양이었다.

그래서 금천은 황황히 말하였다.

≪그렇게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큰아버님께 폐를 끼쳐서야 안되지요. 그저 글만 써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묘비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좋긴 하다. 그러나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내가 쓴 글을 세긴 기념비를 여기에서 마련해 놓고 우리 사람들을 시켜 들어보내 줄터이니 너희들은 그것을 받아서 세우기 위한 준비나 하도록 하여라. 언제쯤 하면 좋겠니?≫

≪참 그렇게 하여 주신다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큰아버니께서 바쁘실 텐데 또 마음을 쓰시게 하여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외람된 청을 드렸는가 봅니다.…≫

장금천과 장금록은 몸둘 바를 몰라 하였다.

≪기념비를 준비하는 것은 오래 걸릴 것이 없다. 그러나 이왕지사 기념비를 세울바 치고는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에 즈음하여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장금천과 그 일행은 나의 제의에 기꺼이 동의하였다. 그들은 무송에 돌아가면 기념비 제막 준비를 다그치고 중국의 해당기관에도 알리겠다고 하였다.

이렇게 되어 나는 옛 혁명전우인 장울화의 묘소에 나의 이름으로 된 기념비를 세워 주게 되었다.

우리 나라 당역사 연구소 일군들이 기념비를 평양으로부터 무송까지 날라갔다. 중국의 당과 정부에서는 임강교두에까지 사람들을 보내어 우리 대표들을 열렬히 맞이하였고 10월 27일에는 무송시내에 있는 장울화의 묘지에서 기념비 건립 행사를 성대히 치르도록 해 주었다. 중국의 방송보도기관들에서는 큰 의의를 부여하여 그 행사를 널리 보도하였다.

≪장울화 열사의 혁명업적은 조중인민의 친선의 빛나는 상징이다. 열사의 숭고한 혁명정신과 혁명업적은 인민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있을 것이다.
김일성 1992년 10월 27일≫

이것은 나의 자필로 된 그 기념비의 전문이다.

우리 대표들이 평양에 돌아온 다음 나는 기념비건립행사를 촬영한 녹화물을 보고 그 성대함에 놀랐다. 그것은 조중인민과 중국인민, 조선의 투사들과 중국의 투사들만이 창조할 수 있는 친선과 의리의 산 화폭이었다.

산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도 우정이 계속될 수 있는가? 나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대답해왔다. 지금도 역시 그렇게 대답하고 있다. 장씨 가문의 3세, 4세, 5세들과의 나의 친교, 무송에서 진행된 기념비 건립 행사는 이 대답의 타당성을 힘있게 입증해 주고 있다.

…

영원불멸할 위대한 업적

구국의 소리, 주체91(2002)년 2월 16일～17일



오늘 조국통일운동은 통일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이 발표된후 지난 시기에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성과를 이룩하며 전진하고 있는데요. 조국통일운동이 오늘과 같이 진전될수 있은 것은 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통일운동을 진두에서 빛나게 영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할겁니다.

≪영원불멸할 위대한 업적≫ 오일씨, 정원주씨 모셨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세요.
오 일 : 안녕하세요.
정원주 : 안녕하세요.
사회자 :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탄생기념일을 맞고보니 그분께서 나라의 통일을 위해 이룩하신 빛나는 업적에 대해 가슴 뜨겁게 회상하게 되는데요. 특히 지금으로부터 1년반전 20세기의 마지막해인 2000년 6월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던 때를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평양상봉과 6.15남북공동선언을 통하여 **김정일**장군님께서 이룩하신 영원불멸할 위대한 업적에 대해 함께 얘기를 나누고자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어느분 말씀해주실까요.
오 일 : 온 민족은 우리 겨레앞에 자주통일의 새 역사를 펼쳐주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 삼가 최대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정일**장군님께서 자주통일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의지, 애국애족의 광폭정치와 탁월한 영도력으로 역사적인 평양상봉을 마련하시고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남북공동선언을 탄생시키신 것은 실로 민족사에 영원불멸할 위대한 업적으로 됩니다.
김일성주석님의 통일유훈을 현실로 꽃피우시려는 철석의 의지를 지니시고 조국통일을 위해 불면불휴의 사색과 노고를 바쳐오신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어 우리 민족은 민족자주통일의 기치를 높이 치켜들고 조국통일의 길로 자신심 드높이 전진해나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양상봉과 6.15공동선언발표는 **김일성**주석님께서 이끌어오신 조국통일위업을 완성하시는 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여기시고 통일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오신 **김정일**장군님의 숭고한 뜻과 크나큰 노고와 심려의 빛나는 결실입니다.
사회자 : **김일성**주석님의 생전의 뜻과 유훈대로 조국을 기어이 통일하시려는 것이 **김정일**장군님의 확고한 의지와 결심이였는데요. 이에 대해 말씀좀 해주시죠.
정원주 : 장군님의 사색과 활동은 언제나 주석님께서 한평생을 바쳐오신 조국통일위업과 잇닿아 있습니다.
1995년 10월중순 어느날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수령님께서 생전에 조국통일을 그렇게도 절절히 바라셨는데 애석하게도 그날을 보지 못하시고 돌아가셨다고 통절히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시고는 가슴이 아프신듯 한참동안이나 창밖을 바라보신 그분께서는 이윽고 통일위업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자신께서는 그것을 확신한다고, 조국을 기어이 통일하자고 힘주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조국통일문제를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하루빨리 겨레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려고 늘 마음써오신 장군님이신데요. 그러시기에

그분께서는 주석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의 길에서 변함없이 견지해야할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정립해주시고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제시하셔서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신 겁니다.

사회자 : **김정일**장군님의 위대한 민족통일사상과 노선, 탁월한 영도와 광폭정치는 마침내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사에 특기할 역사적 사변을 안아왔는데요. 평양상봉이 마련되고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던 2000년 6월, 온 민족과 세계의 시선이 평양으로 집중되지 않았습니까.

오 일 : 정말 우리는 온 민족이 위대한 영도자를 높이 모신 크나큰 민족적 자긍심, 통일에 대한 희망과 자신심으로 가슴 부풀던 그 감격적인 나날들을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게 됩니다.

6월 13일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하실 대용단으로부터 역사적인 평양상봉을 마련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몸소 순안비행장에 나가시어 김대중대통령과 남측 성원들을 뜨거운 동포애의 정으로 따뜻이 맞아주셨습니다.

사회자 : TV앞에 가슴을 조이며 일찌부터 모여앉았던 우리 민중들은 모든 예상을 뒤집고 몸소 공항에 나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을 뵙는 순간 이름할수 없는 감격과 흥분에 휩싸여 일제히 환성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정원주 : 사실 이날 길가에는 사람도, 자동차도 거의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들에서도, 태백산기슭의 농촌마을과 남해가의 어촌에도 사람들은 하나같이 TV앞에 모였었으니까요.

함성은 우리 동포들뿐이 아니였습니다. 수천명의 외신기자들과 특파원들이 역사적인 평양상봉을 취재하러 서울에 왔었는데요. 롯데호텔 프레스센터의 TV앞에 진을 친 그들도 장군님의 거룩한 모습이 공항에 나타나자 일제히 환성을 터뜨렸습니다. 오케스트라의 지휘봉에 따르는 함성처럼 말입니다.

오 일 : 공항에 나오신 **김정일**장군님께서 김대중대통령과 차를 함께 타시고 조심히 연도를 달리시며 평양시민들의 열광적인 환영에 따뜻한 답례를 보내셨는데요, 참 감격적이였습니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통일을 위한 일이라면 그 어떤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장군님의 숭고한 모습을 우러러 남과 북의 우리 겨레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온 세계는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회자 :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남쪽 성원들이 평양에 체류하는 기간 그들에게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밝혀주시지 않았습니까.

정원주 : 장군님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넓은 포옹력, 숭고한 덕망과 예의도덕, 해박한 식견으로 그들과 여러 차례 격식없는 이야기를 나누셨고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민족적 화해와 단합,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일일히 밝혀주셨습니다. 장군님의 정력적인 활동과 크나큰 노고에 의해서 마침내 남북공동선언이 6월 15일 민족공동의 자주통일강령으로 자주통일의 기치로 탄생하게 됐습니다.

역사적인 평양상봉의 이틀밤 사흘낮은 55년의 민족분단사에서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 기간에 분단 55년동안 이룰수 없었던 커다란 위업을 이룩하셨습니다. 그 위대한 자국은 우리 민족사에 영원히 빛날겁니다.

사회자 : 크나큰 감격속에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을 받아안은 우리 민중의 가슴마다에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으로 차넘쳤는데요. 이에 대해 말씀해주실까요.

오 일 : 실로 이 땅의 우리 민중은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태양, 조국통일의 구성, 자애로운 어버이로 높이 우러러 경모하고 있습니다. 한 재야정치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일성**주석의 유지를 받들어 **김정일**장군께서 통일시대의 대문을 여셨다. 50여년동안에 이룰수 없었던 통일의 전기를 2박3일동안에 마련하셨다.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공동선언, 그것은 겨레의 어두운 가슴속에 비쳐든 통일의 서광이였고 갈라터진 강토에 흘러든 통일의 생명수였다. 분단시대를 통일시대로 돌려놓은 민족사의 전환이였고 겨레의 통일열망이 엮어낸 장엄한 서사시였다. 통일의 물꼬를 확 터놓은 민족의 대경사였다. 온 민족을 격동케한 6월의 선언은 **김정일**장군의 자주통일의 경륜과 의지가 낳은 고귀한 열매다.≫

정녕 이 말에는 애국애족의 대용단과 광폭정치로 남북공동선언을 탄생시키시어 민족자주통일의 새역사를 밝혀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한없이 경모하고 칭송하는 우리 민중들의 심정이 담겨져 있다 하겠습니다.

정원주 : 서울의 한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정일**장군님을 TV화면으로 보는 그 순간은 우렁찬 박수와 환희의 눈물로 범벅이던 격정의 순간이였다. ≪야! 통일은 이렇게 되는구나.≫하고 나도 모르게 외쳤다. 참으로 인간중의 인간, 위인중의 위인을 뵙는 순간만은 열정이 서울천지를 가득 메운다. 그래서 위대한 민족의 영수를 모시고 사는 오늘의 이 자긍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6.15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해가는 길에 적으나마 나의 힘과 정열을 바쳐가리라.≫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오 일 :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각계층 민중의 뜨거운 흠모에 대해 말하려면 끝이 없겠는데요. 부산에 사는 한 대학교수의 말을 ***전하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자기의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이 나오게 됨으로써 우리 민족의 통일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 바뀌게 되었다. 남북공동선언은 **김정일**장군님께서 시종일관 견지해오신 자주적인 민족단합노선, 조국통일노선의 빛나는 결실이다. 그분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민족애의 소산이라고 생각한다. **김정일**장군께서 가르치신 대로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외세의 지배와 간섭의 역사를 끝장내고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통일하여 융성번영하는 자주민족으로써의 존엄과 영예를 떨쳐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정원주 : 참으로 우리 민족과 세계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위인상에 완전히 매혹되고 경탄했습니다. 평양을 다녀온 수행원들은 하나같이 장군님의 위대한 풍모에 감동을 금치 못해하면서 역사적인 2박 3일간의 평양체류일을 꿈만같았던 55시간이였다고 토로했습니다. 건강하시고 거룩한 모습, ****결단성있는 **,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옹력, 활달한 걸음과 장내를 쩡쩡 울리는 우렁우렁한 음성, 좌중을 단번에 휘여잡는 비범한 예지와 한없이 소탈하시고 인자하신 덕망, 이 세상 어느 정치가도 따를수 없는 **김정일**장군님의 위인상은 이남 민중들의 심장을 확 거머쥐고 있고 세계를 경모의 정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은 정치지도력이 뛰어나신 분, 민족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 **이 **하시고 **이 단호하신 분,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은 매혹적인 분, 도량이 크고 소탈하신 분. 이 땅의 각계층 민중들속에서 울려나온 이런 경모와 칭송의 목소리는 장군님의 위인상에 끝없이 매혹된 이남 민중의 심장의 외침이라 하겠습니다.

사회자 :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영도와 크나큰 노고에 의하여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민족자주통일의 새역사가 열리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후 남과 북사이에는 일찍이 있어본적이 없는 새로운 국면이 열리고 조국통일의 길에서는 사변적인 성과들이 이룩되었습니다. 오늘 안팎의 반통일세력의 방해책동때문에 민족자주통일의 앞길에 난관과 장애가 조성되고 있지만 우리 민족은 조국통일의 전도에 대해 낙관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를 모시고 있기에 우리 민족의 힘으로 반드시 조국통일을 실현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과 의지가 온 겨레의 가슴마다에 차넘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가슴마다에 통일의 신념과 의지를 심어주시고 민족자주통일의 새역사를 펼쳐주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위대한 업적은 민족사에 영원불멸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얘기 감사합니다.



특집

들끓는 민심, 반미온도 100°C

더욱 고조된 부시방한반대투쟁

구국의 소리, 주체91(2002)년 21일~22일



전쟁미치광이인 부시를 반대하는 각계층 민중의 투쟁이 그의 한국행각을 계기로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그에 관해서 윤정원씨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윤정원 : 안녕하세요.
사회자 : 우리 민중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대통령 부시가 끝내 방한했었는데요. 부시의 방한을 전후로 이 땅에서 부시방한반대투쟁은 더더욱 고조되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해 얘기좀 나눴으면 하는데요.
윤정원 : 부시가 방한하는 첫날인 지난 19일 서울 도심에서는 부시방한을 반대하는 집회가 전날에 이어서 계속됐습니다.
소파개정국민행동 등 4개 단체는 이날 오후 성남공항 정문앞에서 부시방한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철회 및 한반도전쟁위협중단 그리고 에프15기 등 전쟁무기강매중단 등을 촉구했습니다. 그런가하면 사회당은 이날 서울 중구4동 조흥은행앞에서 에프15전투기강매와 부시방한반대결의대회를 가졌고 양민학살진상규명전민족특별조사회 회원 100여명도 이날 오후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학살진상규명대회를 갖고 한미정상회담에서 노근리를 비롯한 한국전 당시 양민학살문제를 의제로 다룰 것을 주장했습니다.
사회자 : 부시방한반대투쟁은 대학생들과 종교인들속에서도 드세차게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윤정원 : 그렇습니다. 지난 19일 오전 서울대 정문위에는 부시의 방한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대형 플랭카드가 내걸렸는데요. 서울대총학생회가 제작해 부착한 이 플랭카드는 한 변의 길이가 4.5미터인 정삼각형으로 ㅈ읏자를 형상화한 15미터높이의 정문꼭대기에 내걸렸어요. 플랭카드에는 찢어진 성조기그림과 함께 ≪전쟁반대≫, ≪부시방한저지≫라는 구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서울 기독교청년회는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입장을 발표하고 부시에게 북미간 합의준수와 북미관계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기독교청년회는 부시대통령은 대테러전쟁의 세계전략을 북미관계에도 적용시키려는 북압박구상이 남북관계진전과 남북공동선언이행을 어렵게 한다는 걸 직시해야한다면서 94년 북미기본합의서와 2000년 북미공동커뮤니케의 준수를 약속하고 신뢰할만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 종교계도 같은날 각각 대한성공회앞과 조계사내에서 부시대북강경정책규탄기독인대회와 한반도평화실현과 전쟁반대를 위한 불교인대회를 가졌습니다.
사회자 : 부시방한반대투쟁은 19일에 이어 20일에도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윤정원 : 그랬습니다. 부시방한 이틀째인 20일에도 서울 곳곳에서 부시방한반대집회가 연이어 진행이 됐어요. 전국연합과 한총련 등 600여개단체 2000여명은 이날 오후 서울 종묘공원에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어요. 이에 앞서 오후 1시에는 서울대학교 마로니에공원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원 2000여명이 모여 부시방한반대를 주장하는 민중대회를 가졌습니다.
그런가하면 재야단체회원 30여명은 서울 무교동 미국 보잉사 광고간판에 전쟁반대 등이 적힌 현수막을 걸고 부시방한반대투쟁을 벌였어요.
또 이날 한미행정협정개정국민행동을 비롯한 시민단체회원 100여명은 청와대입구에서 부시의 행각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는데요. 그들은 미국이 저들의 무기강매를 위해 대북강경정책을 일삼고 있다면서 부시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사회자 : 이같은 부시방한반대투쟁은 동족간의 전쟁과 주한미군영구주둔을 반대하고 부시행정부의 한반도영구분열, 반통일책동을 반대하는 우리 민중의 강력한 항거의 표출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민중의 반미투쟁은 앞으로 더욱 고조, 확산될겁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윤정원 : 감사합니다.

한총련 테러규정 용납될 수 없다

구국의 소리, 주체91(2002)년 2월 25일~26일



미국의 오만성과 횡포가 극도에 이르고 있다.

얼마전 주한미대사관은 지난 18일에 발생한 주한미상공회의소점거사건을 테러사건으로 보고 이에 연관된 한총련 학생들을 테러사범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한다.

이를 두고 지금 우리 청년학생들과 전 국민은 커다란 민족적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지난 반세기이상 우리 국민의 눈에 비쳐진 미국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이였던가.

해방자의 탈을 쓰고 이 땅을 강점한 첫날부터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은 그대로 침략과 약탈, 파괴와 살육 그것이였다. 한반도를 동강내고 우리 민족에게 6.25의 참극을 강요한 것도, 자유와 민주를 요구하여 분기했던 광주를 피의 도시로 만든 것도 미국이였다. 그리고 민족문화, 민족전통 등 우리의 우수한 모든 것을 깡그리 밟아버리고 패륜과 패덕의 미국식 생활양

식으로 사람과 사회를 오염시킨 것도 미국이였다. 길가는 사람을 군용차로 깔아 죽이고 나무하는 사람을 목표물로 삼아 총으로 쏴죽이고 처녀와 유부녀, 노인 할 것 없이 닥치는대로 겁탈하는 테러와 살인의 왕초도 다름아닌 양키침략자들이였다.

어찌 이뿐이겠는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 발표되자마자 주한미군영구주둔과 상호주의, 검증론을 떠들며 우리 민족의 통일열기에 찬물을 끼얹은 통일의 주되는 걸림돌도 미국이였다. 그것도 성차지않아 9.11테러를 구실로 무력증강책동에 열을 올리고 악의 축 발언으로 새해 벽두부터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을 몰아오고 있는 것도 바로 미국이다.

정녕 우리 민중의 눈에 비쳐진 미국의 모습은 세상에 둘도 없는 악마의 모습이며 미국이라는 이름은 듣기만해도 치가 떨리는 악의 대명사인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학생들과 각계 민중은 미국을 침략자, 약탈자, 테러와 살인의 왕초로 규정하고 반미를 가슴속에 응축해왔고 그것은 드디어 부쉬의 방한을 계기로 폭발했다.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노동자, 농민, 지식인, 종교인 등 온 국민이 부쉬방한반대 투쟁에 나섰고 심지어 정치권에서까지 이 투쟁에 합세해나섰다.

미국대사관과 주한미군기지, 주한미상공회의소, 국회와 청와대 등 이 땅의 이르는 곳마다에서는 부쉬방한반대와 대북강경정책철회, 무기강매반대, 양민학살진상규명, 주한미군철수, 침략전쟁반대를 요구하는 집회와 시위들이 연일 벌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한총련학생들이 단행한 주한미상공회의소점거농성은 우리 백만 청년학생들의 불굴의 투쟁기개와 식민노예의 운명에서 벗어나 자주국민으로 살려는 각계 민중의 반미의지를 시위한 것으로써 지극히 의롭고 정당한 투쟁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총련 학생들의 주한미상공회의소점거농성을 테러사건으로 몰아붙이면서 관련자들을 테러사범으로 규정하려는 것은 이 사건을 구실로 반미투쟁의 선봉장인 한총련을 테러단체로 매도해서 원천적으로 말살하며 나아가서는 우리 국민의 반미투쟁기세를 꺽어보려는데 있다. 정말 치졸하고 생억지로 일관된 미국식 테러규정이라 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경찰당국이 미국이 요구한 관련 학생들의 인적사항 통보강요에 굴복하여 협조하려 하는데 있다. 이것은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한총련을 말살하려던 경찰당국이 이제는 미국식테러규정에 힘을 얻어 저들의 목적을 실현해보자는 사대매국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경찰당국이 제아무리 한총련에 테러의 감투를 씌워 말살하려고 해도 어림도 없다. 오히려 청년학생들의 반미투쟁은 더욱 고조될 것이며 불패의 애국대오 한총련의 백만 청년학생들은 자주민주통일의 선봉장으로 더욱 우뚝 서있을 것이다.

미국은 우리 청년학생들과 각계 민중속에 끓고 있는 반미감정을 똑바로 보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국민은 미국이 제마음대로 주무르는 식민지노예가 아니며 이 땅도 역시 양키들이 제마음대로 활보하던 고요한 뒷동산이 아니다.

미국은 한총련을 테러단체로 몰아붙이는 것과 같은 더러운 폭거에 매어달릴 것이 아니라 청년학생들과 국민의 요구대로 대북강경정책을 철회하고 주한미군을 당장 철수시키며 양민학살만행을 비롯해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온갖 죄행에 대해 당장 사죄하고 보상해야 한다.

당국은 미국의 한총련말살책동에 맞장구를 치는 반민족적 행위를 당장 중지하고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규정과 국가보안법을 철회하여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청년학생들과 각계 민중의 더욱 큰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방금 들으신 것이 한총련소속 대학생 김동수씨의 글 ≪한총련에 대한 미국식 테러규정은 용납될수 없다≫였는데요. 정말 들을수록 양키침략자들에 치솟는 분노를 금할수 없는데요. 9.11테러를 구실로 저들의 마음에 들지않으면 무턱대고 테러단체나 테러지원국이라는 딱지를 붙여 반테러전쟁을 감행하다 못해 이제는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적 자주권, 조국통일을 위한 의로운 투쟁을 하던 한총련까지 테러단체로 몰아가려는 미국의 파렴치한 행위를 어찌 그냥 보고만 있을수 있겠습니까. 우리 백만 청년학생들은 마땅히 더욱 과감한 반미투쟁으로 한총련에 대한 미국의 말살행위를 강하게 짓부셔야 할 겁니다.

부시, 가장 환영받지 못한 방한

환영 플래카드나 성조기 찾아보기 힘들어

2박3일의 일정을 마치고 21일 한국을 떠난 조지 W. 부시대통령의 방한은 역대 미국대통령의 방한 가운데 가장 ≪환영≫받지 못한 방한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아니였냐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로, 국내에서 부시를 받는 분위기는 썰렁하다 못해 냉랭할 정도였다.

성조기와 플래카드 게양 금지

부시의 방한 기간중 서울 거리에서는 대단히 이례적으로 미국 성조기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과거 미국대통령이 방한할 때에는 길거리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내걸었었다. 이는 미국대통령이 올 때뿐 아니라 아프리카 같은 무명국가의 대통령이 올 때도 빠짐없이 행했던 환영 레파토리중 하나였다.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서울시청이나 일부 관공서 건물을 제외한 어느 곳에서도 태극기와 성조기를 목격할 수 없었다. 성조기를 길거리에 내걸 경우 부시 방한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이를 손상시킬 위험이 크다는 정부 판단에 따라 이를 게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인이 어디에 있었든간에, 부시대통령은 한국을 찾은 역대 미국 대통령은 물론 전세계 수뇌부들 가운데 가장 초라한 대접을 받은 셈이 됐다.

성조기뿐 아니다. 그 흔한 환영 플래카드조차 목격되지 않았다. 과거에는 미 통령이 방한할 경우 서울시내 주요건물과 관공서에는 이를 환영하는 대형 플래카드가 내걸리곤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어디서도 그런 플래카드를 목격할 수 없었다.

기업들 입장에서 볼 때, 여론조사 결과 전국민의 70%가 부시의 ≪악의 축≫ 발언을 성토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국민감정에 반하는 플래카드를 내거는 도박을 할 필요를 못 느꼈기 때문일 것으로 해석된다.

부시 숙소 근처, 철통 방어

워낙 반(反)부시 분위기가 강하다 보니, 당연히 길거리 환영인파도 찾아볼 수 없었다.

과거에는 미대통령 방한때 양손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환영인파가 동원되곤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내의 반부시 분위기가 워낙 강하다보니 가두행렬 등 일체의 공개행사가 마련되지 않았다. 기껏한 것이 철통같은 보안 속에 청와대 구내에서 어린이들이 동원된 환영행사뿐이었다.

부시가 머문 미국대사관 관저 주위분위기도 살벌했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미대통령의 숙소마저 일체 공개하지 않았다. ≪보안상 이유≫에서였다. 부시 대통령이 머물렀던 숙소는 서울 덕수궁 뒤편에 있는 미국대사관저였다.

이곳으로 통하는 길은 부시 대통령이 방한하기 이전부터 개미 한 마리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철통같이 봉쇄됐고, 21일 아침 일찌기 부시 대통령이 오산기지로 이동한 후에야 비로소 봉쇄가 해제됐다.

미 대사관, 여론조사 결과에 큰 충격

이같이 부시 대통령 방한이 유례없이 썰렁한 부위기 속에서 진행된 이유중 하나는 미 대사관이 공개행사를 할 경우 보안에 자신을 갖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 대사관은 부시의 ≪악의 축≫ 발언에 대해 한국민 70%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는 여론조사에 내심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방한에 앞서 강남 코엑스의 주한미상공회의소(AMCHAM) 사무실이 점거되는가 하면, 여의도의 보잉사 간판에 반미 플래카드가 걸리는 등 시위강도가 남다른 대목에 크게 긴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방한기간중 일정을 보안 중심으로 짰고, 그 결과 역대대통령 방한과 비교할 때 가장 초라한 방한이 될 수밖에 없었다.

반면에 부시는 방한에 앞서 일본에서는 메이지신궁에 고이즈미 총리와 함께 참배해 일반인들과 만났는가 하면 국회연설을 했고, 중국 방문기간중에는 내년초 중국주석이 되는 후진타오 부총리와 함께 후진타오의 모교인 칭화대를 방문하기로 하는 등 공개행사 일정을 마련한 상태다.

과연 부시가 이처럼 차별적인 한국에서의 반응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향후 주목할 대목이다.

부시가 한국민들의 생각을 정확히 읽는 기회가 됐으면 더없이 바람직하겠으나, 20일 휴전선에 가서 부시가 ≪북한은 악으로 불릴 만하다≫는 발언을 하는 등 여전히 종전의 인식체계를 드러낸 대목을 본다면 그 어떤 희망적 기대를 갖기란 힘들어보인다.



박태견 기자 2002-0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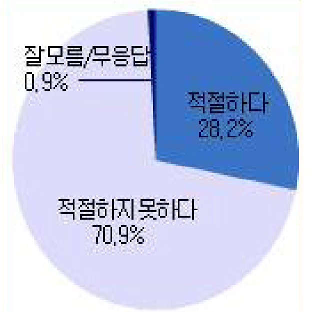
≪악의 축≫에서 솔트레이크까지, 민심이 끓는다

부시의 ≪악의 축≫ 발언으로 불붙기 시작한 반미여론이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 부당판정 문제를 계기로 들끓고 있다. 6.15공동선언 이후 대북적대의식이 해체되기 시작하면서 현저하게 높아진 반미의식이 평화와 통일을 위협하는 부시의 발언에 급속도로 고양되기 시작하였다. 부시의 방한을 전후하여 치솟아 오르던 반미감정은 민족적 자존심을 무참하게 짓밟은 올림픽 부당판정 문제까지 터지면서 걷잡을 수 없이 분출되고 있는 것이다. ≪악의 축≫에서 솔트레이크까지 들끓는 민심을 쫓아가본다.

≪악의 축≫ 부적절했다 73%, 무기강매용이다 70%

미국 부시 행정부의 대북강경정책에 대다수 이남 민중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음은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2001년 3월 조사의 ≪미국이 남북통일을 지지하고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서는 70%에 육박하는 응답자가 ≪미국이 남북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최근 2월 조사에서는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이북에 대해 취하고 있는 강경한 정책노선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60%에 달했다.

최근 부시의 ≪악의 축≫ 발언은 이남 민중들에게 매우 강한 반감을 샀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악의 축≫ 발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3%가 ≪부적절 했다≫고 응답했다. 문화일보가 SBS와 공동으로 2월15-16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시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과 관련 응답자 가운데 20.6%가 ≪이북의 변화를 촉구하는 적절한 발언이다≫라고 답한 반면 73.1%가 ≪남북관계 및 동북아 정세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부적절한 발언이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강경발언의 배경과 관련하여 문화일보와 SBS가 공동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의 69.8%가 ≪부시 행정부의 강경발언이 무기구매 압박용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였다.



부시의 <<악의 축>> 발언, 적절한가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반미여론의 공감대가 매우 폭넓은 것임으로 보여주며,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 진전을 가로막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강한 반감을 모여주는 것이다.

≪부시방한반대≫ 누구나 한 목소리

부시의 방한을 앞두고 노동자 농민 학생 시민사회단체가 한 목소리로 부시방한을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은 2월 21일 부시 방한 결산 성명에서 ≪부시가 이 땅을 밟기 전부터 각계의 시국선언이 빗발쳤으며 부시가 한국에 머문 2박 3일 동안 강력한 투쟁이 전개되었다.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에서부터 전국의 수백 개에 달하는 시민단체, 종교인, 지식인은 물론, 여야 국회의원들까지 부시를 규탄하는 투쟁에 떨쳐나섰다. 온 국민이 전개한 부시방한투쟁은 미국의 패권정책과 부시의 망언에 일대 타격을 주었으며 미국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데 충분하였다. 우리 국민들의 영웅적인 투쟁 소식은 전 세계언론을 통해 전해짐으로써 전 세계 평화 애호인들을 크게 고무하였으며 우리 민족의 존엄을 크게 떨치었다.≫라고 평가하였다.

이번 부시방한반대투쟁은 각계의 반미의식이 얼마나 하나로 모아지고 있는지를 보여준 계기가 되었다. 통일뉴스가 마련한 부시방한결산 좌담회에서 문정현 신부는 ≪본격적인 반미운동의 초기에 시민단체 127개를 모으는데 의식이 상당히 달랐습니다. 두 쪽이었어요. 일부는 ≪난 소파(SOFA)는 해, 반미는 안해≫ 이랬거든요, 근데 또 다른 일부는 ≪그 무슨 소파야, 미군철수지≫, 이게 사실 난감했거든요. 그런데 어느결에 자연스럽게 미군철수를 주장하고, 소파만 하던 사람들도 지금은 소파를 잊어버린 상태예요. 연예인들까지 ≪소파가 스크린쿼터하고 똑같애≫하며 나중에 가입했습니다.≫ 평가했다. 전국연합 오종렬 의장은 ≪요구도 이제는 행정협정 개정에서 미국 국가원수의 방한을 반대하고 미국의 침략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대하고 투쟁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또한 주목되는 점은 민족민주운동과 시민운동이 부시방한반대투쟁에서 공동행보를 취한 점이다. 좌담회에서 오종렬 의장은 ≪20일날 우리 시민사회단체가 부시방한 집회를 같이 했잖아요.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물론 한계도 있다고 보지만 저는 그 방향보다는 굉장히 진취되어 왔다고 봅니다. 민족민주운동의 행보와 뿌리, 시민운동의 행보와 뿌리는 연결되어야 하고 사실상 연결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독자적인 행보나 배타적인 관점으로 나갔을 때는 중대한 해악을 끼치고 오류에 빠지는데 우리는 부시 덕분에 급진전해서 시민운동과 민족민주운동에서 부분적이나마 결합선이 가까워졌다는 점에서 거대한 조직적 성과다 이렇게 봅니다.≫라며 이 점을 높이 평가했다.



분노 폭발, ≪솔트레이크에 소금(salt)을 뿌리고 싶다≫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에서 이남의 김동성 선수에게 부당판정을 내리고 미국의 안톤 오노에게 금메달을 준 사건은 이남 민중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먼저 인터넷 공간에서 분노가 터져나왔다. 김동성 선수의 금메달 박탈 소식이 알려진 직후 각 인터넷사이트들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90%이상의 네티즌들이 거침없이 강렬한 반미감정을 드러냈다. 김동성의 실격판정으로 금메달을 차지한 미국의 안톤 오노의 홈페이지가 다운되고 오노 선수에게는 인터넷으로 협박 메시지가 수천통 보내졌다. 네티즌들은 미국의 ≪스포츠 테러≫에 대한 전면 보복을 해야 한다며 미국 올림픽위원회(USOC)의 인터넷 서버를 9시간 동안 마비시켰다. ≪미국은 추악한 스포츠맨협회≫라는 문구를 내세운 ≪더러운 미국≫이라는 반미사이트도 등장했다. 분쇄기 톱니바퀴 사이에서 부시의 머리가 뭉개지는 그림과 함께 ≪부시는 바보같은 놈≫이라는 메시지를 내보내는 사이트도 등장했다.

≪이번만은 절대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미국이 뭐 그리 잘나서 한민족의 얼을 이렇게 망쳐놓는 것입니까≫, ≪민족의 자존심이 훼손당한 대사건이다.≫, ≪미국이 그러고도 선진국인지 의문스럽다≫, ≪이번 사건은 빈 라덴의 9·11테러보다 더한 폭거 , 한국 선수단을 즉각 철수시켜야 한다≫, ≪월드컵에서 16강에 못 올라가도 좋으니 반드시 미국팀만은 이기자≫는 등의 네티즌 의견들이 게시판을 채웠다.

학생운동가들 속에서도 성명서를 내고 인터넷 시위를 조직하는 등 대중의 반미열기를 조직하려는 움직임이 나왔다. 한총련 임시의장 결의자인 경북대학교 총학생회장은 ≪≪반칙왕≫ 미국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이번 금메달 강탈 사태는 그 이면에 놓인 한미관계의 불편부당한 현실을 드러내며 다시 한번 나라의 주권과 민족의 자주가 미국이라는 제국주의국가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번 사태로 일반 국민과 젊은 네티즌들 안에서 미국을 비판하며 무기강매를 거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옳은 일이다. 스포츠뿐만 아니라 정치외교, 군사, 문화적으로 친미종속을 극복하고 반미자주와 민족통일로 우리 민족의 세기적 불행을 부강번영으로 뒤바꿀 것을 호소하고 강조한다.≫고 밝혔다. 경북대 총학생회는 사이버 시위를 조직하기도 하였다. 경희대 총학생회(총학생회장, 김선근)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작금의 문제는 김동성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전민족적 문제≫라며 ≪심판의 오심이 문제가 아니라 미제국주의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반미여성회(준)는 ≪빼앗긴 금메달, 오만한 부시≫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부시 미국대통령의 오만방자한 태도와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박탈 사건으로 우리 국민의 미국에 대한 분노는 끓어 넘치고 있다. 김동성 선수의 빼앗긴 금메달은 부시 미국대통령에게 짓밟힌 민족의 자존심이다. 반미여성회(준)은 금메달 박탈 사건을 규탄하고 부시 미국대통령의 한반도 전쟁고조 정책을 반대한다. 민족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온 국민은 미국반대, 전쟁반대의 목소리를 드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최창준 민주노동당 성동지구당 위원장은 미국 솔트레이크시티 동계 올림픽 쇼트트랙에서 행해진 심판의 불공정 판정에 항의, 24일 미 대사관 앞에서 미국의 한국민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F-15 전투기 구입 반대, 여론 빗발

국방부를 비롯한 군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차세대 전투기종 선정과정에서 미국의 F-15 전투기를 절대 구매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네티즌들은 ≪미국 상품 불매운동을 해야 할 판에 미국의 무기를 구입하는 것은 국민정서를 거스르는 행위이다≫, ≪왜 언제까지 그들에게 굴복해야 하는건지요. 똥을 주면 그대로 먹어야 했던 시절은 우리가 단절해야합니다.≫, ≪미국의 만행을 보고 미국 전투기를 살 수가 없습니다≫ 등의 주장을 게시판에 올렸다.

반미열기 미국상품 불매운동으로 번져

네티즌들의 반미열기는 미국상품 불매운동으로 번지고 있다. 인터넷 포탈사이트인 ≪다음≫에는 26일 오전 현재 미국제품 불매운동 사이트만 1백20개나 개설되었다. 특히 회원에는 고등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사이트에는 불매운동 대상으로 음식점은 맥도날드, 커피전문점은 스타벅스, 음료는 코카콜라, 화장품은 바비브라운, 의상은 폴로, 가방은 레스포색, 생활용품은 암웨이, 전자제품을 필립스, 문구류는 3M, 애견용품은 퓨리나, 기타는 월마트에 이르기까지 1백여개 제품 및 기업명이 나열돼 있다.

불매운동에 동참하는 네티즌의 호응도 뜨겁다. ≪저는 콜라와 패스트푸드 안 먹으면 굶어죽을 인간이지만 앞으로는 절대 먹지 않겠다≫거나 ≪나이키가 오노 후원을 그만둘 때까지 불매운동을 벌이자≫ ≪월드컵 유니폼부터 국산으로 바꾸자≫는 주장이 속속 올라온다. 여성사이트 게시판에서는 ≪나이키 운동화 싹 버리고 미국 보험회사에 든 보험을 해약했다. 미제 양념 팍팍 뿌린 감자칩도 안녕!≫이라는 주부의 글이 추천받고 있다. 영화잡지 씨네21의 사이트 자유게시판에서 한 네티즌은 ≪시시각각 틈만 나면 스크린 쿼터제를 없애라는 식의 협박, 우리나라의 문화적 권리마저 빼앗으려는 미국을 보면 화가 난다≫며 ≪불매운동이 일시적인 분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제품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제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묘안도 속출한다. 미국 브랜드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에게는 ≪야, 오노가 ≪투나잇쇼≫에 네 것하고 똑같은 옷 입고 나왔더라≫, 코카콜라를 집어드는 친구에게는 ≪오노가 코카콜라 무지 좋아한대≫라고 말하며, 신작 할리우드 영화 리뷰에는 ≪오노 같은 사람이라면 정말 추천할 영화≫라고 소개하자는 것. 미국 프랜차이즈 업체 유리창에 오노 사진을 붙이자거나 ≪당신이 먹는 햄버거는 김동성 선수와 대한민국 국민의 피눈물입니다≫라고 쓴 전단지와 피켓을 만들자는 의견도 있다.

미국제품 불매운동 사이트가 경쟁적으로 개설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3일부터의 일로, 김동성 선수의 금메달 박탈로 가뜩이나 국민감정이 험악한 가운데 미국 NBC TV가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사실이 국내에 알려지면서 본격적으로 불붙기 시작했다.



미대사관, 미국계 기업들 긴장

주한 미국대사관측과 미국계 기업들은 부시 미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에 이어 쇼트트랙에서 미국 선수에게 금메달을 ≪빼앗긴≫ 일로 한국 국민의 반미감정이 높아지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다.

F-15 전투기 제작사인 보잉의 한국지사 홍보담당 박성순 상무는 ≫반미 여론이 계속 높아져 영업활동이 상당히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민중의 반미열기 반미운동 대중화로 발전시켜야

부시의 ≪악의 축≫ 발언 이후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 부정판정 사건을 거치면서 이남 민중들의 반미열기는 전에 없던 수준으로 끓어오르고 있다. 특히 반미감정의 공감대가 특정 계층을 넘어서 ≪전국민적≫인 것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게다가 젊은 층과 청소년들 사이에서 반미감정이 폭발적이라는 점도 크게 주목된다. 들끓어오르는 반미열기가 반미자주화의 든든한 역량으로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인가. 민족민주운동이 답해야 한다.

윤혜진 기자 2002년 2월 28일
6.15주간 편집부



조선일보 너흰 뭐야?

들끓어오르는 반미감정을 타고 조선일보의 친미적 행태가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다.

조선일보는 김동성 금메달 박탈 사실이 알려진 21일 저녁 내보낸 22일자 가판의 2면 ≪조선만평≫에서 ≪지고도 이겼다고 떼쓰는 X이나, 이기고도 졌다고 국기 팽개치는 X이나≫라며 김동성 선수에 대한 비난 논조의 만평을 내보냈다. 이 만평이 나간 뒤 비난여론이 쇄도했다. 이로 인해 조선일보 게시판이 네티즌들의 항의글로 도배됐고, 심지어 조선일보 스포츠 게시판이 다운됐다. 결국 조선일보는 22일 아침 가정에 배달된 판에서 만평을 교체했다.

그러나 네티즌들의 분노는 그것으로 식지 않았다. 조선일보 독자마당에 글을 올린 이석림씨는 ≪태극기를 던진것에 초점을 두지 말고 불쌍한 우리 민족에 대한 동정심부터 배우시오≫라고 만평을 그린 신경무씨를 비난했다. 안티조선 사이트 ≪우리모두≫는 24일부터 조선일보의 사과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 이틀만에 5백여명에 이르는 서명을 받았다. 서명운동에 참여한 원호연씨는 ≪조선일보는 어느나라 신문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억울한 자국 선수를 위로해 주기는 커녕 오히려 비난하는 조선일보는 그래도 한국의 신문사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우리나라 신문이 아니였다≫라며 조선일보를 비난했다.

조선일보는 역시 반성을 모르는 신문이었다. 23일자 사설에서 ≪태극기를 내던진 김동성에게 매너를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해 또 다시 비판의 도마에 오른 것. 또 ≪뒤틀린 애국誤審(오심)≫이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사설은 ≪(이번 사태로 인해) 국민들은 분노했고 교포들은 억울함을 누르지 못했다. 이것은 국수주의적 애국심과는 다르며 반미감정만도 아니다≫라며 애써 반미감정의 존재를 부인하려고 하였다. 또한 사설은 ≪미국은 사태를 호도할 것이 아니라, 원칙과 절차를 중시해 올림픽정신에 먹칠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 역시 네티즌들의 분노를 십분 이해하지만 심한 욕설이나 ≪반미(反美)≫는 자제해야 할 것이다≫라며 미국에게 ≪충정어린≫ 충고와 네티즌에게 주제넘는 훈계를 하기도 하였다.

언론계에서는 조선일보의 이같은 ≪갈팡질팡≫을 보고 조선일보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극보수세력들이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범국민적 반미감정에 얼마나 당혹스러워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 증거로 받아들이고 있다.

광범위한 반미감정 확산은 앞으로 대미관계 및 정치일정 등에도 중차대한 변수로 등장할 전망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부시발언으로 앞으로 대선과정에 불가피하게 한반도 정책이 주요쟁점중 하나로 부각되게 됐으며 그 결과 ≪전쟁≫과 ≪평화≫로 양분되는 정책적 대립전선이 구축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럴 경우 부시정부와 대북정책의 맥을 같이 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이회창 총재측은 적잖이 고전을 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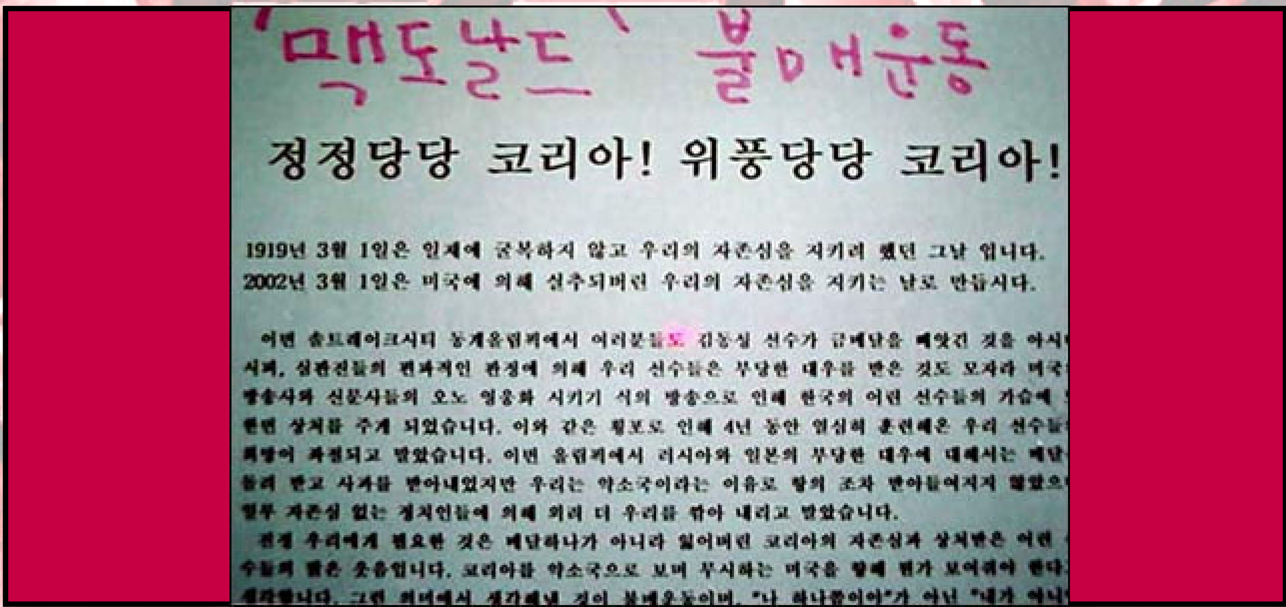




김영승 기자 2002년 2월 28일
6.15주간 편집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의 3.1절 격문

≪미국상품 불매로 빼앗긴 자존심 찾자≫
분당 야탑동....오프라인으로 확산되는 네티즌 분노



온라인에서의 분노가 오프라인까지 넘쳐 흐르고 있다.

김동성 선수의 금메달 박탈 사건에 분노하는 네티즌들에 의해 인터넷상에서 펼쳐지고 있는 미국제품 불매운동이 오프라인으로 확산되고 있다.

3.1절 독립기념일을 이틀 앞둔 2월 27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현대 장미마을 아파트의 일부 엘리베이터 안에는 A4용지 1장으로된 ≪제2의 3.1운동≫ 격문이 붙여졌다. ≪정정당당 코리아, 위풍당당 코리아, 맥도날드 불매운동≫이라는 제목의 이 격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1919년 3월 1일은 일제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고자했던 그날입니다. 2002년 3월1일은 미국에 의해 실추돼버린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는 날로 만듭시다.≫

이 격문은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당한 상처와 희망의 좌절을 되새기고 있다.

≪이번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에서 여러분도 김동성 선수가 금메달을 빼앗긴 것을 아시다시피, 심판들의 편파적인 판정에 의해 우리 선수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도 모자라 미국의 방송사와 신문사들은 우리의 가슴에 또 한번의 상처를 주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은 횡포로 인해 4년동안 열심히 훈련해온 우리 선수들의 희망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격문은 이어 지금은 ≪미국에게 뭔가 보여줘야 할 때≫라고 불매운동 동참을 호소한다.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메달 하나가 아니라 잃어버린 코리아의 자존심과 상처받은 어린 선수들의 밝은 웃음입니다. 코리아를 약소국으로 보며 무시하는 미국을 향해 뭔가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낸 것이 불매운동이며 ≪나 하나쯤이야≫가 아닌 ≪내가 아니면 안돼≫라는 생각으로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코리아의 힘을 보여줄 때입니다. 천천히 달아올라 오랫동안 그 열을 간직하는 뚝배기와 같은 근성을 우리 모두 실천해봅시다.≫

이 격문은 하단에 ≫불매운동 목록 상품≫으로 9개 분야 63개를 나열했다.

이들 중에는 음식점 13개(맥도날드, 버거킹, 파파이스, KFC 등), 커피전문점 3개 (스타박스 등), 음료 7개(코카콜라 등), 기타식음료 12개 (켈로그 등), 생활용품 6개(암웨이 등), 화장품 11개(바비 브라운 등), 의류 12개(폴로 등), 가방 3개(레스포쌕 등), 기타 1개(월마트) 등이다.

이 격문은 맨 마지막에 ≪당신이 한국인임이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 사랑합니다≫라고 적고 ≪정정당당 Corea인은 이 벽보를 낙서, 훼손하지 않습니다≫라고 덧붙였다.

27일 낮에 붙여진 것으로 보이는 장미마을 아파트 801, 802, 803동의 엘리베이터 6곳에 붙여진 격문에는 28일 오전 10시 현재까지 어떤 낙서도 없었고 훼손되지 않은 상태였다.

802동에 사는 이종숙 씨(35)는 ≪어제(27일) 저녁 퇴근하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글을 봤다≫면서 ≪인터넷에서 미국상품 불매운동을 하고 있다는 한 네티즌의 경험담을 본 적이 있는데, 내가 사는 아파트에서 이런 글을 보니 반갑고 동참해주고 싶은 생각이 난다≫고 말했다.

장미마을 아파트의 경비원 김아무개씨는 ≪이 격문을 누가 붙였는지 알수 없다≫고 말했다. 컴퓨터 글씨로 적힌 격문에는 작성 주체에 대한 표시가 전혀 없다. 이 경비원은 ≪스카치테이프로 붙인 것이 아니라 벽지 바르는 풀로 완전히 붙여놓았고 여러 동의 엘리베이터에 붙인 것으로 보아 마음먹고 조직적으로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격문은 인터넷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매운동을 잘 알고 있는 젊은 네티즌에 의해 쓰여진 것으로 보이나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을 버리자≫고 하면서 ≪뚝배기 같은 근성≫을 강조한 점이 눈길을



끈다. 격문이 붙여진 아파트 일대를 포함한 분당구 전체 주요 대로에는 28일 아침 일찍부터 성남시에 의해 3.1절을 기리기 위한 태극기가 걸려 있다. 이 격문이 이 아파트 이외에 분당지역의 다른 곳이나 다른 도시에 붙여져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편 다음 카페 등 유명 포털사이트에는 현재 100여 개가 넘는 미국제품 불매운동 동호회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오마이뉴스를 비롯해 주요 언론사 사이트 게시판 등에는 미국제품 불매 호소문이 계속 오르고 있다.

다음에 개설된 미국제품 불매운동 사이트 ≪사이버일지매≫에는 2월 28일 현재 5589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다. 이 사이트에는 ≪3.1 불매운동≫을 추진하겠다면서 네티즌들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있다.

≪우리 네티즌들이 한번 해봅시다. 정치니 경제니 그런 거 하는 사람들한테 맡기지 말고 우리가 여론을 형성합시다. 이미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는 우리 네티즌들의 역량을 확인했습니다. 네티즌들의 사이버시위가 결국엔 우리 언론들을 선도했고, 네티즌들의 움직임에 언론이 따라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번 3.1 불매운동은 온라인상의 네티즌들이 오프라인을 움직이는 중대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네티즌 한 사람 한 사람이 역사적으로 중대한 시점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모두가 ≪네티즌대표≫라는 생각으로 이번 일을 추진합시다.≫

이 사이트는 또 불매운동 대상인 미국상품들을 나열하고 ≪푯말 같은 걸 만들어 시내 미국제품회사(맥도날드 같은)에서 시위를 하는 것도 좋고 A4 전단지를 만들어 전봇대에 붙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줍시다≫라고 행동강령을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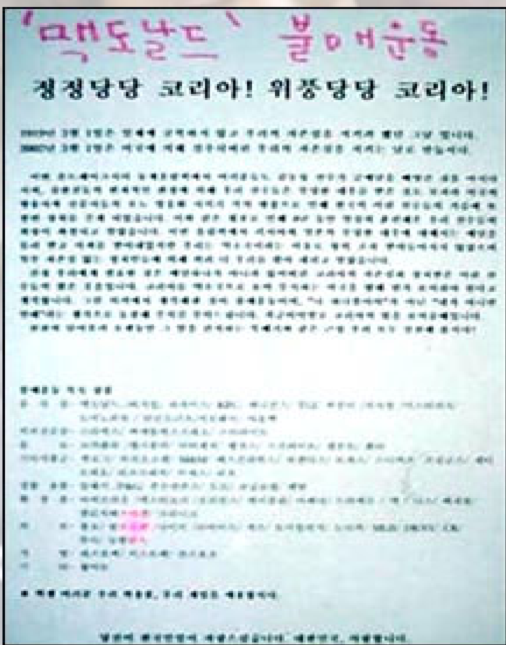
따라서 분당 야탑동의 아파트 단지에 붙여진 A4전단지 격문은 이러한 네티즌들의 운동과 맥을 같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격문이 붙어 있는 아파트로부터 약 6백여 미터 떨어져 있는 맥도날드 한 지점의 지배인은 ≪그런 격문이 나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으며 매상에도 전혀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그런가하면 불매운동 지역커뮤니티 사이트(http://coreanz.wo.to)의 네티즌들은 3월 1일 각 지역별로 오프라인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이 사이트의 운영자는 게시판을 통해 ≪서울경기지역 회원들은 3월 1일 낮 12시 서울역에 시위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까지 자연발생적으로 번지는 미국제품 불매운동이 어떻게 조직화될지, 실제로 이 운동이 어느 정도로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낼지, 그리고 이번의 ≪김동성사건≫이 한국인의 대미인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가 주목된다.

유정희 기자 yjh1967@freechal.com





네티즌, 이제 거리로 나서다

≪미국제품 불매운동≫
3 · 1절 맞아 서울 · 부산 등 전국서 거리시위계획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의 편파판정 시비를 계기로 온라인상에서 ≪반미시위≫를 벌이고 있는 네티즌들이 거리로 나선다.

그동안 사이버시위-관련사이트 다운시키기-오노선수 이메일 보내기-김동성선수 금메달 수여운동-각종 패러디 창작물 제작 배포-미국제품 불매운동을 벌여오던 네티즌들은 3 · 1절을 계기로 거리시위를 계획하고 대국민 홍보활동을 진행할 방침이다.

인터넷상에서만 이뤄지던 네티즌들의 ≪반미감정≫ 을 본격적인 행동전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는 시위 사이트들과 한국네티즌협회(http://www.18usa.ce.ro)는 3월 1일 서울역 12시, 부산은 태화쇼핑옆 맥도날드 앞에서 오전10시부터 청주에서는 오전 11시 시내중심가 철당간에서 각각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한국네티즌협회 명의의 홍보물에 의하면 ≪2002년 3월 1일은 제2의 대한민국 독립만세의 날이다≫며 ≪미국은 동맹국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행위를 해왔다. ≪악의 축≫발언으로 우리를 분노케 하고 올림픽정신까지 무시한 불공정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미국을 비판한 뒤 ≪민족의 자존심과 긍지를 높이세우기 위해 미국제품 불매운동에 나선다≫라고 밝혔다.

네티즌들의 이러한 거센 ≪반미시위≫에 대해 반미운동단체 관계자는 ≪이번 네티즌들의 ≪반미운동≫이 온라인상의 사이버시위만으로 그치지 않는 점과 일회성 감정폭발로 그치지 않고 계속이어지고 있는 점, 특히 미국제품 불매운동이라는 구체적 실천을 유도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때 그동안 재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펼쳐지던 ≪반미운동≫이 새로운 양상으로 펼쳐질 수 있을 것≫이라며 반미운동이 국민들의 생활운동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전망했다.

이준하 기자 2002년 2월 28일

3.1운동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민족자주 선언대회

7대 종단과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공동실천)는 3월 1일 오후 2시 종묘공원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민족자주 선언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동실천 관계자는 ≪부시의 한반도 평화 파괴 발언인 ≪악의 축≫ 발언이후 급속하게 전쟁위협이 다가오고 있고 이에 편승하여 군사대국화를 강화하고 있는 일본 등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며 ≪지금의 상황에서 평화를 사랑하고 민족자주를 원하는 모든 세력의 뜻을 모아 3 · 1 항일정신을 계승하여 미 · 일 전쟁획책을 막아내기 위한 선언대회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의 방한을 즈음하여 미국은 F-15K 등 군비증강, MD체제 편입, 스크린쿼터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본은 미국의 테러보복전쟁을 계기로 재무장화와 군사대국화 추진, 한일투자협정체결을 강요하고 있다.

이번 선언대회는 7대 종단 대표와 문화, 예술계대표의 연설, 2002 남북 새해맞이 추진위 금강산 행사 반전평화활동 보고, 조국과 청춘,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노래공연, 전현찬 의장(전국농민회 총연맹)의 선언문 낭독과 평화대행진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동실천 관계자는 ≪3 · 1항일운동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310명의 각계인사가 연망한 선언문 낭독하며 선언문을 배경으로 한 현수막에 선언 참가자들의 손싸인을 찍어 걸개그림으로 사용하고 행사 후 이 걸래그림을 행진용 플랭카드로 사용한다≫고 했다.

≪3 · 1절 83주년 기념에 즈음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310인 민족자주선언≫(민족자주선언문)은 ≪우리 민족의 역사는 말 그대로 평화와 자주를 위협하는 외세와의 투쟁의 역사였다≫고 선언하면서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한반도에 조성되고 있는 일체의 전쟁 음모와 책동을 반대하며 이를 분쇄할 것을 결연히 선언한다≫고 밝히고 있다.

민족자주선언문은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은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는 반드시 전쟁없는 한반도의 역사를 이루어 내고야 말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신용철 기자 redfaith@hanmail.net

2002/02/28

통렬한 풍자와 비판, 대중과 공감

≪기특한 과자≫에서 ≪Fuck킈 USA≫까지

칼날을 품은 웃음이 인터넷 공간에 퍼지고 있다. 미국의 패권주의와 오만에 대한 통렬한 풍자와 비판을 담은 ≪기특한 과자≫ ≪또라이 부시≫ ≪Fuck킈 USA≫가 인터넷을 통해 배포되고 있는 것. ≪전대협 진군가≫의 작곡가이기도 한 윤민석씨가 그 진원지이다.

≪백안관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부시 미국 대통령이 잠시 졸도했다고 오늘 백악관 의료진이 밝혔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백안관에서 소파에 앉아 내셔널 풋볼 플레이어 경기를 보며 과자를 먹다가≫라는 뉴스 멘트로 시작하는 ≪기특한 과자≫는 9.11 테러사건 이후 극심해진 부시 행정부의 패권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노래는 ≪과자의 테러는 배후가 어디냐 과자를 만든 나라는 이제 끝장이 났구나≫라고 부시의 아프칸 침공과 확전 기도를 꼬집고 있다.

≪부시야 부시야, 또라이 부시야, 아직도 헛소리, 그침이 없구나≫로 시작하는 ≪또라이 부시≫는 부시를 약소국의 피를 빨아 먹는 ≪드라큐라≫로, 배부른 ≪악마≫로 비유하고 있다. 노래는 이번에는 과자보다 더 무서운 ≪마늘≫을 맛보여 주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Fuck킈 USA≫는 ≪숏트랙 경기를 보았나 야비한 나라 Fucking U.S.A. 그렇게 금메달 따니까 좋으냐 더러운 나라 Fucking U.S.A≫라고 첫머리부터 미국의 오만함과 비열함을 야유하고 있다. 노래는 ≪우리가 식민지 나라의 노예인가 이제는 외치리라 미국 반대≫라며 가사의 수위를 대중의 눈높이에 맞추는 유연함도 보이고 있다. ≪북한엔 전쟁협박 남한엔 내정간섭 깡패의 나라 Fucking U.S.A.≫ ≪미국놈들 통일되면 두고 보자 당당한 나라 통일 한국≫라는 가사는 반미의 문제와 통일의 문제가 밀접히 연결되어 있음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다.

노래만큼이나 흥미롭고 참신한 것은 노래의 제작과 배포방식. ≪기특한 과자≫는 저녁 뉴스를 듣고 다음날 바로 제작되었고, ≪Fuck킈 USA≫는 부당판정 소식이 전해진 15시간만에 창작되는 순발력을 보였다. 이러한 제작 방식은 대중의 정서와 제때 호흡을 같이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처음부터 인터넷 공간을 통해 공개되고 배포되어 누구나 쉽고 빠르게 노래를 접할 수 있게 한 것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된다.

김영승 기자 2002년 2월 28일
6.15주간 편집부

≪인터뷰≫ 작곡가 윤민석씨

조국을 부시고 노는 부시에게 ≪기특한 과자≫를 선물로 드려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오후 백악관에서 TV 시청 중 과자를 먹다가 목에 걸리는 바람에 잠시 졸도했다가 회복됐던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또 지난달 말 부시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해 발언하는 일이 있었다. 작곡가 윤민석씨가 이 사건들을 담은 노래≪기특한 과자≫와 ≪또라이 부시≫를 인터넷으로 사람들에게 선보였다. 방배동, 작은 빌딩 지하에 위치한 작업실≪프로메테우스≫에서 ≪어서 와요≫라며 반기는 윤씨는 작은 키에 뿔테 안경을 낀 친숙한 인상으로 그저 아저씨가 돼버린 우리네 선배의 모습이다.

- 노래≪기특한 과자≫와 ≪또라이 부시≫에 대한 소개

≪기특한 과자≫는 저녁에 밥을 먹다가 뉴스를 듣고는 웃겨서 뒤로 넘어갈 뻔했다. 그래서 그저 그때 내가 느꼈던 것을 많이 풍자적으로 표현했다. 그 후에 미국의 발언을 듣고 기가 막혀서 ≪기특한 과자≫의 뒤를 잇는 성격으로 ≪또라이 부시≫가 만들어졌다. 이 노래에 바람이 있다면 ≪서동요≫나 고무줄 할 때 불리는 노래처럼 됐으면 좋겠다. 진정으로 서민들 속에 퍼져있는 그런 노래 말이다. 특징은 둘 다 미국의 민속음악인 컨트리 풍을 띈다는 것이다. 조금은 의도적이기도 하다.

- 미국에 대해

천주교가 종교이지만 통일이라는 것은 나에게 있어 하나의 신앙과 다름없다. 처음에는 박노해 시인의 ≪사랑은 슬픔, 가슴 미

어지는 비애 사랑은 분노, 철저한 증오 사랑은 통곡, 피투성이의 몸부림≫이라는 시구가 있는 ≪사랑≫이라는 시를 읽고 ≪말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 자리에 있으니까 마음에 와 닿는 것이 남다르다. 내가 한 사람을 굉장히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감기에 걸렸다면 나는 감기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 단순히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퇴치방법도 알아보고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조국과 민족이 양키에 의해 두 동강이 나는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있다면 나는 그들에 대해 적대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

- 두 곡이 모두 인터넷을 통해 확산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뉴스가 나온 후 하루만에 작곡하고 작사해서 민중가요 노래패 ≪우리나라≫의 멤버인 이혜진씨가 바로 노래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올렸다.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최근 ≪민중가요≫라는 것이 음반과 적당한지에 대해 의문이 생겼다. ≪기특한 과자≫ 같은 경우는 시기성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음반으로 나오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불가능하다. 유통시장에 들어갈 판돈도 없을 뿐더러 음반 한 장을 구입했을 때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상업음반만큼의 음질을 우리가 줄 수 없다는 한계도 있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재정적인 문제와도 분리시킬 수 있는 MP3를 이용하자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이 나의 마지막 실험이다.

- 마지막 실험? 마지막 희망!

3번째로 징역을 살고 나온 95년, 그 해 많이 힘들었다. 나를 믿어주던 사람들이 운동하는 것을 말리기도 하는 등 허탈한 마음이 많이 들었다. 재정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그래도 갈 데 까지는 가봐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이런 저런 실험을 거쳐 이제는 민중가요를 사람들에게 보급시키는데 적당하다고 생각한 인터넷을 활용해 홈페이지 (www.songnlife.com) 를 운영하고 있다. 이게 마지막 희망이다.

- 노래하는 전사

후배들이 ≪노래하는 전사≫라고 불러주는 것은 아주 고마운 일이다. 내 삶의 이상인 김남주 시인을 난 전사라고 부른다. 그분은 그 이름이 아깝지 않을 만큼 전사답게 살다 가셨기 때문이다. 나 역시 작곡가라는 호칭보다는 전사라는 호칭이 듣고 싶다. 딴따라 이전에 ≪전사≫이고 싶은 거다. 음악이라는 무기가 내가 전사이냐 작곡가이냐에 따라 달라 보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칼≫이라는 도구가 어머니 손에 있다면 그것은 가족을 위해 요리를 하는 도구이지만 강도 손에 있다면 그것은 사람을 해치기 위한 무기일 뿐인 것처럼 말이다.

- 전사 윤민석의 무기

내가 할 줄 아는 것이 음악이라는 것이었기에 그것을 무기 삼아 작곡을 했던 거다. 뿌리깊은 나무가 드리는 그늘이 점점 더 넓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다양한 노래들을 담고 싶다. 나가 아닌 우리가 투쟁의 현장에서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라는 무기 말이다.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민중가요의 미덕을 지키면서 말이다.

- 그렇다면 민중가요와 대중가요의 차이는

민중가요는 대중가요보다는 상업가요와 구분 지어 살펴보는 것이 적당하다고 본다. 음반 한 장에서 ≪진보≫를 이야기하고 그 노래를 만들고 부른 사람들이 음반에 실린 진보를 위해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음악은 진정한 민중가요인 셈이다. 그렇지만 아무리 진보가 담겨있는 음반이라 해도 정작 그 노래를 만든 사람들의 생활이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진보가 상품이 된 경우이다. 한마디로 그것을 만들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노래에 걸맞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기준이 될 수 있다. 언젠가 서태지와 아이들의 ≪발해를 꿈꾸며≫라는 노래가 민중가요냐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이것은 민중가요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인식돼있지 않기 때문이다.

- 마지막으로 대학 후배들에게 한마디

우선 가슴이 아프다. 내가 운동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다면 마음 없이 되는 일도 없지만 마음만으로 되는 일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재정적인 부분이나 권력적인 부분 등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해서 많이 미안하다. ≪힘내라≫라는 말 외에는… 요즘에는 취업이다 뭐다 해서 대학생들이 고민이 많겠지만 우리 때는 시대가 시대니 만큼 다 같은 고민들을 했다. 한번은 모두가 투쟁판에 나가있는데 복학생 7명이 수업을 듣겠다고 강의실에 나갔다가 교수님께 혼이 나고 학점을 모두 F를 맞은 일도 있었다. 그랬던 때였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운동이라고 하면 ≪그래? 옳은 것 같아. 그렇지만 난 싫어! 네가 해≫라는 풍조가 만연한 것 같다. 하여간 지금은 시대적으로 안고 가야할 문제들이 복잡하다고 본다. 그렇지만 후배들은 어떤 문제이던지 간에 고민을 할 때 가장 단순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결방법은 우리가 유치원시절 배웠던 것에 다 들어있다.





한양대 이경미 기자 2002년 2월 26일
유뉴스 www.unews.com

국내 영화계에 몰아닥친 반미바람

젊은 층의 강력 대응에 할리웃 직배사 우려

≪이 영화개봉일이 언제죠?≫
≪3월8일경으로 잡았다는데...≫
≪영화는 좋은데 요즘 분위기에는 직배영화라 힘들 것 같아.≫

지난주말 한 직배사가 배급할 예정인≪라이딩 위드 보이즈(RIDING IN CARS WITH BOYS)≫의 시사회장에서 영화관계자와 배급업체 직원이 상영이 끝나고 나오면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다.

할리우드 직배사, 반미감정 확산에 긴장

이날 상영된 영화는 미국판≪고양이를 부탁해≫라고 할 만큼 진지하게 여성의 정체성문제를 다룬 작품. 드류 베리모어, 제임스 우드 등 인지도가 높은 배우가 출연한 작품이었지만 배급업자나 극장업자들은 이 작품이 지닌 작품성과 상업성에도 불구하고 흥행에는 대체적으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근 미국제품 불매운동의 표적이 된 직배 영화 오션스 일레븐 ⓒ 워너브라더스

그렇지 않아도 최근 미국영화는≪블랙호크다운≫이나≪콜레트럴 데미지≫같은 미국흥행 1위의 액션대작들조차≪공공의 적≫이나≪2009년 로스트메모리≫같은 한국영화와 흥행대결에서 맥을 못 추고 있는 실정에서 앞으로 얼마간은 반미감정이라는 악재를 하나 더 안고 개봉해야 할 실정이기 때문이다.

한 배급업자는≪작년에 개봉한≫무사≫가 그렇게 관객이 안들 영화가 아닌데도 9.11테러가 터지면서 분위기 타서 관객이 뚝 떨어진 것만 봐도 흥행은 작품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분위기를 탄다≫면서≪한두어달 묵힌 뒤에 개봉하면 좋을 미국영화들이 많다≫고 아쉬워했다.

≪공공의 적≫의 시나리오 작가인 백승재씨는 그러나≪당분간≪오노(반미)효과≫가 있겠지만 곧 있을 아카데미상 특수를 노리는 미국영화들의 공세도 만만치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영화계가 계속해 작품으로 승부할 생각을 해야지, 안이하게 최근 확산된 반미감정에 의존하려 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영화 주수요층인 젊은층의 반미의식 주목해야

우리 영화업계는 이전에도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한 일본영화의 강력한 개방공세를 일본 각료들의 연이은≪망언≫과 역사교과서 문제 등에 따른 국민들의 반일감정에 힘입어 비교적 손쉽게 막아 낸 경험이 있다. 비슷한 상황이 지금 재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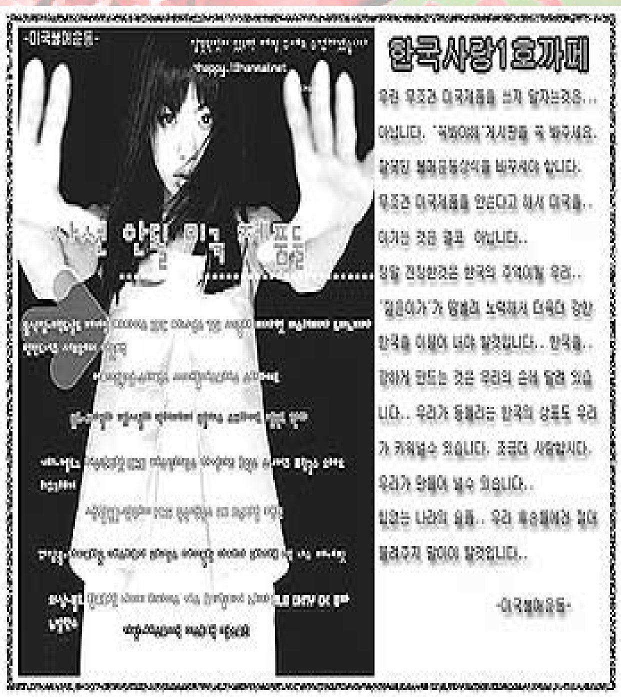
이번에는 반미감정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번 반미감정은 김동성 선수의 금메달 박탈을 계기로 영화의 주된 수요층인 청소년을 비롯한 젊은층 사이에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 예로 최근 개설된 사이트≪미국제품불매운동≫에는 맥도날드 햄버거에서 IBM컴퓨터에 이르는 다양한 불매품목 리스트에≪오션스 일레븐≫≪뷰티풀 마인드≫≪바닐라 스카이≫등 미국영화를 집어넣고 있기도 하다.

지난주말 3일간의 흥행에서 영화관계자들의 예상을 뒤엎고 오랜만에 미국영화인≪뷰티풀 마인드≫가 1위를 차지하긴 했다. 이 영화는 아카데미상에만 8개 부문이 노미네이트될 정도의 수작이다.

하지만 주요 영화관련 저널들은 이런 결과가 영화의 제작사인 드림웍스(SKG)의 대주주이기도 한 CJ엔터테이먼트가 라이벌 배급사를 견제하기 위해 계열극장들을 총동원하는 배려를 해준 덕택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어쨌든 한국영화는 반미감정의 확산으로 인해 시장점유율 50%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보다 유리한 조건 하나를 더 갖게 됐다는 게 영화전문가들의 지배적 견해다.



손봉석 기자

부시방한 반대투쟁 평가서(발췌)

범민련 남측본부

성과

① 우리 국민의 민족자주 반미의지를 시위하고 미국에게 경종을 울렸다.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부터 종교인, 국회의원들까지 나섰으며 전국민의 열화와 같은 지지를 받았던 이번 반부시반미투쟁의 열풍은 바로 우리 민족의 자주정신을 보여준 것으로 미국에게 경종을 울렸다. 부시는 대북강경전쟁책동을 숨기지 않고 공공연히 지껄여댔으나 한미정상회담 전기간 동안 북과 전쟁하지 않고 대화하겠다는 등 주눅이 든 기만적 언사로 일관하였다.

② 민족자주, 반미자주의식화가 강화되었다.

적극적인 선전사업과 실천투쟁으로 국민들의 민족자주, 반미자주의식화이 가일층 높아졌다. 부시 방한 반대 투쟁을 기점으로 시장통 여론 등 기층 여론은 부시를 규탄하고 저주하는 것이 기본 정서로 확고히 자리잡아 가고 있다.

③ 부시 방한 반대를 위해 600여개 연대단체가 조직적 틀을 형성하였다.

이번 부시 방한 반대 투쟁에 민중연대를 비롯한 600여개의 사회시민단체들이 결집해 투쟁을 전개한 것은 매우 중요한 조직적 성과이다. 지난 기간 반미투쟁에 있어서 여러 연대조직체가 있었지만 부시 방한 반대 투쟁만큼 광범위한 조직적 틀이 구성된 적은 없다. 또한 이러한 조직적 성과가 전국화되어 모든 지역에서 부시 방한 반대를 위한 제사회시민단체들간의 연대가 모색되어 어느 때보다 조직적 단결이 강화되었다.

④ 반미투쟁에서 대북강경전쟁책동 분쇄 투쟁이 중심으로 자리매김되었다.

대북강경전쟁책동분쇄 투쟁이 부시 방한 반대 투쟁을 기점으로 당면 반미투쟁의 중심 사안으로 확고히 자리매김되었다. 노동자들, 농민들, 종교인들이 전쟁반대, 평화실현, 6·15 공동선언 실현을 외친 것이 바로 이번 부시 방한 반대 투쟁이었다. 반미운동의 대중적 지평만 넓어진 것이 아니라 내용적 중심도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⑤ 여론선전전을 중심으로 행동전을 결합하는 올바른 전술을 구사하였다.

거리선전전, 명동성당 단식 농성, 청와대 방문 등 여론선전전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이순신 동상에서 성조기 소각 투쟁, 미상공회의소 점거 투쟁, 연속적인 미대사관 진격투쟁, 보잉사 간판 점거 투쟁 등 행동전을 전개하였다. 명동성당에서 단식농성과 투쟁구호 발표는 설연휴기간에도 투쟁의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했으며 연속적인 행동전들은 국민들의 반미의지를 고양시키고 대중운동을 촉발하는데 기여했다. 20일 범국민대회의 대중적 성사은 이러한 적극적인 여론선전전과 행동전에 의한 것이었다.

⑥ 각계급계층에서 특색있게 투쟁을 조직하였다.

신부, 수녀, 목사, 스님들은 풍선을 들고 종교인 대회를, 실천연대는 차량시위를, 농민들은 부시반대 수입개방 반대 투쟁을, 청년학생들은 청년, 학생단체들간의 공동광고와 선전물 제작을 진행했다. 이밖에도 청년학생결의대회와 범국민대회를 기점으로 양민학살 유족회 집회, 여성대회, 민노당, 반미여성회의 여성, 어린이 시위 등 각계각층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투쟁이 조직, 전개되었다.

⑦ 반미투쟁이 선차적, 대중적, 전면적인 투쟁으로 자리매김되었다.

이번 투쟁으로 반미투쟁이 가장 대중적이며 선차적인 투쟁으로 자리매김되었다. 과거 반미투쟁에 소극적이었던 청년학생단체들까지 보잉사 간판 점거 투쟁을 전개하는 등 반미투쟁은 모든 사회시민단체들에서 가장 선차적인 투쟁으로 대중들의 열렬한 지지와 호응을 받는 대중적인 투쟁으로 자리매김된 것이다. 또한 반미투쟁이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대북강경책동 분쇄, 자주통일로 나가는 전면적인 투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교훈

① 6·15 공동선언 지향성이 부족하였다.

반미투쟁이 이처럼 높은 단계로 발전한 것은 바로 6·15 공동선언의 힘이다. 민족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선언인 6·15 공동선언으로 반북대결의식이 깨지고 자주의식이 급격히 고양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만큼 당면 반미투쟁도 6·15 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전개되고 이를 지켜내야 한다. 그럼에도 전반 투쟁에서 6·15 공동선언 실현이 투쟁과제로 제출되긴 했으나 그 지향을 정확히 하고 전면화하는데는 부족함이 있었다.

② 부시 방한 반대 연석회의 조직적 수준이 높지 못했다.

전반 투쟁을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반 투쟁을 책임지고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강력한 지휘부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구에 비해 연석회의는 투쟁협의와 몇 가지 집중실천을 공동으로 조직하는 것에 그침으로 해서 지도부로서 역할에 부족함이 있었다. 이것은 부시 방한 반대 투쟁을 더 조직적으로 전개하고 중간층과의 사업을 강화하는 등 범국민적 운동을 확산하지 못한 한계로 나타나게 되었다.

③ 투쟁전술에서 좌우경적 편향이 노정되었다.

준비기 투쟁은 역량의 보존, 축전과 장성 강화를 위한 실천투쟁으로 되어야 한다. 좌경적 전술로 역량을 소모하고 고립을 자초하거나 우경적 전술로 투쟁의지를 약화시켜 투쟁역량을 유실시키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다. 대중시위에서 폭력투쟁은 타격의 초점을 미국에서 경찰로 협소화시킬 수 있으며 대중으로부터 지지를 받기 힘들고 연행자만이 아니라 시위참가자까지 탄압 받을 수 있는 전술로 지양되어야 한다. 이에 반해 대중들의 열기가 넘치는데도 연좌연와시위 등 기세 있는 투쟁이 아니라 행진만을 진행해 대중들이 열기를 냉각시키는 우경적 편향도 지향되어야 한다.

④ 계획한 투쟁이 다 전개되지 못했다.

준비한 투쟁을 완강하게 관철해야 투쟁의 열기를 높이고 대중들에게 확고한 신심을 줄수 있다. 간부 일꾼들은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런 견지에서 보면 철도노조와 함께 하기로한 열차안 반미반부

시 홍보책자 배치, 공단,농촌 선전전, 차량시위, 인터넷 영상 선전 등에서 계획이 집행되지 않거나 부분적인 집행에 그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은 간부 일꾼들의 능력 문제로 된다.

⑤ 청년학생을 비롯한 대중동력이 요구성에 비해 부족하였다.

대규모의 군중적 투쟁을 조직해야 대중 의식화, 조직화가 급속하게 전개되며 정세를 유리하게 전변시켜 나갈 수 있다. 이번 부시 방한을 계기로 전반적인 반부시반미 분위기가 절정에 달한 조건에서 만단위의 대규모 군중적 투쟁을 벌였다면 전반적인 반미운동을 급속히 발전시키고 정세를 유리하게 전변시킬 수 있었다. 이런 견지에서 20일 범국민대회 참여 인원이 5000여명 규모였던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청년학생들의 대중동력이다.

⑥ 중간층의 동참이 부족하였다.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주력으로 하면서 광범위한 중간층을 견인해야 역량적 우세를 차지하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부시 방한 반대 투쟁에서 중간층의 동참이 부족한 면이 있었다. 여성, 종교인들은 전반적인 투쟁에 동참했으나 교수, 의사, 변호사를 중심으로 하는 중간층, 시민단체들의 참여가 높지 못한 것이다. 주력을 강화하면서도 중간층에 대한 사업이 더 강화해 광범위한 연대전선을 실질화해야 한다.

과제

① 6 · 15 공동선언 기치 들고 반미투쟁을 강하게 벌여야 한다.

미국의 대북강경전쟁책동은 변하지 않았다. 부시는 이번 방한에서도 북의 지도자와 민중을 분리시키고 대량살상무기 운운하는 등 북에 대한 비방과 공격을 공공연하게 지껄였다. 아무리 대화가면을 쓴다고 해도 이리의 침략적 본성이 바뀔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만큼 부시 방한 반대 투쟁의 성과를 확산해 가고 이를 6 · 15 공동선언으로 지향시켜 나가야 한다.

② 자주의식화에 힘을 더 쏟아야 한다.

청년학생들의 대중동력이 요구에 비해 부족한 것도 결국 자주의식화가 요구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이다. 더욱더 자주의식화를 다그치고 공단선전, 농촌선전과 같은 노동자, 농민들에 대한 자주의식화 사업에 힘을 쏟아가야 한다.

③ 부시 방한 반대 연석회의의 성과를 계승해 반미투쟁체를 건설해야 한다.

조직적 성과를 유실시키지말고 이를 계승 발전시켜 상설이고 지도력이 강화된 반미투쟁체를 건설해야 한다. 이러한 반미투쟁체 건설은 반미운동의 통일성을 강화할 것이며 중간층과의 사업 등 전반적인 연대 연합 운동을 활성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민족민주전선의 토대로 될 것이다.

④ 간부일꾼들의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

간부일꾼들은 투쟁기획, 전개, 결속을 확고히 틀어쥘 수 있어야 하며 대중 속에서 언제나 실속있게 사업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습을 강화하며 실무적 자질을 높여내기위해 피타는 노력을 해야 한다.

⑤ 민중의 정치세력화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정부당국은 6 · 15 공동선언의 당사자임에도 도라산역에서 이를 언급도 못하고 미국의 대테러전쟁에 협조하기로 했다. 친미보수정치의 무능력이 뚜렷히 부각되었으며 이를 청산하기 위한 민중의 정치세력화가 절실한 문제임을 대중적으로 확인했다. 앞으로 이를 실현하고 광범위한 세력을 단결시켜 6 · 15 공동선언 지지 세력의 승리를 쟁취해야 한다.

긴급제안-대중들의 반미열기를 안티USA 운동으로 조직하자!

1. 부시의 ≪악의 축≫ 발언과 이남 행각, 그리고 때마침 터진 동계올림픽 부당판정 문제로 민중들의 반미열기가 뜨겁다. 수많은 여론조사결과와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그것을 반영한다. 대중들의 미국에 대한 분노와 반미구호에 대한 환호는 2000년 총선때의 낙천낙선 열기를 방불케 한다.

2. 오늘의 반미열기는 6.15공동선언이 만들어준 것이다. 6.15공동선언에 기인한 민족적대의식의 해체는 미국을 보호자가 아니라 지배자로 인식할 수 있게 하였다. 부시의 ≪악의 축≫ 발언은 화해협력, 통일지향세력을 미국반대의 구호로 견인하고 있다.

3. 부시의 이남 행각에 즈음해 각계 민중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벌인 적극적이고 집중적인 실천투쟁은 위력적이었다. 대중의 반미감정을 대변하였으며, 그것이 개별적 차원으로 사장되지 않고 사회적 여론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4.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민족민주운동은 대중의 반미열기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분출하는 반미감정에 비하여 그 의식화, 조직화 수준은 현저하게 미약하다. 의식화, 조직화되지 않은 분노는 역량이 아니다. 잠재력일 뿐이다.

5. 대중들의 반미열기를 조직하는 사업에 시급히 뛰어들자. 주한미군철수의 전략적 구호를 내적으로 견지하되, 내정간섭, 무기강매, 미군범죄, 양민학살, 환경오염, 부정판정 등 현 단계에서 민중들이 분노하는 사안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남김없이 조직하자.

6. 2000년 총선당시의 낙천낙선운동과 2001년 안티조선운동의 경험을 적극 활용하고 더욱 발전시키자. 안티USA 네티즌연대 사이트를 개설하고 네티즌들의 반미열기를 조직하자. 대중들의 자발적 발의로 진행되고 있는 미국상품 불매운동을 적극화 전면화하자. 월드컵을 맞이하여 안티USA 붉은악마 응원단을 조직하자.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에 대중의 정서와 구미에 맞는 다양한 안티USA 소모임을 대대적으로 건설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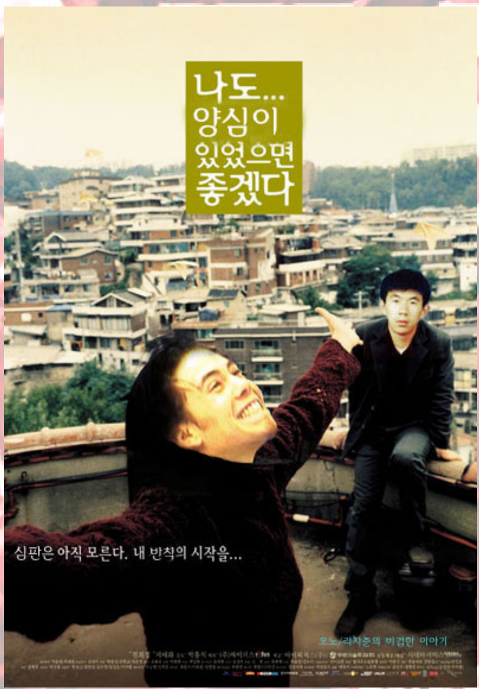
7. 대중속으로 들어가야 하며 대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야 한다.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대중에게 있으며, 역량화의 여부는 일군들의 결심과 실천에 달려 있다. 대중들의 반미열기를 안티USA운동으로 조직하자.

8. 반미운동 대중화의 전환적 국면을 만들자. 미국의 6.15공동선언 방해 음모가 다시는 맥을 추지 못하게 하자. 미군들이 미군기지 밖으로 한발짝도 나오지 못하게 하자.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의 전략적 과업이 얼마나 빨리 실현되느냐는 지금 민족민주일군들의 발걸음에 달려 있다.

2월 27일

반미운동가 한민수

그림으로 보는 반미 민심


나도...
양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심판은 아직 모른다. 내 반칙의 시작을...
오노/리자준의 비겁한 이야기


반칙을 하는자가
금메달을 차지할것이다!
반칙의 제왕
주연 : 안톤 오노
공동 주연 : 리자준, 스미스
감독 : SALTLAKE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심사위원


only 미국인관람가
행복한 오노
부시의 극찬을 받은 바로 그 영화!
10년을 준비한 기술..
2002 동계올림픽! 기회가 왔다!
미국을 빛내자!
MADE BY Terrapin
네티즌들의 뜨거운 반응
<인기 검색어 1위!>
* 언제봐도 반칙이 명확하다!
* 색다른 미국식 반전의 묘미!
* 21세기 최고의 헐리웃 액션
반칙기술
백과사전
MADE BY USA
안톤 오노
리자준
인기 OST "Fucking U.S.A" 판매!


미국박스오피스 1위후보
연기파배우 안톤오노의 쌩쑈 퍼레이드
BELIEVE THAT!
금메달을 훔쳐라!
COLUMBIA PICTURES PRESENTS
LES MAYFIELD


안톤오노 ,리자준 vs 김동성,안현수
반칙 할 시간이 왔다.
한국의 적
www.00enemy.com


개최국의
음모는
이미
시작 되었다!
안톤 오노
올림픽 역사상 전무후무한 최강의 사기극
2002 로스트메달즈
LOST MEDALS
리자준
Made by. XePhy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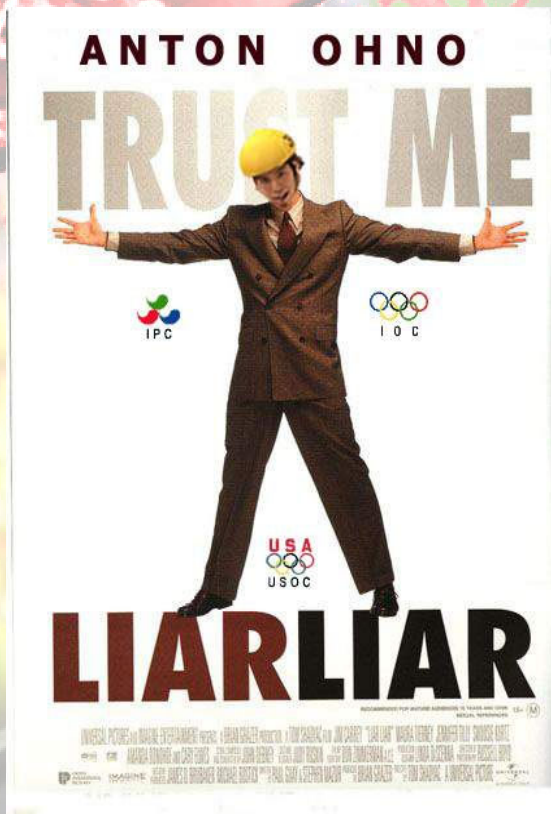

코메디가 그리운 계절, 그들이 왔다
금메달 습격사건
금메달을 향한 그들의 필사적인 노력.
식스센스를 뒤집은 최고의 반전 영화!
기대하세요!


2인조 고스톱 사기단의 횡포가 시작됐다
9.11 테러이후 미국내 경제 악화로
시행되고 있는 금모우기 운동!!
금따러 오노가 도박판에 끼어들었다!
짜고치는 고스톱에 전세계가 피박!!
두 사기단과 한국인의 금메달 쟁탈전!!
"연기 잘하는쪽이 임자다!"
금도 양심도없이
금도 양심도없이
금도 양심도없이
금도 양심도없이


오노, 리자준, 스미스
함께 있을 때, 우린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다!
친구
親舊
2002년 Salt Lake 동계 올림픽에서의
그들의 무서운 반칙대행진이 시작된다.
※스미스는 사진이 없어서 못넣었음..-_-;
by.바나나우유


2002년 겨울을 불태울
비겁한 반칙왕이 온다
반칙
삼총사


24
369
惡
리 자이준
아폴로 안톤 오노
반칙은 이미 시작 되었다!
올림픽 영화 사상 최강의 반칙 프로젝트
2002 로스트오노양심
LOST Fair Play
만든이:샤크라박
이메일:littledaebak@hanmail.net


ANTON OHNO
TRUST ME
IPC
IOC
USA
USOC
LIARLIAR


2002년 쇼트트랙 이벤트
아수라X 오노
◎이 포스터는 포스터가 아닙니다.
일시:2002년2월
장소:소금호수
주최: 미국 /주관: IOC
반칙王
The Foul King
fairyuri


한국인들을 이해할수 없다.
그들은 날 시기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것이다.
나는 당당히 금메달을 땄다!
Fucking U.S.A
It's True!
북한놈들의 악의 축이다!
우리는 그들을
저단해야 될것이다!
They're Real Psycho.
TWO AMERICAN IS Psycho
St,sucky


엿 먹어라 미친부시~
미국 심판 나가 뒈져


반칙방위대
파울맨

새해맞이 민족공동모임 결국 무산



새해맞이 민족공동모임이 당국의 방북불허조치로 인해 결국 무산되었다. 27일 낮 12시 40분경 행사 남측 대표단은 남측 참가단이 기다리고 있는 온정각에 도착해 행사가 무산되었음을 밝혔다. 같은 날 남북 양측 대표단은 성명을 발표해 행사 무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작년 5.1절 남북노동자대회 이래 남북 민간이 합의한 민족공동행사가 무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사 무산 경과와 의미를 정리해 본다.

이번 새해맞이 민족공동모임은 원래 2월 19-21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남측의 요청으로 날짜가 변경되어 26-28일에 진행하기로 합의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선발대가 22일 금강산에 도착하여 실무 준비를 거의 끝낸 상황에서 당국이 25일 통일연대 소속 인사 46명의 방북을 불허하여 행사에 먹구름을 드리운 것. 통일연대측은 행사 공동준비위원장을 포함한 다수 대표단에 대한 방북불허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행사 불참을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통일연대 소속 인사 99명이 방북을 포기한 상태에서 남측 대표단 208명이 26일 금강산으로 출발하였다. 종단과 민화협 대표단 220명은 출발성명을 통해 ≪우리는 깊은 불신의 눈에 가리워 화해와 평화의 새희망을 보지 못하는 정부의 태도에 엄중하게 항의한다.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는 7천만 겨레에 통일염원을 가득 안고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실무대표단에 따르면 당초 양측 준비위는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하되 27일 행사 진행 직전에 공동으로 ≪엄중항의≫를 표시할 예정이었다. 선발대의 일원인 조성우 민화협 집행위원장은 ≪북한측이 통일연대의 방북 불허조치에 대해 지금까지의 남북 교류협력의 성과를 날려버리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내일 행사를 진행하기 직전 남북공동으로 ≪엄중항의≫를 표시하는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남북공동항의≫의 합의를 남측 준비위가 번복하면서 행사 진행에 다시 차질이 생겼다. 남측 준비위 관계자는 ≪종단 측에서 북에 와서 남북이 공동으로 정부에 항의하는 모양은 좋지 않다며 이의를 제기해, 남측 대표단에서는 공동 항의를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신에 남측은 3명의 본 대회 대표연설자 중 청년대표의 연설 내용에 남한 정부의 방북불허 조치에 대해 강력하게 유감을 표시하는 내용을 담자는 수정안을 제시한 것. 결국 행사 시작 시간인 오전 10시를 넘겨 진행된 남북실무단 회담에서 행사 무산을 결정하고 남북 대표단은 각각 성명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북측대표단은 성명에서 ≪이번과 같이 남조선의 모든 통일운동단체들과 그 대표들이 통일행사에 집단적으로 참가하지 못하도록 전면적으로 막아나선 례는 일찌기 없었다≫며 미국이 ≪서울에 이어서 금강산에서까지 반부쉬, 반미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것이 두려워 남조선의 극우보수세력들을 부추겨≫ 행사 자체를 파괴하려는 책동을 자행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한나라당≫을 비롯한 극우보수세력에게도 그 책임이 있으며 이들의 압력을 두려워하는 남조선의 ≪통일부≫에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성명에서는 아울러 ≪남조선의 ≪민화협≫과 ≪7대종단≫이 이 행사의 성공적개최를 위하여 기울인 노력을 평가한다≫며 ≪보다 큰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남조선의 각계층 통일운동단체들과 더욱 굳게 련대하여 6.15 공동선언관철을 위한 투쟁을 계속 힘차게 벌려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남측대표단은 성명을 통해 ≪남측 정부의 대규모 방북금지 조처는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해서는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모두가 단결의 큰길에 함께 해야 한다는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당국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였다. 동시에 행사 무산을 결정한 북측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시하였다.

이번 사태에 대해 통일연대는 논평을 통해 ≪이번 행사 불참결정은 민간통일운동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차후 남북민간교류가 부당한 간섭 없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원칙적이고도 올바른 판단이었으며, 남북화해와 민족대단결을 향한 강력한 의지의 발현이었다≫고 밝히고 ≪행사를 함께 준비했던 주체중 일부가 부당한 정치적 탄압을 받아 남북민간교류의 정당성자체가 훼손≫되어 행사 성사 여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민화협과 7대종단이 금강산으로 출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이어 성명은 민화협과 7대종단이 출발성명에서 당국에 강력하게 항의한 것을 높이 평가했으며, 행사 성사를 위한 민화협과 7대종단의 노력이 애국적 의지의 표현임을 평가하였다. ≪이번 행사 무산의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의 계획적인 민족대단결 방해 책동에 인한 것≫이라고 밝히고 미국과 수구반동세력의 민족분열책동을 준열하게 규탄하였다. 동시에 성명은 ≪김대중 정부의 6.15공동선언 실현에 대한 더 이상의 후퇴와 동요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신영철 기자 2002년 2월 27일
6.15주간 편집부

반미와 남북화해 그리고 공안세력의 ≪위기감≫

새해맞이 공동행사의 무산에 대해

기대를 모았던 새해맞이 공동모임이 끝내 무산됐다. 이 행사에 직간접적으로 관계했던 실무 간부의 한 사람으로서 이에 대한 의견을 피력해 보고자 한다.

새해맞이 공동모임의 무산 과정

새해맞이 공동모임이 제기되었을 때 통일부는 범민련 · 한총련 소속구성원, 법적 하자가 있는 자, 8 · 15 3대헌장 기념탑 참가자는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범민련과 한총련 소속원, 법적 하자가 있는 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작년 3대헌장 기념탑 참가자를 불허하겠다는 입장은 상식을 벗어나는 것이었다.

이러한 발상의 문제점은 먼저, 범민련 관계자 재판 과정에서 확인되었듯이 통일부조차 누가 3대헌장 기념탑에 참가했고 정확한 참가 인원이 몇 명인지조차 모르고 있다. 다음으로 통일연대 뿐만 아니라 종단이나 민화협 관계자들도 상당수가 여기에 참여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3대헌장 기념탑에 참가한 행위와 관련한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이고 법적 판결이 내려져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통일부는 아직 법적 판단이 내려지지도 않은 사안을 가지고 불허하겠다는 통보를 해오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통일연대 각종 회의에서는 정세의 엄중성에 비추어 어떻게든 행사를 성사시켜야 한다는 생각하에 작년 3대헌장 기념탑 참가자는 신청 자체를 자제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신창균 선생 등 몇 명 정도만이 통일부의 불허 조건에 해당하였고 불허 통보 하루 전만 하더라도 불허자는 10명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었다.

그러나 알려진 바에 따르면 행사 하루 전 불허자는 처음에는 80~90명이었다가(공안기관 등에서 통보한 숫자) 통일부의 나름의(?) 노력에 의해 46명으로 확정됐다. 통일연대가 애초부터 성사를 기본으로 사고했던 만큼 정치적, 법적 공방을 다툴만한 소지가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가령 범민련의 경우에는 아예 배정된 범민련 몫을 다른 단체에 양보했다. 그럼에도 방북이 불허된 46명은 ≪남북 교류협력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따위의 기준에 의해 선별됐다. 이렇게 되고 보니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불허자가 대다수였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허가자와 불허자를 선별하는 과정이 이러저러한 고려와 정황을 통해 신중하게 이루졌다기보다는 행사 자체를 방해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 진행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왜 통일부(통일부의 불허자는 46명이고) 또는 공안기관(공안기관 등에서 통일부로 제출한 불허자는 80~90명선이었다고 한다)은 이러한 무리한 조치를 강행했을까?

이는 한미정상회담 이후 조성된 정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부시의 ≪악의 축≫ 발언이 있은 직후 남측에서는 반미 정서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었다. 때마침 동계 올림픽 과정에서 미국의 편파적 자세는 국민 대중의 반미 정서에 불을 질렀다. 또다른 한편 미국을 방문한 이회창 총재는 미국의 고위 관리들을 만나는 극진한 환대를 받았고 이에 화답하여 그는 미 공화당의 강경 대북 노선에 동조하였다.



이러한 정황은 남북대화 재개를 통해 잃어버린 정국의 주도권을 잡고자 하는 김대중 정부의 구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었다. 이에 따라 김대중 대통령은 친미적 노선으로 다시금 급격히 회귀하였다. 이로부터 김대중 대통령은 첫째, 어떻게든 ≪악의 축≫ 발언을 되돌림으로써 ≪햇볕정책≫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하고 둘째, 점증하는 반미 정서를 제압함으로써 한국 政情에 대한 통제력이 있음을 미국에 과시하고자 했던 것이다. (반미 정서가 확산되는 것을 미국은 가장 두려워 한다. 그리고 미국은 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다)

새해맞이 행사에 대한 대규모 불허 사태는 이러한 정황의 산물이다. 한국의 보수수구세력과 공안기관 그리고 김대중 정부가 보기에는 부시 방한 과정에서 반미 정서가 폭발한 것에 대비하여 남북 민간급 접촉이 순조롭게 진행되거나 초보적인 형태로라도 민족 공조를 확인하는 것이 향후 반미 정서를 통제하는 데 이롭지 않다고 판단했



던 것이다.

결국 새해맞이 공동행사의 무산은 부시 방한 과정에서 확산되었던 반미 정서의 확산과 이를 계기로 조성된 정부 당국 및 공안수구 세력의 위기감이 근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이슈는 1.29 부시의 ≪악의 축≫ 발언으로 조성된 한반도의 긴장 조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어떻게든 부시의 ≪악의 축≫ 발언을 되돌리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시는 한국을 내한하기 이전 일본을 방문하였고 일본 방문시 시종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심지어는 한국에서조차 만찬회, 도라산역 연설 등에서 대북 강경발언을 계속하였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부시는 간단한 외교적 멘트를 통해 김대중 정부의 요청에 부응하는 한편 나머지 대다수 발언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였다. 김대중 정부는 부시가 던진 외교적 멘트 하나를 붙들고 마치 부시의 입장이 크게 바뀐 것처럼 선전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 결과는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부시가 ≪악의 축≫으로 지칭한 이란, 이북, 이라크 중 미국의 입장에서 가장 만만한 것은 이라크이다. 이북과 이란으로의 확전은 이라크 전쟁의 향방에 달려 있다. 따라서 부시의 대북강경노선은 당장은 전쟁으로 치닫기보다는 긴장과 강경 정책으로 흐를 것이었다. 부시의 입장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설득에 대해 ≪이북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정도의 가벼운 멘트 정도는 부담이 없었던 것이다. 오히려 향후 예상되는 이북과의 정면 대결의 명분을 축적할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었다.



반면 김대중 대통령은 대북 정책 기조와 관련하여 1.한미 동맹, 2.반테러 협력, 3.이북의 대량살상무기 제거 4.대화로 문제해결 등의 원칙을 제시했다. 한미동맹에 기초하여 이북의 대량살상무기를 남북대화의 의제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미국의 입장을 김대중 정부가 남북대화에서 대신 대변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되면 정작 한반도 긴장 조성의 주범인 부시는 일정 기간 시간과 명분을 축적하고 그 동안 남북대화에서는 남북간의 상호 이익이 되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이북의 대량살상무기를 의제로 하여 대화가 진행되는 것이다. 이북의 핵과 미사일은 대미 정치협상용으로 이남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대화의 의제가 되지도 않는 사안을 둘러 싸고 남북이 대화한 뒤에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 동안 팔짱을 끼고 구경하고 있던 미국이 남측을 대신하여 이북을 상대하는 수순이 되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악의 축≫ 발언을 진화하기 위해 이러한 황당한 기조를 제시했던 것이다.

이 결과 부시는 가벼운 외교적 멘트 하나로 ≪악의 축≫ 발언에 대한 면죄부를 받고 향후 예상되는 대북 강경노선의 명분을 축적할 수 있는 이익을 챙기고 돌아 갔다.

민경우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
2002년 2월 28일 ©2002 Unews

≪통일연대 불참 결정은 옳아≫

인터뷰 - 김이경 통일연대 사무처장

27일 ≪2002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이 남측 참가단이 금강산에 도착한 상태에서 무산되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가운데, 이번 행사 무산의 원인인 통일연대의 불참과 관련해 김이경 통일연대 사무처장과 통일연대 사무실에서 긴급 인터뷰를 가졌다.

김이경 사무처장은 ≪이번에 통일부가 아무 근거도 없이 46명을 방북을 불허한 악수(惡手)를 두었다≫며 ≪이번 행사 결렬의 진정한 원인은 미국과 수구보수세력에게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새해맞이 공동행사가 무산되었다. 소감을 말해달라.

■ 지금 우리 정세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또 한번 뼈저리게 느꼈다. 미국의 치열한 전쟁책동과 6.15 선언 실행을 저지시키려는 압력이 얼마나 집요한지 알 수 있다. 미국은 남북이 민족대단결을 이루면 남한정부를 끌여들여 전쟁을 벌이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6.15 선언을 무산시키기 위해 남북관계를 차단하려 하고 있으며 이것이 이번 행사의 무산으로 나타났다고 본다.

□ 이번 행사의 준비과정부터 되짚어 보자. 이번 행사 참가자 선정에서부터 고심한 것으로 들었다.

■ 민감한 정세속에서 치러지는 행사니 만큼 수구반통일세력에게 빌미를 주지 않으면서도 대회가 성사될 수 있도록 작년 8.15 평양행사에 참석했던 인사들은 거의 신청하지 않았다. 너무 불허자가 없을까 걱정할 정도였다. 이번 행사에서 채택할 공동호소문의 내용도 민감한 반미 문제 등은 자제하려고 노력했으며 공동행사 성사 자체를 목표로 삼았을 정도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46명이 방북 불허를 통보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소개한다면.

■ 공식적인 통일연대 소속 참가 예정자 60명과 청년, 노동자, 농민 대표 등을 포함해 총 99명 중 40명이 불허 통보를 받았다. 전혀 이런 대대적인 불허를 예상하지 못했다. 우리는 지방에 계신 분들도 모두 방북교육을 받고 확약서까지 써줬다. 통일부의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까지도 감수하면서 최대한 성의를 보이고 법적 절차를 존중하기 위해 노력했다. 통일부가 처한 입지를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일부는 방북교육 불참자를 포함한 75명, 엄밀하게는 46명의 방북을 불허했고 구체적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결정이므로 얘기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신창균 선생의 경우 공동준비위원장인데 불허되었는가 하면 얼마전 평양을 다녀온 ≪민족21≫의 신준영 기자도 불허되었고, 저를 비롯해 실무대표단들도 불허되었다. 불허자 명단은 공개되었다.

□ 대규모 방북 불허를 통보받고 어떻게 대응했나?

■ 먼저 통일부에 해명을 요구하고 불허 조치를 통일연대와 상식있는 국민들이 납득할수 있도록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범주로 국한해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그러나 여지가 없다는 게 통일부의 입장이었다. 따라서 행사에 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다. 당연히 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니 갈래야 갈 수가 없었다. 한상렬 상임대표를 제외하고 대표도 한 명 못 가고 대부분이 못 가고 몇 명밖에 갈 수 없는 조건이었다. 실무대표단으로 행사를 준비해온 한충목 집행위원장과 사무처장인 저도 갈 수 없으니. 정부에 대한 규탄을 종단, 민화협과 의논하더라도 지방에 계신 분들에게 누를 끼치는 결례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행사에 불참하게 되었다고 연락했으며, 종단과 민화협 쪽에도 같이 안가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 그렇지만 종단과 민화협은 결국 참여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했다.



■ 종단의 입장은 통일연대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한다는 것이었으나 행사는 성사되어야 하므로 종단의 일반적인 분위기로는 통일연대의 불참 제안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화협은 가도 문제, 안가도 문제지만 종단과 민화협 상임대표 분들이 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자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을 내기로 하고 가는 것으로 결정했다. 종단과 민화협도 같이 안가는 것이 옳다고 봤지만 우리 세 단체가 그동안 함께 쌓아온 신뢰와 유대를 무너뜨리지 말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그분들의 가야 한다는 입장 또한 민족공동행사를 성사시키려는 나름대로의 애국적인 동기에서 출발한다는 점이 이해되었다. 그래서 우리 세 단체는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인정하되 3자 공동성명은 무리고 따로 성명을 내기로 했다.

□ 통일연대가 종단과 민화협의 행사 진행에 대해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안다.

■ 다소 오해의 여지가 있는 대목이다. 행사의 공동주체라고 할 수 있는 종단, 민화협, 통일연대, 북측, 이 4주체중 3주체가 합의한다면 반대할 의사가 없고 잘 했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명분과 의리를 중하게 여기는 북이 행사를 수락하겠는지에 대한 깊은 우려가 있었으며 민화협과 종단이 실망하고 돌아올까봐 걱정이 많이 되었다. 출발 당일도 손을 흔들어주고 악수하면서 ≪기왕 가는데 잘 하라, 민족공동행사가 잘 됐으면 좋겠지만 성사가 될런지 걱정이다≫고 말했다. 사실 우리가 불참한 것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행사가 진행된다면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다행히 공동으로 유감의 입장을 표명한다고 하니까 우리의 뜻이 반영되었다고 보고 민족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지지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그래도 행사자체는 부분적으로 파행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즉 부문별 모임에서 노동자, 농민, 청년 등이 어려울 것이고 통일연대측 실무대표단이 없는 상태에서 남북이 ≪구체적인 공동합의≫를 내는 것은 안된다고 보았다.

□ 그러나 실제로 남북공동의 항의 표시는 불발로 끝났다.

■ 종단 어른들이 그렇게 입장을 정한 것은 정부의 입장을 어렵게 하지 않으려고 한 것으로 안다. 그런데 정부의 어려움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있다. 우리는 통일운동의 자주성을 고수하고 6.15 실천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촉구하는 것이 정부를 도와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종단 어른들은 미국의 방해 노력과 한나라당의 공격에 극복보다는 굴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정부의 현재 입장을 중심으로 판단한 것이다.

□ 결국 북측이 대회 무산을 선언했다.





■ 북측이 민간통일운동의 순수성이 보장되지 않고 훼손되는 것에 대해 나름대로 대처하지 않고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대의명분도 없고 도덕적으로도 문제라고 판단한 것 같다. 북측의 판단이 옳다고 본다. 남측의 종단과 민화협도 이미 유감을 표명했고 북측과 함께 입장을 발표해도 문제가 없다. 그런데 통일연대의 어려움에 대해 한마디도 없이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북측이 신의(信義)문제로 보고 있을 것이다.

□ 무산된 상황에서 하고 싶은 말은?

■ 잘 쉬셨다가 오셨으면 한다. 거기까지 큰 돈 들이고 갔는데 굉장히 마음이 상했을 것이지만 맘 편하게 있다 왔으면 한다. 우리도 마음이 아프다. 이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번 일은 남북갈등이나 남남갈등 때문이 아니다. 종단과 민화협을 존중하면서 공동성명이나 집회, 실무접촉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할 것이며, 오늘 통일연대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결렬에 대해서 남북 갈등으로 돌려서는 안된다는 점과 민간교류 지속을 위해 종단, 민화협, 통일연대 3자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 이번 행사 무산이 앞으로 민간교류나 통일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망은?

■ 이번 행사 결렬의 진정한 원인이 미국과 수구보수세력에게 있다는 것은 모르는 이가 없지만 이번 통일연대의 불참이 어느 정도 인식의 공감대를 확산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보수세력에게도 대거 방북불허 조치는 여론이 나빴다는 근거를 확보한 셈이며 이에 따라 통일부가 부당한 간섭을 덜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통일부도 앞으로 자기 역할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말도 안되는 불허에 대해 비판 여론이 형성되고 있고 부시 방한 공동대응의 경험 속에서 민족자주전선이 넓어져가고 있으므로 이번 사건이 오히려 반통일적 분위기 극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앞으로 아리랑축전, 6.15, 8.15 등 민간교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 통일연대 상집회의에서 작년에는 쉽게 자주교류사업이 이루어졌지만 올해는 좁아진 문을 통과하기 위해 원칙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대중과의 사업에 역점을 두고 국민의 힘을 결집해서 민간교류도 풀어간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유감스럽지만 아직 민간통일운동 진영의 힘이 정부만큼 크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아리랑축전, 6.15 등은 정부간 대화에서 뚫어야 가능하다. 행사가 무산돼 정부도 곤혹스런 입장일 것이지만 이번 일로 앞으로 남북 정부간 대화의제 중 민간교류를 채택할 근거가 확실해졌다고 본다. 또한 북미관계나 남북관계 전체를 보았을 때 미국과 한국이 북한을 무시만은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역시 우리가 해야할 가장 올바른 입장은 정부간 대화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통일운동의 근본을 바로잡고 통일운동의 대중화를 실현하며 종단, 민화협과 연대해 나가는 것이다.

□ 네티즌이나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이번 행사에 불참을 결정한 통일연대의 원칙이 통일운동과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민간운동의 가장 올바른 입장이라는 점을 잘 이해해달라는 점이다. 종단, 민화협, 통일연대의 3자가 잘 조화를 이루어 통일운동을 해나가야 하겠지만 통일연대의 입장이 올바로 접수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야 순수한 민간교류운동이 남북을 이간질하려는 외세의 분열책동을 넘어서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올바른 자기 위상을 정립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작년 8.15행사때 3대헌장탑 앞에서의 행사에 대해서도 오해가 있는데, 통일연대가 남쪽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난이다. 그러나 통일연대는 민족공조를 실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때로 민족공조를 실현하려는 노력자체를 친북으로 매도하려는 보수언론의 입김이 지나칠 때가 있는데 민족공조를 실현해야 한다는 요구야말로 남한 국민들의 진정한 정서가 아니겠는가. 우리 통일연대는 종단, 민화협과 유연하고 포용력 있는 입장을 가지려고 늘 노력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우리의 올바름에 대해 그분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좀더 성실하게 기울일 생각을 갖고 있다. 내일 속초로 대표단을 마중나갈 계획이다.

김치관 기자 (tongil@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2-02-27

부시, 주한미군 계속 주둔 망발

구국의 소리, 주체91(2002)년 2월 24일



이미 보도됐습니다만 미국대통령 부시는 *******오산 미공군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키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망발을 늘어놓았습니다. 이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주한미군을 즉시 철수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우리 민중과 국제사회의 정당한 목소리에 대한 악랄한 도전행위라 하겠습니다.

미군의 한국강점은 하나의 강토에서 단일민족으로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창조하며 살아온 우리 민족에게 국토양단과 민족분열이라는 가슴 아픈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한반도의 분열로해서 남과 북에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게 되었고 우리 민족은 지난 50년대에 3년간의 전쟁까지 겪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국제사회가 자주와 협력의 길로 나가고 있는 현시대에 우리 민중은 장장 50년이 넘도록 식민지통치하에서 온갖 불행과 고통만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미제침략군의 장기주둔과 새전쟁도발책동은 한반도의 평화와 평화통일실현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고 있으며 우리 민족의 머리위에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각계층 민중은 더이상 미국의 지배밑에 살기를 원치 않고 있으며 이 땅에서 미제침략군을 철수시키는 것은 우리 민중과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요구입니다. 미군이 이 땅에 남아 있어야 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남북사이에는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이 채택, 발표됐습니다. 6.15공동선언은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이룩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이 땅에서 자기의 군대를 철수시킬 용단을 내릴때가 되었고 그 실현이야말로 조국을 통일할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가 방한해서 한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키겠다고 떠든 것을 어찌 용납할수 있겠습니까.

이 땅을 오랫동안 강점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벌써 철수했더라면 한반도에서는 전쟁의 위험마저 가셔지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룩하는데 유리한 국면이 열릴수가 있을 것이였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부시가 주한미군을 마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필요한 것처럼 떠든 것은 본질에 있어서 한국을 영원히 식민지군사기지로 장악하고 북을 언제든지 불의에 침략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내 놓은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것은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시대의 흐름과 우리 민중의 염원에도 맞는 것이고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부시는 시대착오적인 한국강점정책을 포기하고 이 땅에서 주한미군과 핵무기들을 철수시키는 용단을 내려야 합니다. 만약 미군이 이 땅에서 주한미군과 핵무기들을 철수시키지 않는다면 우리 민중의 강력한 반미항전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분열이 아니라 통일을 바라는 각계 민중은 부시가 주한미군을 영구주둔시키려고 책동하고 있는 것을 묵과하지 말고 힘을 합쳐 미군철수투쟁을 강력히 벌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인면수심의 인간

구국의 소리, 주체91(2002)년 2월 19일~22일, 24일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회창과 같은 매국역적을 두고 나온 말이라고 할겁니다. 이회창은 최근에도 미국에 가서 동족이 살고 있는 이북을 헐뜯는 망발을 해서 민족의 분격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언론인 김지수씨의 글 ≪인면수심의 인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철씨입니다.

≪인면수심≫이라는 말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본다. 그런 대상을 찾는다는 것도 쉽지 않을뿐만 아니라 될수록 남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우리 민족으로써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총재라고 하는 이회창이 미국에 가서 별의별 망발을 다한데 대해서는 아무래도 인면수심이라는 말밖에 더 떠오르는 것이 없다.

그것은 우선 그의 미국행각 자체가 추악한 민족반역행위이기 때문이다.

이회창의 미국행각목적은 미국상전을 등에 업고 올해에 어떻게 해서든지 대선욕을 이루어보려는데 있었다. 물론 지금 이 땅은 미국의 식민지속국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사회의 모든 분야를 미국이 거머쥐고 좌지우지하며 우리 국민에게 이루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

우리 국민이 당하는 온갖 불행과 고통의 장본인은 바로 미국이다. 여기에 그 어떤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없다. 우리 국민 모두가 민족적 수치와 분노를 가슴에 안고 미국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지금 경향각지에서 미군기지반환투쟁을 비롯한 반미투쟁이 날로 힘차게 전개되고 있는 것도 여기서 비롯된 것이다. 바로 이러한때에 이회창이 국민의 반미함성을 외면한채 미국의 힘을 빌어보려고 굽신거리며 상전들을 찾아갔으니 이 얼마나 비열하고 추악한 민족반역행위인가.

미국행각시 그가 한 언동 역시 매국역적행위의 극치이다.

그는 미국 부통령을 비롯한 상전들을 연이어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북은 변한 것이 없다느니 휴전선일대에서 북의 무력을 후퇴시켜야한다느니 핵개발저지니 뭐니하며 북을 걸고 별의별 험담을 다했는가하면 주한미군영구주둔론을 또다시 들고 나왔다. 이것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야 어떻게 되든 오직 미국의 환심을 사서 일신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대권욕을 채우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친미사대매국역적의 용납될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그가 입에 거품을 물고 반북대결광기를 부린 것은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하고 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며 북침전쟁도발기도를 더욱 노골화하고 있는 미국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것이다.

실제로 이회창이 미국행각시에 떠든 망언들은 미국의 대북강경책을 그대로 되받아 외운 것이다.

미국의 대북강경책을 자기의 신조로 삼겠다는 것이 이회창의 본심이다. 그러니 그의 몸에는 민족의 피가 아닌 미국의 피가 흐른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가 주한미군영구주둔론을 고창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민족, 민중의 온갖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고 통일의 암적 존재인 미군침략자들이 60년 가까이 이 땅에 둥지를 틀고 있는 것만해도 통탄을 금할수 없는 일인데 통일이후에도 미군이 계속 남아있게 해달라고 애걸복걸했으니 이것이 어찌 건전한 사고를 가진 인간이 할수 있는 말이라 하겠는가.

미군을 영원히 신주모시듯 하면서 그의 옷섶에 매달려 정치적 잔명을 부지해보려는 이회창과 같은 미국의 머슴꾼만이 할수 있는 매국배족적인 망언이다.

그는 민족적 자존심이나 존엄같은 것은 꼬물만큼도 없는 인간추물이다. 이회창은 이 땅을 미군침략자들의 군화발에 영원히 짓밟히게 하고 거기서 일신의 부귀영화와 권좌를 차지하려 하는 것이다. 이회창이야말로 더러운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미국에 송두리째 섬겨바치고 그에 개질을 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천하에 둘도 없는 특등매국역적이다.

이런 자가 권좌를 차지하게 되면 미국침략세력의 분열영구화책동과 북침전쟁도발책동이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고 남북관계는 이전의 첨예한 대결상태로 되돌아갈 것이며 민족공멸의 전쟁밖에 빚어질 것이 없다.

독사를 그냥 두면 계속 독을 쓰기 마련이다.

결론은 명백하다. 인간의 탈을 쓰고 미국에 개질을 하는 이회창을 하루빨리 민족의 명부에서 제거해야 할 것이다.

이회창과 같은 반통일매국역적과 한 하늘밑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망신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죠. 이회창과 같은 악의 인간은 정치인으로만 아니라 인간으로써도 이 땅, 이 하늘아래에서 제거해야하는 겁니다.

조선일보구독거부운동 활성화하자

구국의 소리, 주체91(2002)년 2월 18일

언론은 세상의 모든 것을 반영하는 거울이고 사회의 목탁이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조선일보는 진실을 알리는 기관이 아니라 사실을 왜곡하는 기관으로 돼버렸습니다. 그럼 이번엔 ≪조선일보구독거부운동을 더욱 활성화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조선일보가 이북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보고 파시즘적 예술이라느니 뭐니하며 헐뜯고 나섰는데요. 이를 두고 지금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 민중은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조선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면 그 어디에서도 울리는 민족의 노래 ≪아리랑≫. 이 노래속에 담겨진 하많은 사연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할수 있겠습니까.

오랜 옛날 이별의 눈물속에 태어난 ≪아리랑≫노래를 일제 식민지통치하에서 피어린 망국노의 설움속에 부르지 않으면 안되었던 우리 민족이죠. 살길 찾아 조국땅을 이별하면서 압록강과 두만강, 현해탄을 건너며 부르던 노래도 ≪아리랑≫이고 이역만리 타향에서 두고온 조국산천을 그리며 눈물속에 부르던 노래도 ≪아리랑≫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민족은 자주통일에 대한 열렬한 지향과 염원속에 그 ≪아리랑≫을 새롭게 부르고 있습니다.

남북이 단일팀으로 참가한 국제경기들과 5.1절 남북노동자통일대회,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 등 수많은 통일행사장들에는 어김없이 민족의 노래 ≪아리랑≫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민족의 역사가 비껴있는 아리랑의 선율속에 희세의 걸작으로 이북에서 펼쳐질 ≪아리랑≫공연을 두고 ≪못보면 일생 후회가 될 것≫이라며 7천만 겨레가 흥분하고 격동하는 것은 이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가 ≪아리랑≫공연을 보고 헐뜯고 나선 것은 공연을 성의있게 준비하고 있는 이북의 청년학생들과 예술인들은 물론 이 공연관람을 열렬히 희망하고 있는 이 땅의 전국민과 해외동포들, 시민들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라 하겠습니다. 이를 두고 우리 노동형제들과 각계 민중은 조선일보가 민족앞에 저지른 죄행을 다시금 돌이켜보며 치를 떨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조선일보로 말하면 친일친미사대행위만을 일삼으면서 우리 민족에게 해만 끼친 매국배족적인 어용나팔수입니다. 그리고 우리 노동대중이 생존권쟁취를 위한 정당한 투쟁에 나설때마다 집단이기주의, 사회안정을 파괴하는 쓰레기라는 딱지를 붙여가면서 악랄하게 헐뜯은 반노동자적 매문지입니다.

이런 반역집단이 6.15공동선언이행과 민주생존권쟁취를 위한 우리 노동대중과 각계 민중의 의로운 투쟁을 시비중상하다못해 이제는 아리랑공연까지 헐뜯고 나섰으니 어찌 용납할수 있겠습니까.

사회대중운동의 주도세력인 우리 1300만 노동대중은 마땅히 맨앞장에 서서 조선일보반대투쟁의 불길을 더욱 거세게 지펴올려야 할겁니다.

노동운동조직들과 운동핵심들은 각 지역별, 노조별, 현장조직별로 ≪아리랑≫공연이 가지는 의의를 널리 선전해주기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벌여야 할겁니다. 이와 함께 ≪아리랑≫공연을 악의에 차서 헐뜯는 반통일매문지인 조선일보의 죄행을 낱낱이 폭로단죄함으로써 노동대중과 각계 민중속에 반조선일보분위기를 더욱 조성시켜 나가야 할겁니다.

조선일보반대투쟁에서 중요한 것은 이 투쟁을 중도반단함이 없이 꾸준하게 완강하게 벌여나가는 것입니다. 노동대중은 지난해 조선일보구독거부운동을 벌인 좋은 경험을 적극 살려 이 운동을 현실의 요구에 걸맞게 더욱 심화시켜 나가야 할겁니다.

노동대중은 가정과 이웃, 친우들과 공단가에서 반노동자적이고 반통일적인 매문지 조선일보를 구독하는 것을 수치로 여기고 조선일보추방운동을 강도높게 벌여나가야 합니다. 동시에 조선일보 입사거부, 원고기고거부, 독자안되기, 추방 등 다양한 투쟁을 강도높게 벌여 이 반통일매문지의 숨통을 쥐야할겁니다.

조선일보반대투쟁을 벌이는데서 중요한 건 또한 이 투쟁을 반이회창투쟁과 밀접히 결부해서 벌여가는 것입니다. 이회창과 조선일보는 서로 공생하면서 다같이 6.15공동선언이행을 가로막고 미국에 붙붙어 분단에 기생하는 친미사대매국노 반통일역적입니다. 따라서 반이회창투쟁과 조선일보반대투쟁은 별개의 투쟁이 아니라 다같이 벌여나가야할 공동의 투쟁과제로 되는 것입니다.

1300만 노동형제들은 대중운동의 주력부대라는 자각을 더욱 깊이 간직하고 반이회창투쟁과 조선일보반대투쟁의 불길을 거세게 지펴올려 민족반역의 무리들을 ****징벌해야 할겁니다.

6.15공동선언을 시비하고 통일운동의 장애를 조성하는 조선일보는 지금 이 땅에 서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노동대중은 조선일보구독거부투쟁에 한사람같이 분기해 반통일매문지의 숨통을 끊어놓아야 할겁니다.



통일운동단체들 활동 자유 보장돼야

통일연대 강운모씨 / 구국의 소리, 주체91(2002)년 2월 19일



그러나 이 땅의 현실은 지금 이 시각에도 여전히 국가보안법이라는 망령이 나타나 독기를 내뿜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통일을 위해 손잡아야할 동족인 이북을 주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범민련 남측본부나 한총련과 같은 애국운동단체들에 이적딱지를 붙여놓고 그들의 통일애국활동을 이적행위로 몰아 탄압하고 있다.

최근 서울지방법원은 지난해 평양축전방북과정에 북측 범민련측과 무릎을 맞대고 통일문제를 논의했다고해서 문재룡씨 등 남측 범민련간부 2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그들은 판결문이라는데서 북은 여전히 반국가단체이고 범민련은 이적단체로 보아야한다고 공공연히 역설했는데 이건 철두철미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에 대한 부정이며 도전이다.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데 관한 6.15공동선언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돌아앉아서는 통일운동단체들과 그들의 활동을 탄압하는 건 시대와 역사의 부름에 역행하는 것이고 반민족적인 범죄행위이다.

얼마전에 이북에서는 정부, 정당, 단체합동회의가 있었다.

회의에서는 6.15남북공동선언이 오늘도 내일도 조국통일의 확고한 이정표이며 통일운동의 활성화는 시대의 요구이며 민족의 부름임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조국통일운동에서는 누구도 배제되지 말아야 하며 그 어떤 구속도 받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옳은 주장이다.

조국통일은 어느 한 계급이나 계층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숙원인 동시에 민족사적 과제이다.

하나의 민족이 한 조국강토안에서 외세에 의해 반세기이상이나 인위적으로 갈라져있다. 더이상 분열의 아픔을 감수할수 없고 외세에 의해 찢어진 이 강토를 후대들에게 물려줄수 없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의 발표로 민족자주통일의 새 시대에 들어선 오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문을 열어나가는 조국통일운동이야말로 진정한 애국투쟁이다. 따라서 이 땅에 태를 묻은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이 애국투쟁에 나서야한다. 그리고 애국적인 통일운동단체들의 활동의 자유는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

오늘날 온 겨레와 평화애호적인 세계 민중들의 열렬한 환영과 지지를 받고 있는 6.15공동선언을 부정하는 사람은 반통일분자이며 그런 자는 우리 민족과 함께 살수 없고 민족안에 있을 자리가 없다.

그리고 동족을 적대시하고 통일운동단체들의 활동을 범죄시하는 일체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은 제거되고 그들의 활동은 보장돼야한다.

반통일분열세력이 제아무리 발악해도 통일의 새봄은 반드시 오고야말 것이다.

우리 민중은 통일운동단체들의 의로운 애국활동을 적극 지지성원할 것이며 6.15공동선언실천투쟁에 모두다 동참할 것이다.

오늘날 6.15공동선언이행투쟁에 나서는가 안나서는가 하는건 통일과 반통일을 가르는 척도로 되는 것이고 또한 애국과 매국을 가르는 시금석으로 될겁니다.



공기업 연대파업 무엇을 남겼나

정부가 민영화 반대투쟁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때마침 조폐공사의 구조조정관련 파업이 전격적으로 불법 파업으로 판결되면서 정부와 사측이 민영화를 기정화하고 ≪민영화 문제는 노조가 법적으로도 왈가왈부할 수 없다≫고 노동계를 압박하고 있다. 노동계가 불법 파업으로 내몰리자 교섭사안 중 민영화 문제는 차후로 미뤄지고 노동조건 일부타협으로 협상이 마무리되고 있다.

그러나 인사경영권과 관련, 단체교섭 대상여부 논쟁은 노동운동 역사를 거쳐 계속돼 왔다. 특히 IMF이후에는 기업의 합병, 구조조정과 관련한 파업의 합법성 여부가 계속 논쟁 중이었고 26일 대법원의 조폐공사 불법파업 판결도 원심에서는 다양한 입장의 법해석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폐공 파업의 기습적인 불법판결이 이번 총파업까지 불법으로 내몰자 노동자측의 반발이 격심하다. 이들은 민영화에 대한 쟁의가 정당함을 주장하는 한편 형평성 잃은 정치적 판결에 대해 맹비난하고 나섰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은 26일 성명을 내고≪민영화는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주장하고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가는 정부를 규탄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27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이 조폐공사의 구조조정 반대쟁의를 불법파업으로 판결한 것은 현재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침을 기정사실화하고 민영화 및 구조조정 반대 파업을 불법으로 몰기 위한 정치적인 판결이었다≫고 규탄하고 편파적 노동판결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5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노동쟁의 대상의 문제는 법해석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 조항은 노동쟁의를≪임금, 근로시간, 복지 · 해고 기타대우 등 근로조건 결정에 관해 발생한 분쟁상태≫로 규정하고 있는데 기업의 인사경영권을 놓고 노조가 단체교섭을 벌일 수 있는가에 관한 논란은 계속돼 왔다.

정부는 기업 경영권에 관련한 부분은 노동자들의 쟁의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또한 인사경영권을 놓고 노사가 맞설 경우 노동자측의 의견을 묻는 노사간의 ≪협의≫가 아니라 기업의 일방적 통보를 통한 ≪합의≫를 옹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노동계는 구조조정 및 기업 통폐합 등 인사경영권은 경영진의 고유 권한이 아니라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 조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쟁의대상에 관한 법해석의 문제가 법학자들과 노동학자들 사이에서도 오랫동안 논란이 돼왔음에도 사법부가 이번 조폐공사 파업을 불법으로 판결한 것은 정치적으로 형평을 벗어났고, 이를 편파적으로 보도해 현재의 노조파업까지 불법으로 재단한 언론의 태도는 노동계에서≪음모≫라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했다.

한편 여야 정치권은 공기업 민영화를 정부소관 정책임을 인정하는 입장이지만 민영화 여부가 민감한 사안으로 부각되자 이 논의를 차기 정권으로 미뤄두려는 제스추어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치권이 계속 민영화 문제를 미루고 노동탄압적 구조조정을 강행할 경우 노동 · 시민단체와 연대해 6월 지자체 선거와 대선에서 정치투쟁을 전개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

민영화 문제가 노동자들의 고용여부 및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일 뿐 아니라 공적영역에서 보장해 줄 기본적인 서민 삶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는 문제임에도 민영화에 대한 논의는 차후 노사간 논의라는 협상안만 남기고 한걸음도 진전하지 못한 채 노동계의 고용관계나 일부 임금협상만으로 그친 것은 노동계 내부적으로도 아쉬움을 남긴다.

또한 27일 오전 신국환 산업자원부장관과 청와대에서도 ≪민영화 계획을 변경하거나 정책을 수정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노동계가 협상을 위해 민영화 문제를 일방적인 정부 정책으로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민영화의 문제를 시민의 삶의 문제로 더욱 알릴 과제가 남아있다. 민영화를 공기업의 경쟁력 상승으로 보는 정부와 언론, 대다수 시민들에게 영국 · 일본의 사례가 세계적 추세일 수는 있으나 세계적 대안은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인식시키고 국민적인 논의를 모아야 할 것이다.

시민의 신문
홍미진 기자 mizin@ngotimes.net

공공부문 파업지지 연세민노당학생위원회(추) 통일연세 조통위(가) 공동성명서

▶ 공기업 민영화를 반대한다.

김대중 정부는 공기업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 민영화, 해외매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우리는 작년 말, 국가 부도 사태까지 이른 아르헨티나와 영국의 비극적인 패딩턴 열차 전복사고, 미국 캘리포니아의 전력난과 같은 사례들을 통해 공기업 민영화가 민중들에게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인지 잘 알고 있다. 정부의 의도대로 공기업이 민영화, 해외매각된다면 우리의 생활에 필수적인 철도, 전기, 가스와 같은 공공부문이 소수재벌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초국적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 분명하다. 소수재벌과 초국적 자본은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국민의 안전에는 상관없이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감축할 것이며, 영국과 같은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말라는 보장도 없다.

▶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우리는 이번 2.25 총파업이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내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며 공기업 노동자들의 투쟁에 적극 연대할 것임을 밝힌다. 정부당국은 이번 총파업이 반민중적인 공기업 민영화와 노동자들의 비인간적인 현실에 대한 분노가 폭발한 것이며, 만일 공기업 민영화를 중지하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분노에 찬 전 민중의 강력한 투쟁에 부닥칠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우리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총파업에 대해 연대 투쟁을 진행하는 한편, 대시민홍보활동을 통해 총파업 투쟁의 정당성을 널리 알려 국민들의 분노를 모아나갈 것을 결의한다. 더불어 이번 총파업 투쟁에 지지 의사를 가지고 있는 연세인들에게 우리와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을 호소한다.

미국이여, 낙점하소서?

대선을 흔드는 보이지 않는 손
정치권 내부에 친미 성향의 인물 육성 하기도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전으로 미군이 한반도 남쪽에 진주한 이래 한국의 대권결정 과정에 미국이 관여를 포기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 역대 한국 대통령의 선출과 집권세력의 등장은 이러한 미국의 ≪공작 정치적 산물≫이거나 또는 그 위력에 힘입은 바 크다.

이승만 정권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특히 한국의 지배세력에 ≪최종적인 결재권한을 가진 존재≫로 인식돼왔으며, 이 인식의 경계선에는 미국의 의도에 어긋나거나 저항하는 정치인 또는 정치세력은 살아남지 못한다는 판단이 끈질기게 버티고 있다. ≪미국 말을 들어라.≫ ≪미국에 덤비지 말라.≫ 그것이 대권을 겨냥한 인물과 세력의 금과옥조이다.

최종결재자의 미소는 무엇인가



해방공간에서 일어난 김구 선생을 비롯한 각종 정치적 암살의 배후,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암살까지 포함해 미국의 직·간접적 영향력이 곳곳에서 확인 내지는 감지된다. 한국 정치의 대세를 가늠하는 길목에는 언제나 미국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던 것이다.

지난 50년 넘게 냉전시기에 미국은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자신의 이해를 대리하여 관철할 수 있는 인물과 세력을 물색한 뒤 옹립하고, 다른 한편으로 저항세력을 제거하는 ≪비밀공작≫을 수행해온 나라다. 가령 1972년 미국의 지원을 받은 피노체트에 의한 쿠데타로 칠레의 아옌데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그가 이끌던 정권이 붕괴되었던 것은 그 대표적인 보기다. 옛소련 해체 이후 공산당의 정치적 복귀를 저지하고 러시아의 옐친 당선을 위해서도 미국은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으며, 선거기술 전문가를 지원했을 정도로 미국의 대권 관련 공작사례는 끝이 없다.

최근 ≪파이낸셜 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가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미국 방문과정에서의 발언과 움직임을 한국의 차기 대권 향방에 대한 부시 정권의 관리방식과 연결시켜 보도한 내용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관성적 행태를 보여주는 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회창 총재 진영이 방미 이후 대단히 고무된 분위기 속에서 귀국할 수 있었던 까닭을 우리는 모르지 않는다. ≪대선≫이라는 거대한 정치변동 과정을 앞에 두고 ≪최종결재자의 미소≫가 무엇을 의미하게 될 것인지를 ≪즐겁게 예감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국이 한국의 정치과정에 어떤 방식으로 개입해 들어와 자신들의 이해에 맞는 방향으로 관리하려 들 것인지를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추적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비밀공작≫이라는 작업의 성격 자체가 공개적 자료를 노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1947년 미 중앙정보국(CIA)의 제3세계 공작과 관련한 ≪국가안보협의회 비밀명령 NSC 10/2≫에는 미국 정부의 ≪관련부인≫(Plausible Denial)을 규정한 대목이 있어 공작의 실체규명과 그 책임소재 입증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쿠바의 혁명 수반 카스트로 암살시도에 대한 미국 정부의 관련이 다양한 경로로 드러났음에도 미국 정부가 이를 인정한 바는 아직 한번도 없다. 관련 부인의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는 것이다. 정보자유법에 의한 비공개 자료의 판독도 2~30년 뒤에나 이루어질 수 있고 그나마 민감한 대목은 검은 줄로 지워서 공개되기 때문에 정확한 판독과 결론에 왜곡이 생길 여지가 있다.

정교한 인사파일 작성

하지만 ≪미국의 제국주의적 패권질서가 목적하는 바가 종국적으로는 한반도 전체에 대한 지배≫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면 그 수단인 비밀정치공작의 내용은 그런 대로 윤곽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CIA가 미국의 패권체제를 확보하는 비밀공작기구라는 점을 주목하면 이는 자명해진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한반도 주민들의 이해를 희생시켜서라도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수 있는 강력한 의지와 기반을 가진 세력의 집권을 실현하려할 것은 물론이다. 따라서 미국은 한민족의 자주성을 고취·옹호할 민족주의적 인사, 자본의 지배에 대한 계급투쟁의 정치세력화를 주도하는 인물과 세력은 철저하게 제거하는 쪽으로 사태를 몰아간다. 미국의 개입을 배제하게 될 ≪중립화론≫ 역시 미국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자주적 한반도 중립화론≫은 그러한 의미에서 미국의 패권질서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어 있다.

한마디로 미국의 지배가 한반도 지역에서 관철되는 과정에 미국에 최대의 적은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이며 해방공간에서 희생당한 인물들이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 있었던 것을 떠올리면 미국의 정치공작 대상은 명료해진다. 미국의 선택을 기다리는 대권주자들은 민족의 자주와 정치·경제적 정의에 침묵하는 것이 따라서 상책이 된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 방식으로 한국 정치를 관리하는가? 여러 가지 접근이 필요하겠으나 비밀공작정치의 기본유형을 통해서 간략하게나마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미국이 한반도에서 어떤 질서를 원하는가를 꾸준히 알리고 이에 호응해오는 세력을 포섭하고 이들 가운데 지도적 역량이 있는 자를 내심 지목하여 장기간에 걸쳐 육성하는 방식을 취한다. 군부 내 인맥의 장기적 육성은 그뒤 1980년대 신군부의 집권으로 이어졌고, 민간 정치인의 친미적 성향을 길러내는 일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이뤄졌다. 미국은 대상국가 내부의 정치권에서 자신이 주시하는 인물에 대해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30년의 시간을 두고 여러모로 관찰하고 음으로 양으로 지원하여 길러낸다는 것을 안다면, 미국의 공작정치가 가지고 있는 호흡의 길이를 우리는 깊이 염두에 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의 국내 비밀공작 제1차 작업은 철저하게 정보정치로 이뤄진다. CIA의 최우선적 기능은 여기에 있다. 이 작업을 통해 미국은 그들의 의사에 순응할 수 있는 세력과 인물들에 대한 정교한 인사파일을 작성하고 이와 함께 유사시 제거 내지는 진압해야 할 세력의 명단도 짜놓는다. 유력 정치인의 미국 방문과정과 기타 국내의 외교적 접촉을 통해서 그리고 각 정치집단 내부에 미국 정보원을 심어 한국 정치의 움직임을 매우 자세하게 파악한다. 특히 미국 정보원의 역할은 매우 다양하게 전개된다. 정치인을 비롯하여 언론인, 종교인, 지식인, 기업인 등 미국이 활용하는 정보자원은 무궁무진하다. 인도네시아의 수하르토가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미국은 그에게 제거대상 명단을 넘겨주어 무수한 학살을 자행했던 역사는 이러한 정보정치의 결과물이었다.

각종 비리사건 정보도 축적

정보는 이러한 인물평가 파일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각종 비리사건과 부패 연루, 기타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을 오랜 기간 축적해간다. 그리고 이를 필요한 때 적절한 회로를 통해 정세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공작한다. 한국의 대권주자들이 미국을 두려워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미국의 이러한 정보공작정치에 있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미국의 비밀 정보공작정치가 언론기관과 결탁되어 추진될 경우 그 파괴력은 매우 크다. 심지어 대통령이라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정보공작정치는 구시대 군사정권의 유물로만 판단해서는 오산이다. 따라서 자주적 민족국가를 이루려는 뜻을 가진 인물들은 부정과 비리에 연루되어 미국의 정보공작정치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돈문제가 미국이 한국 정치를 요리하는 데 필수적인 장치라는 점은 분명하다. 선거자금의 지원을 비롯해서 민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시조작과 극단적으로는 경제봉쇄 위협에 이르기까지 미국이 선택하고 동원할 수 있는 돈의 위력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경제봉쇄 위협은 다소 생소할지 모르나 이미 지난 1997년 금융위기의 처리 과정에서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상을 놓고 내부적인 격론이 벌어졌을 때 미국쪽이 그들과 인맥을 가진 인사들을 통해 흘린 사안이라는 점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현실에 대해 미국의 처방을 최선의 것으로 선전하고 활동했던 인물이 IMF와의 협상에서 마치 대단한 스타처럼 만들어졌던 상황도 새삼 점검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자신이 관리하는 인물들이 너무 친미적 인상을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도 이따금 이러한 인물들이 미국에 대해 비판적인 언급을 하도록 권고한다는 점 또한 꿰뚫어봐야 한다.

진보진영 내부에도 그들의 움직임을 손바닥에 놓고 볼 수 있도록 미국의 정보원으로 길러진 인물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2차대전 이후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이탈리아 노조에 미국 정보원을 깔아 진보정치의 지도자로 행세하게 하여 결국 과격하고 극단적인 파업을 주도하게 함으로써 노조의 고립을 자초하게 했던 역사는 고전적인 공작정치의 한 보기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정보원들이 각양각색의 방식으로 한국 정치의 내부를 들여다보고 있으리라는 점은 특히 대선과정에서 적지 않게 염두에 둬야 것이다. 적대적 정치세력간의 정보전보다 우리 민족 전체에 더욱 큰 위협은 바로 미국의 정보공작정치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점을 새롭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키운 정치인을 떼내라

언론은 미국이 가장 신경을 쓰는 공작정치의 수단이다. 미국에 유리한 기사와 논설을 게재하도록 평소의 인맥관계를 두텁게 할 뿐만 아니라 이로써 향후 대권주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미국의 입장을 옹호해야 할 것인지 논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인맥관계에서는 워싱턴 정가의 고위층과 인맥을 쌓고 과시하는 데 지원함으로써 국내 정치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번 이회창 총재의 방미과정은 그러한 대목을 압축해서 보여준 셈이라고 하겠다. 미국이 우리를 비롯한 타국의 내정을 간섭 조정하는 기초는 우선 군사력으로 대세를 장악하고 정치지도자를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각종 장치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건설 프로젝트야말로 미국의 제국주의적 식민통치기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며, 이 과정에 동원되는 인물과 정치세력은 결국 민족을 배반하고 자신의 일신과 일족의 영달을 위해 비리와 부패, 그리고 그 밖에 부도덕한 방식으로 정치를 피폐하게 만들어가게 된다. 일단 이러한 세력들이 집권하게 되면 전략적 국가재원을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미국 자본의 소유로 만들고, 광산채굴권 등에 이르기까지 각종 이권이 헐값으로 넘어감은 물론이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뇌물거래가 발생한다는 점을 추적해야 한다. 이는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가 반면교사로 고스란히 보여주는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미국의 내정간섭에 호응하는 세력, 특히 언론과 정치권 내의 세력에 대한 청산을 줄기차게 그리고 강력하게 벌여나가야 할 것이다. 2002년 대선은 그러한 우리의 정치적 결의가 좀더 구체적이고 집단적인 역량으로 힘차게 솟구쳐나와야 할 정치과정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미국의 지배 아래 정복된 나라의 주민처럼 살아가는 운명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이다. 민족의 자주와 정치 · 경제적 정의를 부르짖는 인물과 세력이 한국 정치의 올바른 중심에 설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이러한 미국의 제국주의적 식민통치의 전략 · 전술에 자발적으로 포섭되는 인물과 세력의 정치적 척결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확고하게 명심할 일이다.

김민웅/ 재미언론인 minwkim@worldnet.att.net

부시는 결국 평양 간다



군사외교전문가 김명철 박사(조미평화센터 소장)는 24일 로스엔젤레스에서 가진 강연회를 통해 ≪부시 미 대통령은 결국 평양에 방문하게 된다≫고 예견하면서 현재의 대북강경 정책은 그 수명이 길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미관계를 총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1)2003년에 미국의 한반도 영향력 결정적 약화, (2)2005년 연방통일 기틀 마련, (3)2008년 주한미군 철수완료시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자신있게 전망했다.

이날 오후 6시 자주민주통일미주연합 남가주지부(회장:김정주 박사) 주최로 열린 강연회는 50여명이 참석, 평상시에 별로 듣지 못하던 조미관계와 한반도 통일전망에 대해 청취하면서 한시간 이상 진행된 김박사의 강연에 숨소리를 죽이면서 집중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의 부시 미대통령이 남한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 지난날 ≪북한 지도자를 믿지 못하겠다느니 북도 악의 축이라고 말하다가 1년도 못돼서 그 말을 지속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그런 말들은 일종의 말놀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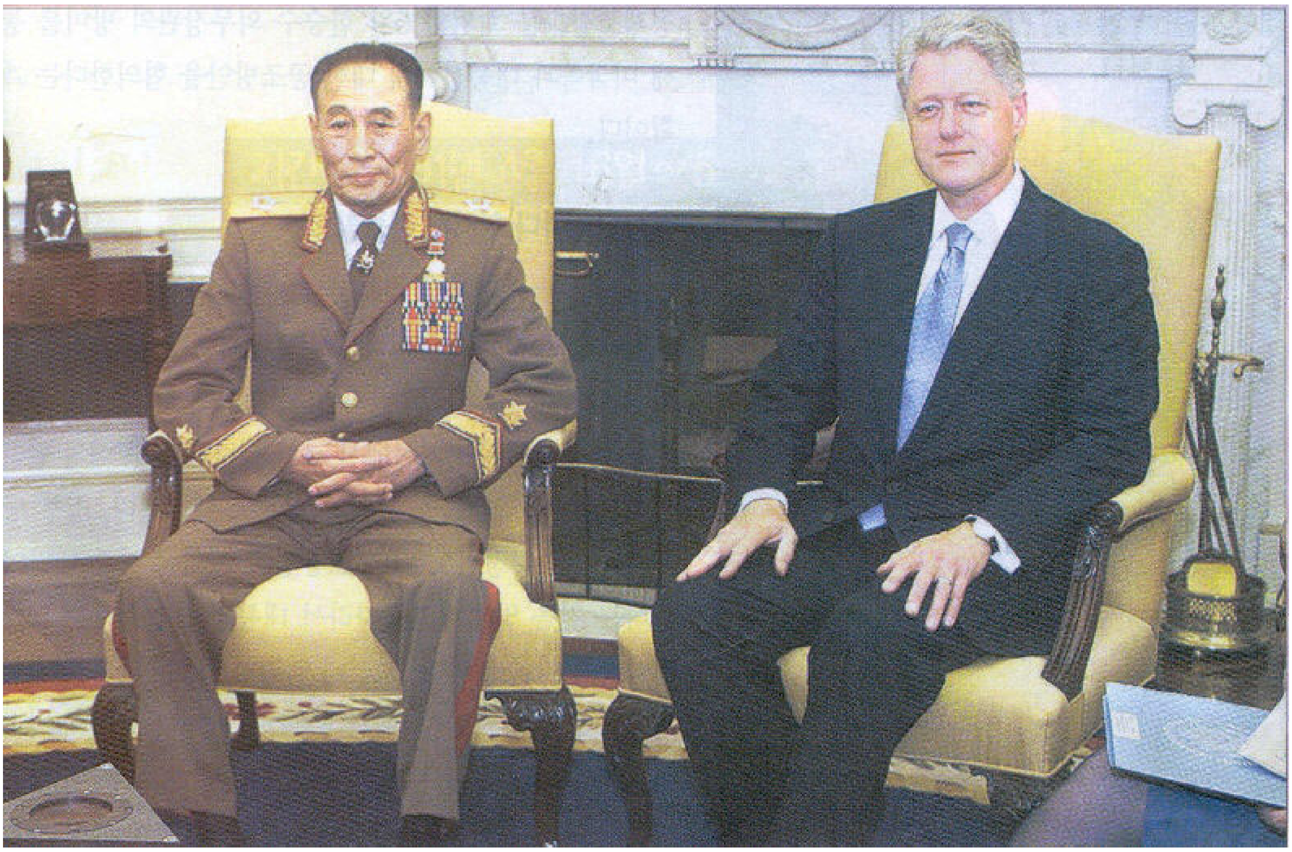
김박사는 또 ≪부시가 중국방문시에 장쩌민 주석에게 **김정일**과 회담할 수 있도록 부탁한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되물으면서 과거에는 이북이 미국과 회담하자고 요청하였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져 미국이 이북하고 대화하자는 쪽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는 조미간의 관계와 주변국의 관계들을 분석해 보면 ≪부시는 평양에 올수 밖에 없는 처지≫라고 전망했다.

김박사는 이렇게 내다본 배경을 크게 두가지로 설명했다. 하나는 **김정일**의 통일전략의 역사성이고 또하나는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들의 배경들이다.

김정일의 통일전략에 대해서 그는 (1)한의 성전으로 일본과 미국에 대해 ≪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푸는 투쟁에 대해 그동안 보관을 가져왔고 (2)미국과의 정치전쟁으로 문제를 풀어야 통일을 이룰수 있다는 관점에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먹을 것을 줄여가면서 장기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왔다는 입장이고 (3)군사문제로 풀수 밖에 없다는 관점을 세우게 되었는데 그것은 일제와 분단이후 줄곧 문제가 되어온데서 나온 이른바 ≪선군정책≫을 통해 통일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데 근거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작은 나라 이북이 초강대국 미국과 상대가 되겠는가라고 의문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많은게 당연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7세기 고구려의 을지문덕, 11세기 고려 강감찬, 16세기 이순신 등의 명장들이 강력한 외침들을 물리친 역사들을 포함하여 가까이에는 조선전쟁에서 이북과 미국은 결국 정전을 통해 전쟁이 승리없이 비기고 말았는데 이 전쟁이 비겼다는 것은 결국 이북이 초강대국 미국과의 전쟁에서 이긴것으로 봐야한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김박사는 조미간의 핵외교, 미사일외교에서도 이북이 미국에 맞설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이북의 특징적 성격을 풍산개에 비교하여 설명했다. 일본 엔에치케이 테레비방송이 풍산개는 이리와 거의 비슷(99%)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 풍산개나 이리는 지도체계가 질서가 있고 주도권때문에 싸움을 하지 않고 먹이를 가지고도 웃지위에 있는 것이 아랫지위에 있는 것으로 부터 빼앗지 않고 양보하고 싸울때는 끝까지 투쟁하는 기질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 날 ≪조미외교관계 충돌≫에서도 구체적으로 증명된 실예들이 소개됐다. (1)프에블로 나포사건(1968.1.23)에서도 죤슨대통령이 사죄를 해야했고 (2)미정찰기(E-121)침범사건(1969.4.15)으로 이북이 미국정찰기를 공대공미사일로 추격시켜 33명의 미군이 즉사했는데도 닉슨대통령은 항공모함 4척으로 위협하는 척하다가 끝내는 아무 실효없이 끝난 사건이 있었고, (3)미루나무(포플러) 벌채사건(1976.8.18)도 포드 대통령이 집권한지 3년째 되든 해 미군병사 30여명이 공동경비구역에 있는 미루나무를 도끼로 자르려고 하자 4명의 이북병사가 맨손으로 달려들어 못하게 하자 미군 한명이 던진 도끼를 받아가지고 막바로 미군을 향해 던지자 그것이 명중하여 2명의 미군장교가 즉사하고 4명의 이북병사들이 태권도로 나머지 28명을 미군들을 엎차기등으로 물리쳐 미군들이 도망간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미국은 폭격기와 항공모함 미드웨이를 들이대며 위협하였으나 북을 공격하지는 못하고 이북이 유감(regret)이라는 정도로 끝낸 사건, (4)조미간 최초의 핵대결(1993-94)에서도 클린턴 대통령은 말로만 1만명 미군증파니 하며 위협하다가 결국에는 93년 6월2일 뉴욕교섭 통해 94년 10월21일 제네바합의서에 양자가 서명하게 되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뉴욕교섭 몇일전인 93년 5월29일 이북이 하루에 지대지 미사일 3발을 발사했는데 하나는 일본 근해, 나머지 두발은 괌과 하와이 근해에 명중시키는 바람에 미국측서 질겁을 하고 조미합의서에 서명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 결과 (1)2003년까지 경수로 건설완료, (2)양자간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도록 하였는데 그 당시 미국은 얼마 않있으면 이북이 붕괴하겠지 하는 마음에서 서명했는지 모르지만 이 합의서때문에 부시행정부는 곤욕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 김박사의 분석이다.

그는 ≪만약 미국이 2003년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이북이 핵무기 개발, 미사일 발사실험이 본격적으로 진행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일본의 핵무장, 남한의 핵무장 등의 문제들 때문에 이런 현상을 바라지 않는 미당국은 세계군사전략상 딜렘마에 빠지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일본, 한국의 핵무장 견제를 위해서도 어쩔수 없이 이북의 요청을 수락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로 인해 미국이 또다시 강경대응으로 도전해 올 경우에는 일본, 미국본토, 그리고 남한은 일시에 불바다로 화하게 될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고 예상 했다.

이와같은 상황전개 때문에 부시는 평양에 오지 않을 수 없다고 그는 재차 전망했다. 부시는 그때 가서 자신이 평양에 가야 산다는 생각을 하게 되리라는 말이다. 미국의 국내경제 쇠퇴로 인한 압박을 비롯하여 유럽에서의 미국고립, 2004년 미국대통령선거 등의 변수들을 놓고서도 부시의 불가피한 평양방문을 예고했다.

강연이 끝나고 참석자들의 질의 응답 시간도 흥미를 모았다. 한 참석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한방문에 대해 묻자 그는 **김정일** 위원장은 남한방문에 대해서는 날자를 박지는 않았지만 사실 작년에 갈 생각도 있었으나 (1)남한 국방부가 재작년 ≪국방백서≫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6.15선언한 상태에서 이북을 주적으로 발표한 점과 (2) 김영삼 전대통령과 일부 수구세력이 김위원장 남한방문을 반대하며 시끄럽게 한점과, (3)현 남한정부가 러시아와의 매끄러운 외교를 하지 못해 미국 부시 대통령에게 호감을 갖지 못한 점 등의 이유들을 들어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닌 것으로 설명했다.

또 한 참석자는 이북에 아사자가 4백만명이나 된다고 하는 데 이 점에 대해서는 그 실태가 어떠냐고 묻자 그는 식량이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4백만명 운운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중상모략이라고 대답하면서 그런 말들이 오고 가는것에 대해 그렇게 기분나쁘게 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그러면 그럴수록 그 만큼 세계국가들의 식량지원이 늘어나지 않겠느냐며 웃기도 했다.

한 참석자는 통일전망과 어떤 통일이 되느냐고 물었다. 그는 이에 대해 적화통일은 있을 수 없고 또 그렇게 될 수도 없다고 대답하면서 양측의 현실들을 존중하는 기초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연방통일≫ 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비유했다. 떨어져 살던 사람들이 하루 아침에 그냥 합칠 수 있겠느냐며 문패는 하나로 하되 당분간은 침대를 따로 놓고 사용하며 사는 부부의 관계를 예로 들었다. 이것을 연방통일이라고 하면서 동양인들의 일반적 정서를 연결시켜 설명했다. 두 침대를 놓고 살다보면 지난 날들의 오해나 불신도 사라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애정도 돌아오지 않겠느냐며 사람들의 이별과 만남의 일반정서를 나라의 통일과 관련시켜 설명했다. 그는 이어 2008년 주한미군 완전철수 시기를 예견하면서 미국의 학자 사무엘 헌팅턴의 분석은 2010년이라고 진단(문명의 충돌: The Clash Of Civilization, Remaking of World Order)해 2년의 차이는 있는 분석이라고 소개하면서 2005년 연방통일을 이뤄도 주한미군을 박절하게 나가게 하는 것 보다는 체면을 살려 3~4년의 시기를 두고 명예퇴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동양의 예의도 된다고 해설했다.

마지막으로 한 참석자는 이북의 핵무기 소유유무를 묻자 그는 극비라며 직접 응답을 피하면서 미국관리들로 부터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 왔는데 그럴때 나는 ≪핵문제는 조미간에 직접 전쟁이 돌발하게 되면 그 존재유무가 곧 밝혀 질것≫이라고 대답했을 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금년 1월11일 미 중앙정보국이 미국상원군사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이북은 1만5천킬로미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준비를 완료했다는 소식을 알리는 것으로만 질의자의 질문에 응했다.

노길남 편집인
민족통신 2/25/2002 minjok@minjok.com

반부시투쟁을 더높은 반미투쟁으로

주체91(2002)년 2월 20일 ~ 22일

그리스로마신화에는 ≪판도라상자≫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인류에게 불행과 재난만을 가져온 판도라상자죠.

지금 전쟁광이며 악의 화신인 부시가 가는 곳마다에서는 그 신화속의 판도라상자가 ***않습니까. 이번 부시의 방한은 우리 민중에게 또 한차례 불행과 재난만을 덮씌운 침략행각, 전쟁행각이였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먼저 ≪반부시투쟁을 더높은 반미투쟁으로 승화시켜나가자≫ 이런 제목으로 김현규씨 얘기주시겠습니다.

이번에 부시의 방한을 전후로해서 반부시반미투쟁이 크게 고조되었는데요.

아시다시피 방한을 앞둔 부시가 북침전쟁도발과 같은 망발을 늘어놓았죠.

지난 1월 30일 ≪연두교서≫에서 한 부시의 ≪악의 축≫망발은 ******자의 오만하고 무지한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부시의 망발은 6.15공동선언이후 서로 손을 잡고 화해와 단합으로 나라의 통일위업을 세우려는 우리 민족의 머리위에 찬물을 끼얹고 또다시 이 땅위에 분열과 대결의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시켜 놓은 것으로 됩니다.

우리 민중은 이런 전쟁광, 악의 화신인 부시가 민족자주통일을 향한 우리 겨레의 진군길을 가로막고 한반도에 핵전쟁의 불을 지르려고 이 땅에 날아든 것을 결코 좌시, 묵과할수 없었습니다.

부시의 방한저지를 위한 반부시투쟁에는 언제나 믿음직한 노동자대중이 앞장에 서있었습니다.

부시의 ≪악의 축≫망언에 접한 민주노총은 즉시 성명을 통해 미국이야말로 세계 ≪악의 축≫, 한반도 분단고통의 원흉이라고 규탄하면서 이 땅의 모든 애국민중과 세계평화애호민중들과 굳게 연대하여 반부시투쟁을 단호히 전개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지난 2월 2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민주노총소속 700여명의 노동자들이 반부시시위를 벌였으며 14일에는 부시의 침략행각, 전쟁행각저지를 위한 투쟁에 총분기할 것을 호소한데 이어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600여개의 각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연일 부시방한저지투쟁을 힘차게 벌였습니다.

부시의 방한전에도 반부시투쟁은 더 강력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이번 반부시투쟁은 노동자뿐 아니라 각계 시민사회운동단체들, 전국민 모두가 떨쳐나선 반미투쟁으로써 이 땅에서 사상 최대의 대중적이고 범국민적인 투쟁이였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민중의 대중적인 투쟁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부시가 이 땅에 날아들었습니다.

왜 부시의 방한을 끝내 저지하지 못했는가.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돌이켜보게 됩니다.

노동자대중을 비롯한 온 국민의 투쟁열의가 부족했단 말입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부시방한저지투쟁을 보면 대부분의 운동단체들이 각기 분산적으로 미국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즉흥적으로 분출했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노동운동단체들 **********. 그리고 이번 반부시투쟁에서 노동자대중의 적극적인 투쟁진출과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지 않았는가하고도 생각이 됩니다.

이번 투쟁을 통해 모든 국민이 이해의 공통성을 갖는 반미투쟁을 하나로 묶어내고 보다 힘있게 추진해 나갈수 있는 강위력한 반미공동조직을 튼튼히 꾸리는 것과 함께 각 운동단체들이 고립분산적인 투쟁을 지양하고 범국민적인 운동조직의 깃발아래 하나로 굳게 뭉쳐야 배가의 힘과 위력을 발휘할수 있음을 잘알게 되었다고 봅니다. 여기서 물론 대중운동에서 주도세력인 노동자대중이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되었더라면 이번에 부시의 침략행각, 전쟁행각을 반드시 저지시켰을 겁니다.

부시의 방한이후 지금 이 땅의 자주민주통일실현투쟁에서는 더 큰 **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땅에 기여든 부시의 발자국을 살펴보면 잘알수 있는 겁니다. 즉 미국의 채찍질이 노골화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미국이 집요하게 강요하고 있는 저들의 신자유주의경제침탈정책으로 이 땅에서 대량적인 구조조정, 정리해고가 예상됨에 따라 많은 실업자와 ***** 가정파탄이 낳은 방랑아, 유랑걸식자들이 산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신자유주의경제침탈정책은 노동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전반적인 부분에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형국이 사회각지에 꼬리를 물고 산생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또한 대북강경론을 펴 고의적으로 한반도의 정세를 긴장시킬 것이며 핵무기와 같은 대량살육무기들을 이 땅에 마구 끌어들여 북침전쟁열을 고취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7천만 겨레가 지지하는 6.15공동선언이행의 앞길에 엄중한 장애가 조성되고 결국 전쟁밖에 터질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부시의 한국행각을 통해 드러낸 미국의 본심입니다.

우리 노동자대중은 이 엄중한 사태를 추호도 용납할수 없습니다. 우리 노동자대중은 마땅히 대중투쟁의 앞장에서 이번 반부시투쟁으로 고양된 반미투쟁을 더 높은 반미투쟁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시대와 역사의 부름이며 나라와 민족앞에 지닌 노동자대중의 막중한 책무인 것입니다.

1300만 노동형제여러분 농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이 땅의 각계 민중과 어깨겯고 당면한 생존권쟁취투쟁 등 모든 대중투쟁을 반미투쟁에로 지향시키고 거족적인 반미투쟁의 봄우뢰를 터쳐 나갑시다.

우리 민족에게 고통과 불행만을 가져다주는 미국을 이 땅에서 영원히 쓸어내는 반미성전에 우리 민중 모두가 분투해 나서야 할겁니다.



≪다 죽여라!≫ Kill'em All 비디오/시디 배포 안내



새사회연대는 올바른 과거 청산을 통한 밝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2월 1일(GMT) 영국 BBC 방송은 2TV를 통해서 한국전쟁 발발 초기에 미군에 의한 노근리 학살을 다룬 다큐멘터리 ≪Kill'em All!≫(다 죽여라!)를 방영한 바 있습니다. AP통신은 이 문제를 전세계적인 문제로 확산시켜 미국이 공식적으로 조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도한 AP의 최상훈 기자는 퓨리처 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공식적인 명령을 내린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 공식적인 배상 거부하고 자기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정부는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떠한 가시적인 조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새사회연대는 관련 유족회와 인권시민사회단체 그리고 학자 등으로 구성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와 협력하여 이 BBC 방송을 긴급 입수하여 자막처리하여 비디오 테입과 시디를 제작했습니다.

필요한 단체, 인사들과 다음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제목 - ≪다 죽여라!≫(Kill'em All)
방영시간 - 48분
비디오 - 한글 자막본
시디 - 한글 자막본, BBC 발행 방송관련 해설서(영문, 한글번역본), 노근리 사건 일지 및 한국전쟁 관련 자료

사실 무료 배포해야 하오나 형편상 제작실비로 환산한 연대협력비용을 아래처럼 받습니다.

* 비디오 테입(20개 한정) : 개당 4천원(우편 발송료 미포함)(일반우편 1천원, 택비 또는 빠른등기 우편시 2500원 추가)
* 시디 : 개당 25백원(일반 우편발송비 포함)

발송요청 마감일 : 2002년 2월 28일까지
계좌번호 : 한빛은행 059-061867-02-501(예금주 오영경)
문의 : 신수경 부장(ssk@newsolidarity.org)

민중참여 민중시대 새사회연대

2월의 새풍경

동대문시장에서도 탑골공원에서도
예전처럼 소곤소곤 귀속말이 아니라
이제는 내놓고들 이야기합니다
오늘이 바로 2월 16일 **김정일**장군님 탄생일이라고

서울의 대학생도 울산의 노동자도
예전처럼 조심조심 눈치보며 아니라
이제는 주저없이 속을 터놓습니다
저 철책선만 아니라면 장군님생신날 평양으로 달려가
삼가 인사를 올리는건데

저것 보세요 거리와 마을들에 하얗게 깔린
2월 명절 경하의 전단들 다투어 집어보는 사람들 손길
예전처럼 조심스럽지 않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앉아 장군님칭송의 비디오를 보며
환성을 터치는 집들의 창가마다 예전처럼 커튼을 치지 않습니다

멋있습니다
이남도 이제는 어디가나 장군님세상입니다
경향에 펼쳐지는 2월의 새풍경
김정일장군님의 위대성이 그려낸
역사의 진실한 명화폭입니다

주체91 2월 18일

경기도 수원시에서 활약하는 ≪2.16동지회≫회원들이 2월의 명절을 맞으며 **김정일**장군님의 위인상을 보여주는 특보 1, 2를 발간했습니다.
특보1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초상사진을 모시고 헌시 ≪2월의 명절을 노래합니다≫를 비롯하여 장군님을 칭송하는 글 ≪만대에 빛날 영원불멸의 업적≫, ≪만민이 우러르는 21세기의 태양≫, ≪우리는 **김정일**장군님만을 믿고 삽니다≫ 등이 실렸습니다.
특보2에는 ≪위인의 거룩한 발자취≫라는 제목아래 2월 16일을 맞으며 평양방송이 **김정일**장군님께서 이민위천의 좌우명을 지니시고 광복후부터 지난해까지 1만1326개 단위에 105만8260여리의 노정을 거쳐 현지시찰하셨다고 전한 소식을 실었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이북 민중의 한결같은 충성의 마음을 담아 금강산 천연바위에 ≪천출명장 **김정일**장군≫이라는 대형글발을 새겨넣은 소식도 구체적으로 실었습니다.

한총련소속 대학생들이 15일 서울 세종로에서 부시의 방한을 반대해 기습시위를 벌였습니다.

전국민중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소속 회원 1천여명이 16일 오후 서울 종묘공원에서 부시의 방한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광주전남지역 각계 대표들은 13일 광주 동구 금남로 광주시민연대 사무실에서 모임을 갖고 ≪부시의 방한에 즈음한 한반도평화와 민주주의수호를 위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광운대학교 총학생회 확대운영회는 6일 성명을 내고 6.15공동선언을 파탄시키는 전쟁광 부시의 한국행각을 반대했습니다.

미국의 여야상원의원들이 노근리양민학살사건을 한미정상회담의 의제로 포함시켜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총련은 9일 이회창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발표했습니다.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가 한나라당총재 이회창의 친미매국행위를 규탄해 8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철도노조와 발전산업노조, 가스공사노조 등으로 구성된 기간산업민영화저지공동투쟁본부는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기업민영화방침철회와 이에 대한 TV공개토론회, 인력감축중단 등을 촉구했습니다.

국제고통련 대변인은 이회창의 망발과 관련해 11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탄신절을 경축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가 15일 일본 도꾜에 있는 조선문화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탄생일에 즈음해 도꾜, 니시도꾜, 오사카, 야마구찌 등 일본의 여러 지역에 사는 민단 산하 동포들과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들이 축전을 드렸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그분의 탄신절에 즈음해 불굴의 통일애국투사 비전향장기수들이 편지를 드렸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민족최대의 경사의 날인 2월의 명절을 맞으며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오익제부위원장이 편지를 드렸습니다.

주체91 2월 19일

충청남도 대전시에서 활동하는 한 사진애호가모임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탄생일을 맞으며 사진첩 ≪태양은 누리를 비춘다≫를 제작했습니다.
민족의 성산 백두산일출을 표지로 한 사진첩에는 서문에 ≪2월 명절을 맞으며 만고절세의 위인 **김정일**장군님을 경모하는 애국민중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라는 글발과 함께 첫 페이지에 태양의 미소를 지으시는 **김정일**장군님의 초상사진을 모시고 그밑에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장군≫이라는 설명문이 쓰여져 있습니다.
사진첩에는 인류이상향인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해 이북 각지를 현지시찰하시며 군민들과 담소하시는 **김정일**장군님의 사진과 김대중대통령을 비롯해 박용길여사,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 등 이남의 통일사절들을 접견하시는 사진, 러시아와 중국의 정상들과 상봉하시는 사진 등 총60점이 설명문과 함께 편집되어 있습니다.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인민단결기구 후안 까레떼로 이바네스서기장은 18일 한민전 평양대표부를 방문했습니다.

부시의 서울행각을 반대하는 각계 민중의 투쟁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총련소속 대학생들이 18일 서울 시내에 있는 미상공회의소와 미대사관에 대한 점거투쟁을 벌였습니다.

서울 통일연대, 민주노동당 서울시지구, 세계무역기구반대국민행동의 주최로 16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부시행각저지를 위한 서울지역 결의대회가 진행됐습니다.

18일 참여연대와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학자, 종교인 등의 이름으로 발표된 ≪700인 평화선언문≫을 주한미대사관에 전달했습니다.

종교, 여성, 문화예술, 시민, 민중단체 인사 700여명은 18일 서울 명동 YMCA대강당에서 ≪700인 평화선언≫행사를 열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평화선언문≫을 낭독하고 평화기원 촛불 점화식을 가졌습니다.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목포대학교, 순천대학교, 광주대학교를 비롯한 광주전남지역 대학교수 200여명은 18일 광주 기독교청년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부시의 방한을 반대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탄생일에 즈음해 재러동포들의 경축집회가 러시아고통련의 주최로 15일 모스크바에서 진행됐습니다.

주체91 2월 20일

한민전 대변인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고전적 저작 ≪북과 남이 힘을 합쳐 나라의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자≫발표 10돌이 되는 것과 관련해 19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하 생략)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임시공동의장단회의가 지난 18일 남과 북, 해외에서 모사로 진행됐습니다.

부시가 방한한 19일 서울 한복판에서 그의 행각을 반대하는 집회가 잇따랐습니다.

19일 오전 서울대학교 정문위에 부시의 방한을 반대하는 내용의 대형 플랭카드가 내걸렸습니다.

광주전남지역단체들은 18일 하루종일 부시의 행각을 규탄하는 집회와 농성, 시위투쟁을 벌였습니다.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는 19일 부시의 행각과 관련해 전국민에게 드리는 격문을 냈습니다.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는 19일 각계각층 민중의 강력한 반부시의지를 담은 5개조항으로 된 공개질의서를 발표했습니다.

한총련소속 대학생들은 지난 18일 미상공회의소를 점거하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주체91 2월 21일

2월의 명절을 맞으며 ≪꽃을 사랑하는

회≫ 회원들이 모의 제6차 평양 **김정일**화전시회를 가졌습니다.
2월 16일 서울 시내모처에서 열린 전시회에는 화초애호가들이 여러달동안 정성껏 키운 **김정일**화 60점이 전시되었습니다.
화초업자인 회장 김모씨는 전시회를 개막하면서 먼저 우리 이남의 화초업자들도 평양에서 거행되는 제6차 **김정일**화전시회에 참가하고 싶었지만 그 뜻을 이룰수 없어 제6차 모의 평양 **김정일**화전시회를 이 땅에서 펼치게 됐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정일**화는 7천만 겨레와 함께 온 지구촌이 다 알고 있는 위인의 꽃이다. 우리들도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끓어오르는 경모의 한 마음을 안고 이 꽃을 재배해왔다. 위인의 존함으로 불리는 **김정일**화를 창공에 높이 받들어 올린 것은 우리 민족의 커다란 자랑이고 긍지이다. 나는 이 자긍심을 안고 이 땅에 **김정일**화가 만발하도록 하기 위해 화초업자로써의 양심을 다바쳐가겠다.≫

부시는 우리 국민의 강력한 반대와 항의 규탄에도 불구하고 방한해 한미정상회담 등을 가지고 대북정책과 경제통상문제 등 한미간 현안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정원씨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원 : 보도된 것처럼 부시는 한미정상회담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대북정책과 관련해 햇볕정책을 지지한다는니 북을 침공하거나 공격할 의사가 없으며 한반도평화가 자신의 목표라느니 하며 횡설수설했습니다.
부시의 발언에 대해 내외여론들은 ≪악의 축≫발언에 대한 한국민의 분노와 우려를 무마하고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부시는 전쟁을 원하지 않으며 북과의 조건없는 대화를 하겠다면서도 북을 악랄하게 헐뜯고 대량살상무기문제 등을 거론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소리나 같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부시가 진정으로 대화할 의사가 있다면 우선 우리 민족과 국제사회의 분노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악의 축≫발언을 취소하고 사죄해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부시는 북을 ≪어둠의 세력≫이니 뭐니하며 악랄하게 비방하면서 북이 투명성을 갖추기 전에는 자신의 행각을 돌아보지 않겠다고 떠들었습니다.
부시의 이같은 오만무례한 행위는 북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고 군사적 공격을 가하려는 그의 흉심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준 것입니다.
조건없는 대화를 하겠다면서 대화상대방을 헐뜯고 대량살상무기문제를 걸고드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부시는 한미정상회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대북정책은 물론 대테러전쟁 등 현안문제에 공동대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사실들은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 특히 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군사적 공격을 가하려는 시도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시가 전쟁을 원치 않는다느니 뭐니하며 북미대화재개를 운운하고 햇볕정책을 지지한다고 한 것은 자신의 전쟁행각을 ****고 우리 국민의 반미반전투쟁기운을 가라앉히며 국제사회의 비난을 무마해보려는 계획의 **인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호전광부시의 이같은 작태를 직시하고 이 땅에서 미국놈들을 내쫓고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활동을 더욱 과감히 벌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일 서울에서는 부시의 방한을 반대하는 투쟁이 하루종일 전개됐습니다.

부시의 방한과 때를 같이해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19일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재야인사 이성호씨가 19일 미국대사관에 오물봉투를 던지며 항의투쟁을 벌였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와 범청학련후원단체인 ≪통일청춘≫는 19일 성명을 내오고 부시의 한국행각에 항의했습니다.

주체91 2월 22일

부산 시내에서 활약하고 있는 ≪2.16경축준비위원회≫가 경축의 밤을 마련해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탄생일을 뜻깊게 경축했습니다.
지난 2월 16일밤 부산 시내 모장소에서 비공개리에 진행된 경축의 밤행사는 2.16명절을 경축하는 여러 인사들의 발언이 있은 후 ≪통일의 태양을 따릅니다≫, ≪**김정일** 세상이 온다≫, ≪잠못 드는 서울이여≫ 등 **김정일**장군님을 흠모하는 내용의 시들과 통일의지를 담은 10여편의 시가 낭송됐습니다.
이어 경축의 밤에서는 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 ≪2월은 봄입니다≫, ≪정일봉의 우뢰소리≫를 비롯한 이북노래들과 북극성 메아리악단에서 형상한 노래 10여편이 연주돼 참석자들의 절찬을 받았습니다.

요즘 항간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탄신절인 뜻깊은 2월의 대명절을 계기로 장군님에 대한 흠모의 열풍이 급격히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노래들이 널리 창작보급되고 있습니다.

부시방한반대투쟁참여사회단체 대표자들은 부시가 방한을 마친 것과 관련해 민중연대의 주최하에 21일 합동기자회견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0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노동자, 농민, 학생, 종교인들과 시민 1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부시방한반대범국민대회에서는 참가자일동의 명의로 된 결의문이 발표됐습니다.

10기 한총련은 미국이 대학생들의 서울 미상공회의소점거투쟁을 테러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21일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것은 한국민중의 반미투쟁 전체를 테러로 간주하겠다는 것외에 다름아닌 오만방자한 발상이라고 단죄했습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 19일 성명을 내고 전세계의 깊은 우려와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시가 한국에 발을 들여놓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주체91 2월 24일

민족최대의 경사절인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탄생일에 즈음해 ≪향일회≫회원들이 2.16태양맞이모임을 가졌습니다.
지난 16일 새벽 동해에 해맞이명소 정동진에 도착한 이들은 장쾌하게 떠오르는 붉은 태양을 바라보며 21세기의 태양 **김정일**장군 만세, 민족수호의 천출명장 **김정일**장군만세의 환호성을 터쳤습니다.
모임에서 회장 이모씨는 희세의 위인이신 **김정일**장군님을 모신 것은 우리 민족의 대행운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날 우리 겨레가 **김일성**주석을 맞이하여 수난의 역사를 끝장내고 광복을 이룩했다면 오늘은 **김정일**장군을 모시어 민족의 운명이 수호되고 조국통일의 길이 열리고 있다. 나는 오늘의 한반도정세를 관망하면서 이것을 더욱 절감하는 바이다. 뜻깊은 이 아침 민족수호의 영장이시고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김정일**장군을 경모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 큰절을 드리자는 것을 제의한다.≫
그의 제의에 따라 회원 모두는 **김정일**장군님의 안녕과 민족자주통일을 기원하면서 북녘하늘을 우러러 큰절을 올렸습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21일 논평을 통해 부시가 방한기간 악의 축발언에 대한 철회나 사죄 한마디없이 시종일관 자기의 망언을 정당화해 나섰다며 이러한 조건에서 부시가 북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고 한 것은 급격히 고조되는 반미감정을 무마하기 위한 기만적인 외교적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는 21일 부시의 한국행각결과를 규탄해 성명을 냈습니다.